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0월 15일 화요일(주간) 제391호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요명물 : www.sanchon.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재개되는 '선우논강'

'선우논강'이 9년 만에 다시 열린다.

1992년, 비구·비구니의 구분 없이 출가 스님들이 모여 승가 내부의 문제를 토론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공부모임으로 출발한 선우논강. 93년까지 5차례 토론마당을 가졌으나 94년 조계종단 사태 등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승랍 15~20년 전후의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행과 토론을 겸한 공부모임을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40여 명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

11월 1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리는 6회 논강의 주제는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이다. 출가자에게 있어 수행이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출가 정신에 입각해 점검해 보고,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해 승가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를 토론한다.

논강의 형식도 철저하게 '차별 없음'을 지향한다. 대표 발제자와 토론자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자유로운 토론 형식이다. 수행과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개인적 쑥덕거림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승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자는 취지인 만큼 치열한 자기 반성의 표출장이 될 것이다. 사부대중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토론마당이 될 듯하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모여서 법에 대해 토론하라. 그러면 정법이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고 당부하셨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자기 점검과 탁마야말로 불교의 자랑스런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이 살아있는 한,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 보듯 대학생 불자의 70%가 한국 불교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것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선우논강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권형진(취재 2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5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대선주자들 불교문화 큰 관심

북한산 관통로·달라이라마 방한 견해 달라

Hyundae Bulkyo 8th 현대불교 창간 8주년

◆불교 현안에 대한 대선후보들 의견

	불교정보화 지원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북한산 관통도로	달라이라마 방한
이회창	불교계가 주도, 정부는 지원	정책적으로 육성	적법한 절차 거쳐야	찬성
노무현	정부차원 프로그램 마련	정부차원서 검토	양보와 타협 필요	종교 입장 고려한 찬성
정몽준	추후 구체적 방법 제시	관심갖고 지원	국가발전 위해 필요	종교적·외교적 입장 고려
권영길	특정 종교 편향이어 반대	자연 역사·특수성 고려	도로 개설 반대	조건없이 허용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 후보자들이 불교문화에 상당한 관심과 지원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 등 불교계 현안 전반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불교 관련 정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본지가 창간 8주년을 맞아 대선 후보로 출마한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신당 창당 예정인 정몽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 4인에게 10개 항목의 불교관련 정책을 질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네 후보 중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불교문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콘텐츠 개발 및 불교문화예산 증액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서민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불교정보화 지원방식은 후보들마다 달랐다. 이회창 후보는 불교계가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노무현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정몽준 후보는 추후에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의 불교 정보화 지원은 종교 편향적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북한산 관통도로와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오류를 지적했으나, 노 후보는 정부와 불교계 측의 상호 양보와 타협을, 정 후보는 국가발전을 최우선으로 한 이해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권 후보는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무차별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권 후보가 찬성한 반면, 노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 후보는 국가와 종교계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관련 특집 6·7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가을 사찰 너무 아름다워요' 서울 강남 봉은사는 제10회 보우제의 일환으로 10일 장애인 30명과 독거노인 10명을 초청,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을 관람시켜 주었다. 이날 장애인과 노인들은 봉은사 경내도 돌아보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사진= 고영배 기자

진각종 11월 19일 방북

복지시설 건립 논의

진각종 대표단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8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과 만난 자리에서 진각종 진산 종의회 의장 등 종단 대표단 5명의 공식 방북을 요청하는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 받았다. 진각종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평양컴퓨터강습소 개설 등 복지시설 건립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평불협, 원불교 대표단도 7~10일 북경에서 조불련과 연쇄 접촉을 갖고 남북불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철우 기자 n-gan@buddhapia.com

탈북자 정착 불교지원센터 설립

내년 3월 개원, 우수인력 포교사로 육성

탈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불교지원센터(이하 불교지원센터)'가 내년 3월 개원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2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4천여만원을 투입해 탈북자 포교기관인 불교지원센터 설립을 결의했다.

불교지원센터는 1, 2차 수용시설 및 정착지 일원에서 탈북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고, 장기적으로 탈북주민 대상의 포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 기반을 닦는 활동을 펼친다. 또 향후 탈북주민의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포교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2차 탈북자 수용기관인 하나원에 법회를 개설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사찰탐방과 문화체험, 일일 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

또 하나원을 거쳐 지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신행활동이 사찰과 연계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방문팀을 구성, 하나원 수료 탈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0월에는 '탈북주민 사회정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 종교계의 역할을 모색한다.

포교사단은 2006년까지 첫 탈북주민 포교사 배출을 목표로 탈북주민 중 우수인력을 지역 불교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포교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세계불교도대회 12월 7일 말련서

세계의 저명한 불교 수행자와 학자 12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불교도 대회'(Gloval Conference on Buddhism)가 오는 12월 7~8일 말레이시아 세랑고 지방 사알람시 그랜드 블루웨이브 호텔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불교'(Buddhism for Richer Life)를 주제로 열린다.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세계 불교도 대회는 말레이시아청년불교회, 말레이시아불교포교협회, BGF(Buddhist Gem Fellowship)의 주도로 열린다. 21세기 지구촌의 미래 등을 토론할 이번 회의는 문화와 종파에 따른 차이를 넘어, 불자들 간의 연대와 우정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기자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28~30일 환경사진전·학술강연회

3국 불교의 유대강화와 동북아 평화 및 환경보존을 위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5차 대회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조계종 총무원장)는 28일 제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3국 불교환경사진전시회와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 한중일 국제학술강연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에서 3국은 국가별 2002년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교류대회 초안 문 작성, 내년도 주요 추진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02)732-4885 김철우 기자

특집 사찰 특성화 되고 있다 8·9·10면
'아름다움과 깨달음' 展 26면

창간 8주년 기념 이번주 32면 발행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불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www.jawonet.co.kr

稀譚石 희담석

"지병에서 벗어나 편안한 수면을 원하십니까?"



희담석 돌침대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아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병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
(02)3476-2335(代)
011-9230-2335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정신집중이 잘 되는 편안한 방석을 원하십니까?"



희담 휴대용 방석은 수험생, 스님, 직장인, 운전자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분에게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제고,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9-4호 금구빌딩 502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사 설

강맥 전수식을 보며

지난 5일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에서는 장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조계종 교육원장인 무비스님이 9명의 청안 납자들에게 강맥을 전수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앞으로 후학들 내지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강의할 자격을 공인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전강(傳講)'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전통을 계승하고 도제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강사의 존재는 소중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현재의 전강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한문불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의 강원제도가 정착한 것은 조선조 인조에서 숙종 연간이며, 강원 설치의 동기가 선교 겸수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인도불교원전에 대한 해독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의 불교학은 인도의 초기불교문헌에 대한 해독능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왜곡된 불교사의 문제점과 현대 한국불교의 맹점은 불타의 근본정신을 되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셋째, 현대적인 연구방법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시적인 차원에서 종합하여 연구하는 훈련이 부족하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출가자들이 어떠한 훈련과 수행을 거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가자는 단순히 교단의 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도들을 인도하는 스승의 역할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담당해야만 한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희망찬 불교의 내일을 위한 고언이다. 종단과 불교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空約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지가 창간 8주년 특집의 일환으로 지나간 대선 기간 동안 발표되었던 대 불교계 공약(公約)을 점검한 결과, 이에 대한 실행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약(空約)으로 끝난 것이다.

선거공약은 대중에 대한 공공연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락을 불문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약속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 대선주자들 역시 대불교계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아예 내걸지 말고, 발표된 공약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다.

불경에서는 정치인들을 방범(防犯)으로 간주한다. 백성들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그들에게 재판권과 경찰권을 위임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위임했던 권한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권리를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단합해서 그들을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계약설과 같은 맥락의 논리는 〈기세경〉, 〈기세인본경〉 등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불교계의 행사에도 이들이 단골손님들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에 사로잡혀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저들의 지키지도 못할 공약에 현혹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들이며,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인간과 생명체들의 공간 확보와 생명을 현양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판단해야만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동화사, 주지인사에 고과제

조계종 첫 사례 포교·가람수호 유공자 말사주지 우선 임용

복지 등 목적사업 사용 특별분담금제 신설

대구 동화사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포교와 가람수호 공로가 있는 스님을 말사주지에 우선 임명하는 주지인사 고과제도를 실시한다. 또 교육, 문화, 복지, 포교기금으로 적립해 목적사업에만 쓰는 특별분담금도 신설한다.

조계종 10교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4일 설법전에서 열린 교구종회에서 '교구 말사주지 인사규정' 및 '목적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발표했다. 교구본사 차원에서 실질적인 말사주지 품신에 관한 인사규정이 제정된 것은 처음있는 일.

이번에 마련된 교구 말사 인사규정은 전체적으로 조계종 종헌종법에 준해 입안됐다. 이 인사규정에 따르면 가람수호, 종무행정, 신도교육, 포교사업 등 8개의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인사평가표를 마련, 말사주지 재신임에 대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단의 표창을 받거나 가람수호에 공이 큰 주지에 대해서는 품신특례를 적용, 우선 임용키로 해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화사는 이와 함께 각 말사의 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용처를 분명히 했다. 1년 예산이 1억 이상 3억 미만의 사찰에 대해서는 결산금액 대비 10%~29%, 3억 이상인 사찰에게는 결산금액의 30%를 특별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교육, 문화, 복지, 포교 등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못 박았다.

동화사는 당해 임기종료 분기까지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후임주지에게 인계했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당 교구 본말사 주지직 등 각종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도 삽입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동국대 병원개원 준비위 위원장에 영배스님

동국대 불교병원 개원준비위원회는 8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영배스님을 선임하고, 병원개원위의 목적과 기능, 구성, 업무분장을 명시한 '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규정안에 따르면 병원개원준비위는 동국대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 검토 기획 준비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총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개원과 관련한 일체 서류는 모두 개원준비위로 이관돼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업무분장과 구성은 불교병원 개원에 관한 사항, 앞으로 일어날 사항, 장기 인력수급계획, 결산까지이며, 위원회 산하에 팀별로 5~7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된 실무팀과 기획팀을 두기로 했다.

영배스님은 "최대한 빨리 개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병원 개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빠른 시일 내 병원 개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대웅전 해체보수 고불식이 6일 봉행됐다.

조계사 대웅전 해체보수 고불식

32억 들여 중수… 내년 8월 새모습

조계사(주지 지홍)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송광사 주지 현붕 스님, 노태섭 문화재청장, 윤청하 종무실장, 정몽준 추미애 박진 의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해체보수불사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은 팔리어 삼장 봉헌, 대웅전 해체보수불사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사 대웅전(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127호)은 천장과 기둥 등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총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에 들어갔다. 1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8월 다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주지 지홍 스님은 "대웅전을 보다 여법하고 안전하게 중수하여, 한국의 대표사찰이자 도심 속 열린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는 창건 92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조계사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조계사, 시간의 흐름 전'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19일부터 27일까지 조계사 경내 야외전시장에서 열린다. 이어 20일 오전 11시 풍문여고에서 한마음운동회가 열리고, 24일 오후 2시 불교회관 1층에서 '조계사 인근 전통문화지구의 재발견'을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된다.

또 26일 오후 7시 경내에서 '맑은 마음, 청정한 마음'을 주제로 음악회, 27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생대회 등의 문화행사가 열린다. (02)732-2183~4.

김원우 기자

천태 다도연구보존회 창립

차문화 보급·차학술발표회 등 행사 추진

전국 규모의 다도연구회가 발족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0월 22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천태다도 연구보존회' 창립 법회를 갖고, 제1회 다도발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발족하는 다도연구보존회는 10여 개 지방의 천태종 사찰에서 활동 중인 1천여 명의 다도회원이 참여해 앞으로 천태다도연구소모임 결성, 차 문화 보급, 차 학술발표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관문사 다도연구회 지도교수 이혜자(55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씨의 '조선시대 다례 연구' 발표와 함께 각 지부의 다도시연이 이어져 차 문화의 향연을 펼쳐질 예정이다. (02)3460-5300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태고사상 학술대회 개최

25일 불교방송국 3층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상에 대해 태고사상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태고학회(회장 무공)는 25일 오후 1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태고보우국사 사상연구 제5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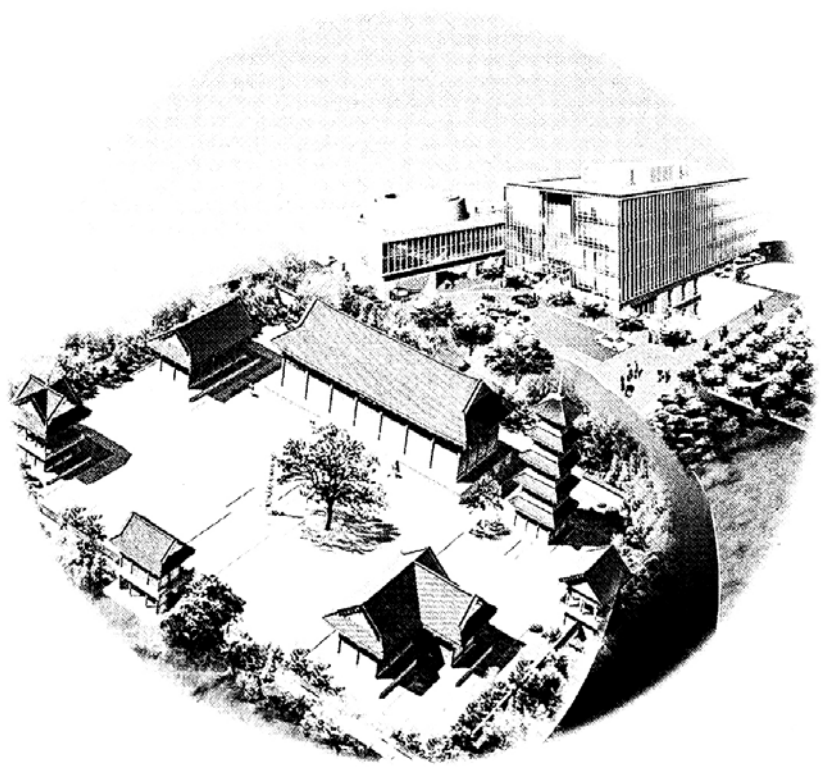
'현대사회의 갈등과 태고사상'을 주제로 한 회장 무공 스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동국대 이봉춘 교수 외 4명이 주제 발표한다. (02)904-0081 권형진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천만 불자가 지켜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민족정신문화의 중심으로서
전통을 계승하고
희망찬 불교와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항상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정신문화와 자원을
인류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사부대중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 정 법 전

원로회의의장 도 원 총 무 원 장 정 대
호 계 원 장 월 서 중앙종회의장 지 하

大韓佛敎 曹溪宗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WWW.BUDDHISM.OR.KR

"청담스님 구세사상 조계종발전의 원동력"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세미나' 서

청담스님의 선사상에 바탕한 인류 구세사상이 조계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연구가 나왔다.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과 청담기념사업회가 10~12일 서울 프레스센터와 수원 봉녕사에서 개최한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래' 주제의 학술 세미나에서 월주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청담의 구세관과 한국불교 비구승단 재건' 이라는 주제를 통해 "종단 3대 사업 설정하고, 한글 '불교성전' 간행, 동국대에 역경원을 설치, 해방이후 서울권 최초의 교육기관 신달학원 설립 및 스님들의 동국대 종비생 교육제도 실시 등의 '정화가 곧 구제' 라는 구세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담스님의 구세사상과 원행요지' 에 대해 발표한 혜정스님(문수사 주지)은 "스님은 불교의 진리가 지식을 구하는 자에게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데 있었음을 설하고 있다"며 " 스님에게 있어 구세란 인간이 저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 주인된 진리로서 자기 자신을 관리 경영하고, 나아가 세계를 구제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스님의 이러한 구세사상은 선사상에 바탕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청담스님의 선사상 연구' 를 발표한 선본스님(동대 선학과 교수)은 "선은 창조적인 생활이며, 항상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절대 깨달음의 생활이라고 제시했다"며 "결국 선의 깨달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류와 중생구제 위한 위대한 보살행으로 승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종 교수(동국대)도 '청담의 마음론 연구' 를 통해 "스님은 인간의 주체는 마음이며, 생명 그 자체라고 보았다"며 "마음 그 자체가 곧 영원불멸의 실체인 우주발전의 원동력이며 핵이라고 보았다"고 주장했다.

법산스님(동국대 교수)은 "참선은 반드시 참회를 필요로 하며 뉘우침 없는 자성의 회복이나 참나의 발견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며 "굽힐 수 없는 자비무적의 포용력을 갖춘 스님의 선기(禪機)는 한국불교의 주체성을 세우는 대보살의 원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일반에 알려지지 않는 스님의 시 세계, 선 서화 등의 논문도 발표돼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담스님의 선서' 를 주제로 발표한 조수현 교수(원광대)와 오후규 교수(부경대)는 "스님의 선서에는 선의 깊이, 무념의 세계, 참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몸부림치는 창조의 마음등이 느껴진다"며 "스님의 선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곳에 따라서' 의 경애를 표현했고, 이 것이 때로는 혁명가도 따를 수 없는 대중과 함께하는 전위성과 현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세미나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형근 동대명예교수, 동대 교수 성본스님. 문수사 주지 혜정스님,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목정배 총장.

스님禪機 한국불교 주체성 확립 원력
禪書에선 '참 나' 희구 창조력 가득

外國人스님 교육체계 확립

21~30일 첫 교과안거 … 집전의식 · 좌선 실수

외국인 스님을 위한 교과안거가 처음 실시되고, 〈초발심자경문〉 〈행해예경집〉 등 전통교재 영역본이 올 12월에 발간되는 등 외국인 스님에 대한 종단 교육체계가 확립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서울 수유리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교과안거(산철교육)를 열고, 집전의식 교육 및 한국불교문화 특강, 좌선 실수 등을 실시한다.

이번 교과안거는 올 1월 교육원이 외국인 승려 교육관계자 간담회에서 밝힌 외국인 승려 교육사업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 부족, 한문 교재 중심의 강원 커리큘럼 등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외국인 스님에게 한국불교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교육원은 외국인 승려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관련, 현행 종법 상에 관련 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가칭)외국인 승려 교육지원법안' 을 올해 말까지 마련, 다음 달에 구성될 차기 중앙종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스님은 강원 및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등의 종단기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발심 자경문 등 올 안에 영역 마무리

이번 교과안거는 2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기본 습의, 예불실수, 법구 사용법, 사시불공법, 염불수행법, 발우공양법, 각단 예불법 등의 집전의식 실전교육과 '외국인 수행자가 나가야 할 길' (원명 연등국제선원장), '대승불교와 한국 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 '한국불교문화의 이해' 및 '간화선의 이해' (심재룡 서울대 교수) 등의 특강이 이어진다. 또 29일에는 신촌 봉원사를 방문, 타고종 집전의식도 배운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지난 3월부터 동국대학교 언어연구원에 위탁해 시행해오고 있는 외국인 스님의 한국어 학습에도 강화해 많은 외국인 스님들이 교육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70% 정도 영역작업이 진행된 〈초발심자경문〉, 〈행해예경집〉 등의 전통교재 번역을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치문〉, 〈도서〉, 〈좌요〉, 〈선요〉 등의 강원 교재도 영역해 외국인 스님에게 배포한다.

현재 조계종에 등록한 외국인 스님은 총 62명으로, 이 중 비구계를 구족한 25명을 제외한 37명(사미 25명, 사미니 12명)의 외국인 스님이 현실적인 여건상 구족계 수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5년 이후 외국인 스님들은 현행 종법상 강원,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등 종단기본교육기관을 나와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교육원의 이번 교과안거 실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禪茶교육 청소년지도 큰 효과

이동배 교법사 발표
집중력 · 감성발달 … 전인교육 가능성
몸가짐 가지런해지고 교칙위반 격감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선과 접목된 다도교육(禪茶敎育)이 청소년들에게 집중력과 감성발달에 도움을 주며 지(知) 정(情) 의(義)가 조화된 전인교육의 소재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광주 정광고등학교 이동배 교법사는 10월 25일 열리는 제 32회 교학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선다지도의 내면화를 통한 불교교육 방안' 이라는 논문을 통해 "선다교육을 실시해본 결과,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생활태도평가에서 자신의 몸가짐이 가지런해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행동의 변화를 보였고, 교칙위반 학생이 현저히 줄었다"며 "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간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인 심성교육과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법사는 또 "선다교육은 서구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행다법 실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길러진다"며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켜 학교 제 주체들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감과 친교생활 문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다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 교법사는 "행다법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음다(飮茶)시간을 설정,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와 교법사의 깊은 관심과 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 교법사는 "선다교육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불교사상을 설립이념으로 하는 전국 종립학교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선을 바탕으로 다도교육이 이뤄진다면 자주적인 인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연 그대로의 참모습을 찾게 되는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해 청소년 다도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교학연구발표회는 매년 10월경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이 공동으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 이번 교학연구발표회에서는 정광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해 만든 불교 소재의 그림, 시, 공예작품 등을 관람하는 시간도 준비되며, 발표된 교법사들의 논문은 불교연합회가 논문집으로 발간해 각 종립 중 · 고등학교에 무료 배포된다. 올해 발표회는 광주 정광고등학교에서 열린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은 10월 24일 광주 센추럴관광호텔에서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 회칙을 개정하고 임원을 선출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문화행사 참가

1. 불자님은 올 가을(10~11월) 연극, 뮤지컬 등 문화 공연에 몇 번 참석할 계획입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이상 ⑤ 계획이 없다
2. 문화 공연을 선택할 때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작품성 ② 대중적 인기도 ③ 종교 ④ 관람료

설문 참여: 10월 1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2호 A판 8면에 싣습니다.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인생을 바꾸는 이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꿈을 ★ 이루십시요!
정신력을 키우고 가꿔 나간다면 귀하의 꿈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요.
귀하의 소중한 꿈들을 이루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봉 조국통일염원 아미타불 괘불점안 법회 행

우주법계와 삼라만상은 일체진여를 깨닿코져 대승종에 인연하여
나라의 염원인 남북화해와 조국통일을 위해 아미타불 괘불을 봉안하노라.
일천만 불자들이여~
무릇 때를 아는 자는 보살의 동체대비를 이루리라 하였노니
괘불점안 복전에 무루동참하시어 그 인연공덕으로 큰 복을 지으시고 세세생생토록 평안하시라.

■ 일 시 : 2002. 10. 25.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강북구민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승종 ■ 주 관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 후 원 : 대승종 전국 지방종무원. 대승종 포교사단 방범기동순찰대. 대승종 전국 신도회 ■ 협 찬 :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186-19 TEL : 031)448-8811

강릉 종합전시공간 영상테마파크內

'불교관 카르마 스페이스' 추진

가르침 상징 조형물·특수효과 장치
나선형 건축물에서 깨달음 과정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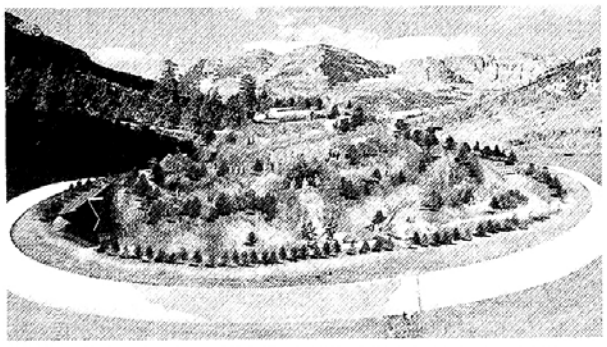
불교적 가르침에 입각해 수행의 단계와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전시공간이 강원도 강릉 영상테마파크 안에 설립된다.

(주)카르마 스페이스(대표이사 백영기)는 최근 강릉 영상테마파크 조성 업체인 (주)버추얼시티21(대표이사 한영기)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불교체험관인 '카르마(karma, 業) 스페이스'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선형 건축물의 내부에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각종 조형물과 특수효과 장치를 설치해 관람자가 단계적으로 이동하면서 정신 수양과 불교문화, 깨달음의 과정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르마 스페이스'의 주요 기능이다. 백영기 대표이사는 "카르마 스페이스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깨달음의 과정 등을 배우고 느끼는 공간"이라며 "건물의 구조가 나선형인 것도 배움이나 개달음에 있어 최고의 경지로 이르는 과정을 상징화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밝혔다.

5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강릉과학단지에 5만여 평에 달하는 영상테마파크는 카르마 스페이스 외에도 코메디월드21, 사이버월드21, 애니메이션월드21, 웨딩월드21 등 첨단 산업과 관광, 휴식이 공존하는 미래형 테마공원이다. 이 가운데 유일한 종교시설인 카르마 스페이스는 연건평 3천 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나선형 건축으로 조성된다.

(주)카르마 스페이스는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회를 11월 중에 실시해 투자 및 참여자를 공식 모집할 계획이다.(02)730-0798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강릉 영상테마파크안에 설립될 불교체험공간 '카르마 스페이스' 조감도.

"경승단 조직력 강화 포교 후원조직 필요"

경승활성화를 위해선 경승단 조직력 강화와 경찰포교 후원조직 건설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승실장 연수에서 경승단장 도영스님은 '경찰포교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영스님은 "경승 지단 활성화 및 중앙사무국 역할 강화, 경승단 연수 및 지역간담회 정례화, 경승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승에 대한 관심과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 사암연합회를 적극 활용 △경승활동 근거지인 법당과 경승실 마련 △미장립 경찰불교회 결성 지원 △체계적인 법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영스님은 "약 5만여명에 달하는 전·의경 포교를 위해서 내년 전의경부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승지단 간담회를 통해 활동계획을 구체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공중파 방송들 불교왜곡 극심

스님 일화 잘못 인용·우스개 꺼리로

공중파 방송들의 불교왜곡과 모욕적인 묘사가 도를 넘고 있다.

6일 밤 방영된 MBC의 '타임머신'에서는 스님이 십자가 깃발 아래서 할렐루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 연출되어 불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방영분 가운데 네 번째 에피소드 '기적은 ★이루어진다'의 내용 중 장애자성지순례단에 궁예를 패러디한 애꾸눈 스님을 포함시켜 억지웃음을 유발시켰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됐다.

MBC '타임머신' 시청자 의견 코너에는 불자들의 항의가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가톨릭 관련 성지순례에 스님이 끼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울리지 않고 이는 불교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격분하고 있다. 스님의 모습이 희화화되고 날조되어도 되는 것인지, 친절한 수녀의 모습, 광채에 덮힌 교황의 모습과 너무도 비교된다는 의견도 있다.

'타임머신' 담당 임남희 PD는 "앙드레 김이나 영구와 같이 궁예가 유명한 캐릭터이기에 그 캐릭터를 차용해 작품의 재미를 배가시켰던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해명했다.

EBS도 '도올, 인도를 만나다' 4일 방송에서 김용옥 씨가 원색적인 육두문자를 포함한 춘성스님의 일화를 소개해 물의를 빚었다.

KBS 제1라디오는 지난 3일 방송된 '역사탐구' 코너에서 일제시대 신여성을 다루면서 일엽스님이 죽음 전에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빚어, 9일 정규방송에 앞서 정정방송을 내보냈다.

강지연 기자

우즈벡에 한국사찰 건립

자광사 내년 1월 착공

경율론 74부 380여권을 한역한 구마라집 스님이 출가하고 공부한 땅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사찰이 건립된다.

우즈베키스탄불교협의회(지도법사 양기훈)는 수도인 타쉬겐트시 구 일륵시장에 대지 1만평, 건평 3천평의 한국 및 이슬람 양식을 혼합한 자광사를 건립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키로 했다.

미화 20만 달러가 소요되는 3층 규모의 자광사에는 대웅전, 아미타전, 미륵전(교육관), 지장전(명부전 및 장례예식장), 종각 9층 금륜탑, 요사채 및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포교활동을 펼치다 최근 귀국한 고월 포교사는 "자광사 불사는 우즈베키스탄 1500여 교민은 물론 17만 고려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것"이라며, "본국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포교사 선발 이원화

강 유 신 (취재2부 기자)

포교사 선발이 이원화된다.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29개 불교교양대학으로 구성된 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2월 8일 자체 포교사 고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조계종 소속 포교사 외에 연합회 포교사가 활동에 나서, 포교 일선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불교대학협의체가 조계종 불교대학협의회와 불교교육단체연합회로 양분된 데 이어 포교사 고시마저 따로 치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봄 조계종이 발표한 '신도전문교육기관령', 자격요건을 갖춘 교양대학이 조계종에 등록해,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반면, 등록하지 못한 교양대학은 응시에 제한을 받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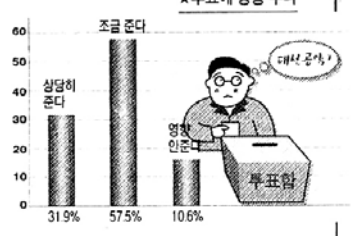
이때 적지 않은 대학들이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운영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등록을 포기하고 조계종 이외 종단 소속 대학들과 함께 연합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신도증이 있는 교수만 임용해라' '포교원이 발간한 교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라' 등의 규정도 우수 교수 선발 및 우수 교재 연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반발이 컸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신도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교양대학이 자격 요건 미달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조계종에 등록하지 못한 200여 교양대학 졸업생이 포교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조계종 등록 불교대학에서 공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조계종과 연합회 양측은 이번 일을, 선의의 경쟁 속에서 포교사 교육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불자의 생각

대선후보들의 공약



"불교계 공약 대선투표에 영향" 89.4%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들의 대 불교계 공약이 투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66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설문조사에서 후보자들의 대 불교계 공약이 불자들의 투표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38명(57.6%)이 조금 준다, 21명(31.8%)이 상당히 준다고 응답 사람보다는 공약을 보고 투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은 7명(10.6%)에 불과했다. 공약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자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1명(77.3%)이 관심있다, 15명(22.7%)이 관심없다고 답변했다. 김두식 기자

'북한산 노선조사위' 첫모임 무산

"모든 공구 조사범위 확대" 요구 시공사측 거부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조사위원회 첫 모임이 조사구간과 인원구성, 경비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위원장 성타) 측은 4일 △노선조사구간을 일산~퇴계원 전 구간을 할 것 △시공사측 노선조사위원 중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의 관련 인사 배제 △노선조사 소요경비 정부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고속도로측은 5일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와 불교환경연대는 8일 "인접 공구의 공사를 계속하면서 노선조사 범위에 4공구 외의 구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립공원을 파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흡)은 8일 3, 5공구를 포함, 일산~퇴계원간 전체 구간의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남동우 기자

'김태복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탄원서 제출

김태복 장군 재판과 관련 육사 26기 동기생과 95성우회 79명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태복 장군이 4년여동안 불공정한 군사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군인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명예를 훼손당하면서 재판을 지속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조속한 명예 회복을 청원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모시는 말씀 / 태고탄신 701주년 기념
- 태고보우 국사 사상연구 제5차 학술발표회 -

한국불교 태고학회는 한국불교의 종조요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을 계승하여 어두운 이 시대와 사회에 빛을 던져 주고자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현대사회의 갈등과 태고사상> 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학술회의에서 우리는 문명의 전환점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에 대하여 태고국사의 사상이 제시할 수 있는 방향과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갈등에는 여러 양상이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태고사상은 한국불교의 갈등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태고사상은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가 태고사상은 자연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보산업 문명 시대에 태고사상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종교사회에서의 태고사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문명의 여러 문제와 세계 평화, 그리고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술행사를 통하여 태고사상이 교계뿐 아니라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의 해소와 미래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정신으로 조망되기를 바랍니다.

불기2546년 4월 17일
서기2002년

한국불교 태고학회 회장 서무공 합장

제 1차

태고탄신일 701주년 [음 9월 21일]
※대회 일자 : 불기 2546년[2002년] 10월 25일[음 9월 20일]13시
※대회 장소 : 마포 불교방송국 3층 공개홀
기조강연 현대사회의 갈등과 태고사상 — 무 공(태고학회장)
제1주제 태고사상과 한국불교의 갈등현상 — 이봉춘(동국대교수)
제2주제 태고사상과 인간심성의 문제 — 최연자(원광보건대교수)
제3주제 종교간의 갈등과 태고사상 — 김용표(동국대교수)
제4주제 사회적 불평등문제와 태고사상 — 박경준(동국대교수)
제5주제 환경위기와 태고사상 — 장 익(위덕대교수)
※토 론
1. 서윤길 교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2. 법현 스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3. 우 제 선 (동국대학교 교수)
4. 한 자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 김 상 영 (중앙승가대학 교수)

제 2차

태고탄신일 702주년[음 9월 21일]
※대회 일자 : 불기 2547년 (2003년) 음 9월20일
제6주제 태고사상과 한국의 정치적 갈등문제
제7주제 정보산업 문명시대와 태고사상
제8주제 세계평화의 문제와 태고사상
제9주제 태고사상과 남북통일 문제
제10주제 지구촌시대의 경제문제와 태고사상

태고학회임원

삼 사 덕암(태고종종정), 서암(전조계종종정), 숭산(화계사 조실, 조계종원로의원)
증 명 운산(태고종총무원장), 정대(조계종총무원장), 혜초(태고종승정,전총무원장), 원주(경실련이사장,전조계종총무원장), 일우(태고종승정,원로의장), 남파(태고종승정,원로의원), 일공(원융종종정), 법장(태고종승정,사정위원장), 무찰(재,일붕선교종종정)
고 문 서돈각(불교진흥원이사장), 손희정(국회의원),송석구(동국대총장), 정태혁(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오형근(동국대명예교수)
심사위원장 서윤길(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연구위원장 권기종(동국대불교학회장)
연 구 위 원 김상현(동국대교수), 법산(동국대교수), 종범(승가대총장), 허흥식(정신문화연구원교수), 성본(동국대교수), 종호(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박경준(동국대교수), 장익(위덕대교수), 최연자(원광보건대교수), 김방룡(영산불교대교수), 진원(동국대겸임교수), 주명철(동국대겸임교수), 법현(동방불교대학교학처장)
자 문 위 원 성광(군불교진흥회장, 화계사주지), 동광(도선사, 청담복지재단이사장), 등봉(재,일붕선교종총무원장), 청송(전 재,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도기(전국일붕문도회장, 관음사주지), 성각(한국불교승가회중앙회장), 현광(보림사주지), 인공(영산재보존회장, 봉원사주지), 원성(강북사암연회장), 자원(태고종총무원부원장), 정각(전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운(태고종사정부원장), 도운(태고종원로의원),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김철회(태고종신도명회장), 성순경(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이사장)
회 장 무공(태고종중앙포교원장)
상임부회장 대은(해동불교밀음대학장)
부 회 장 지즉(태고종원로의원,전봉문예원장), 법청(선암사포교국장), 지공(재,일붕선교종사정원장), 원해(태고종총무부장), 혜광(용화정사주지), 설산((사)21세기한국불사회이사장), 혜준(태고종포교연구실장)
연구기획실장 김윤길(동국대불교대학원교학과장)
총 무 이 사 법현(동방불교대학교학처장)
교 무 이 사 성덕(수덕사주지)
재 무 이 사 법련(태고종포교연구위원장)
사 회 이 사 도봉(약사사주지)
포 교 이 사 경담(태고종규정부장)
호 법 이 사 동우(태고종교임부장)
연 구 이 사 도각(태고종청년회장),혜일(정방사주지),대봉(불성사주지)
홍 보 이 사 석환(선문화대표)
국 제 이 사 철안(서울불교주간)
이 사 혜천(재,일붕선교종총무원부원장), 덕봉(성국사주지), 법우(전태고종재무부장), 법운(재,일붕선교종교육원장), 화암(재, 일붕선교종포교원장), 정담(태고종포교원신도국장,해운사주지), 복정(복정사주지), 성오(남가섬사주지), 삼현(능엄선원주지), 법성(태고종규정국장), 법성(재, 일붕선교종사정부원장), 대선(바라정사(대선사)주지), 월단(덕화사주지), 태일(달마선원주지), 지관(정토사주지), 혜성(성덕사주지), 송덕(관음사주지), 통엉(재, 일붕선교종원로), 우종곤(영인통신대표), 이기표(부산보현의집원장), 최인순(무량사선정회장), 박범준(朴範竣, 무량사학생회장)
감 사 명종(재, 일붕선교종회의장), 청봉(태고종종정홍보원부원장)

태고법손 五대 결의문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에 따라)

1. 태고 법손 종단은 한국불교 종조 및 중흥조이신 태고탄신일 다례제를 반드시 봉행하자
2. 태고 법손은 한국불교 종조 및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 연구 선양사업에 동참하자
3. 태고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일불승사상 및 선교겸수의 대법을 연구 수행 종풍을 진작하자
4. 태고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운용 회통 통합의 정신 실천으로 한국불교의 대화합과 통합을 도모하자
5. 태고 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실천사상을 현대 사회의 모든 갈등 해소와 미래 인류 평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대 정신으로 승화하자

※ 본 태고학회는 임원 의무금(년 1백만원)과 주최종단 및 단체의 후원금,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뜻있는 태고법손의 동참을 바란다.

불기2546년 7월 8일
서기2002년

■ 주 최 :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조계종,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한국불교 승가회 중앙회 ■ 주 관 : 한국불교 태고학회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84-14,12(무량사내) 전화 02)904-0081,0016 / FAX 904-0083 / H·P011-750-0016 한국불교 태고학회 회장 서 무 공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아난의 총지·문수의 지혜를…"

"법계(法界)에 두루하옵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법등(法燈)이 빛나고 법향(法香)이 온 도량에 가득한 조계산 송광사에서 범일 보성 대종사의 증명 하에 무비 강백을 전강 아사리로 모시고 전강식(傳講式)을 봉행하게 되었음을 고하나이다."

5일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 능허스님이 고불문(告佛文)을 낭독하자 전강식에 참여한 200여 사부대중은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는 9명의 눈 밝은 납자(衲子)들에게 일제히 시선을 보냈다.

무비스님 전등강맥 전수법회 열린 날

능허(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현진(송광사 승가대학 강주) 원철(월간 '해인' 편집장) 지상(전 은해사 승가대 강사) 용학(범어사 승가대 강사) 정한(범어사 승가대 강사) 지성(불광사회과학연구원장) 상현(전 해인사 승가대 강사) 현석(동화사 승가대 강사)스님. 법당 맨 앞에 좌정한 이들 스님들은 경허→한암→탄허→무비 스님으로 내려오는 강맥을 전수받는다는 사실에 고무된 듯,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강백 무비스님의 전등강맥(傳燈講脈) 전수(傳授) 법회는 근래에 찾아보기 힘들만큼 대규모로서, 강맥을 전수받는 스님들 면면 또한 뛰어난 학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강(傳講)이란 교학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말한다. 즉 강학 전등의 뜻으로, 부처님과 스승의 학적 토대를 제자에게 물려주는 의식이다.

고불문 낭독이 끝나고 마하가섭의 '염화미소'를 상징하는 헌화가 이뤄졌다. 잠시 후 전강 아사리인 무비스님이 등단을 하자 9명의 전강제자들은 3배를 올렸다. 무비스님은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전법게(傳法偈)와 스님이 직접 번역한 화엄경,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이어지는 전등법계보(傳燈法係譜)를 강맥 전수의 신표로 전달했다. 또한 능허 현진 원철 지상 용학 정한 지성 상현 현석 스님에게 각각 일진(一眞), 혜등(慧燈), 혜조(慧照), 청림(淸林), 법해(法海), 현산(賢山), 중산(重山), 지월(智月), 정안(淨安)의 법호를 내렸다.

무비스님은 훈화에 앞서 송광사와의 인연부터 꺼내놓기 시작했다.

"70년대 초 쯤이었나요? 여기 송광사 문수전에서 4-5명의 납자들과 자유롭게 정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캄캄한 밤 관음전으로 가기 위해 더듬더듬 성냥을 찾았습니다. 손에 잡힌 성냥으로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불법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즉 어둠과 밝음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과거 선사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명실성 즉불성(無明實性 卽佛性). 그 때의 깨달음 소신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또한 놓치지 않았다.

"역사의 강물이 쉼 없이 흐르듯 전통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정진 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달마가 동토(東土)로 온 것도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학인과 강사가 다른 것은 강사가 학인보다 2배 더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강 아사리인 무비 스님이 9명의 강맥 전수자들에게 훈화를 하고 있다.

훈화가 끝나자 현진스님이 전수제자 대표로 입지발원문(立志發願文)을 낭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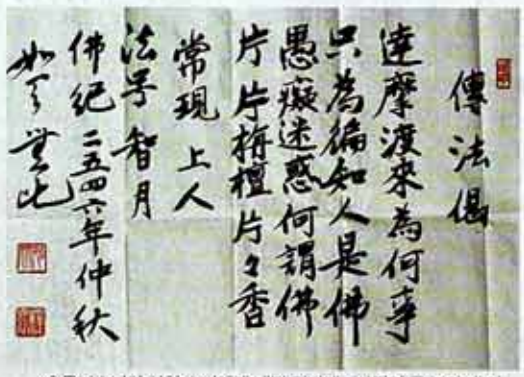
"세존이시여, 저희에게 이심전심하는 가섭의 미소를 터득하고, 팔만법장 다문하여 아난의 총지(總持)를 얻으며, 분별망상 그대로 문수사리의 지혜가 되고, 행주좌와 일체행은 보현의 만행(萬行)이 되게하소서. 형체 없는 저 허공 부서져 없어진다 하여도 금강 같은 저희 원력 끝 없으리이다."

이어 오늘 강맥 전수식을 축하하기 위한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뤄졌다.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교학분야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학풍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학문하는 모습을 보면 꽃꽂이 하는 식으로 외형에만 너무 신경 써 내실이 부실한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강맥이 세속적인 정실과 야합하는 인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비 스님이 전강 제자들에게 신표로서 전법게와 경전, 법계보를 전달하고 있다.

전법게·경전·전등법계보 전달
9명의 제자들에게 법호 내려


◇무비스님이 상현 스님에게 내린 전법게. '사람이 곧 부처님'이란 무비 스님의 평소 지론이 담겨있다.


◇이번 전강식은 현진 스님의 송광사 강주 취임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진 스님이 전강제자 대표로 입지발원문을 낭독했다.


◇전강식이 끝나고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원철 지성 현석 현진 지상 능허 상현 용학 정한 스님이다. 앉은 이는 무비 스님.

전강식과 강맥

"내 청정법안의 열반묘심과 실상무상의 미묘정법을 너에게 부촉하느니, 너는 마땅히 호지하라(경덕전등록)" 하신 부처님과 마하가섭의 유지를 잇는 전강은 전법의 한 유형으로, 선가의 전심(傳心) 및 율가의 전율(傳律)과 함께 교가 사법(嗣法)의 한 형태다.

전강식과 관련된 문헌은 존재치 않으나 대개의 경우 강(講)할 능력을 인정받은 강사에게 대중이 삼배를 올리고 스승이 그 강사에게 법호를 내림이 일반적이다. 전강받은 제자는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통해 공인을 받음이 전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통한 전강의 풍습은 현대에 와서 점차 사라져 왔으며 서적이나 전강게송을 전함으로써 강맥을 잇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강맥은 제1조(祖)인 마하가섭(摩訶迦葉)부터 27칠조 반야다라(般若多羅)까지, 28조인 중국의 보리달마(菩提達磨)부터 56조 석옥청공(石屋淸珙)까지, 이후 57조인 우리나라의 태고보우(太古普愚)로 이어졌다.

6·25 이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강원은 영호한영 축원진응 금봉병연 등 3대 강백 7대 강사로 불려진 대덕들이 있었다. 이 중 한영스님은 순천 선암사 설유처명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한영 스님은 운허용하(耘虛龍夏) 운기성원(雲起性元) 운성승희(雲惺昇熙) 고봉태수(高峰泰秀) 성능복문(性能福文) 청운종현(靑雲宗玄) 명봉(明峯) 학봉(鶴峰) 스님들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이번에 전강식을 가진 여천무비(如天無比) 스님은, 한암 중원 스님에게 강맥을 이은 탄허공성 스님에게 전수 받았다.

스님은 58년 출가, 64년 해인사 강원을 수료하고 제방 선원에서 10여년 안거를 성만했으며 범어사 통도사 강주를 지냈다. 조계종립승가대학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조계종 교육원장으로 있다.

부처님 유지잇는 사법(嗣法)형태
대중에 강의할 능력 공개적으로 인정

강맥 전수받으려면

강맥을 전수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특별히 없다. 무비스님은 "강맥을 전수받기 위해선 내 사상이 푹 젖어들어야 하고 선교를 겸해야 하며 인품도 뛰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또 "아무리 학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100일 이상은 스승 밑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한 3년 정도 같이 있으면 제자들의 학문적 수준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강맥을 전수하는 은사와 제자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강을 쉽게 결정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에 강맥을 전수받은 스님들은 무비스님이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 인연을 맺었다. 9명 스님들이 모두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큰사찰의 승가대 강사를 역임했으며 각기 경전주석서도 발간했다. 승가대학원 1기인 능허스님은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뒤 직지사와 범어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북본열반경(北本涅槃經)〉 등의 주해서를 냈다. 같은 1기 출신인 현진스님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뒤 통도사 승가대학 중강, 직지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능엄경정맥소(楞嚴經正脈疏)〉 등을 냈다. 역시 승가대학원 1기 출신인 원철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해인사 승가대학 중강,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를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등을 발간했다.

선·교 겸하고 인품뛰어나야 자격
스승밑에서 100일 이상 정진해야

승가대학원 2기인 정한스님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뒤 범어사 승가대학 중강을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불조삼경지남(佛祖三經指南)〉등을 펴냈다. 같은 2기인 지성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불광사 불광교육원장을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금강경삼가선해(金剛經三家禪解)〉 등을 펴냈다. 현석스님도 2기 출신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실상사 화엄학림 2기,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를 역임했고 〈역주 (譯註) 화엄경개요(華嚴經槪要)〉등을 펴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봉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II

16대 대통령 출마자에게 듣는다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의 종교와 문화정책에 대한 마인드는 향후 불교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창간 8주년을 맞아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어떤 종교 · 문화정책을 구

질의내용

1.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종교정책을 펴실 생각이십니까.
2. 정부의 문화예산이 4년째 일반예산의 1%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불교문화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불교 관련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3.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기관과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찰이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불교계 정보화 수준이 낮았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불교계 정보화 발전을 위한 검토와 지원 의향은?
4. 문화콘텐츠 개발이 국가 문화사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의 보고인 불교문화에 관심을 기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활용은?
5. 지난 9월말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재청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문화재의 효과적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에서 부실공사가 계속되는 등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은?
6. 조계사는 경복궁-인사동-북촌-청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의 중심축이자 불교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조계사 일대의 문화지구 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북한산 관통도로나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사찰의 수행환경 및 문화환경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8. 환경운동, 대북교류 등 불교의 대사회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가한다면?
9. 정부의 불허로 지난해 달라이 라마 방한이 무산됐습니다. 달라이 라마 방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10.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갈등현상이 간혹 일어납니다. 종교화합을 위한 방안은?

대선후보들 불교와 인연은…

◉이회창: 가톨릭 신자다. 그러나 이 후보는 "가톨릭의 화해와 일치, 나눔의 정신은 불교의 화쟁, 자비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 후보의 불교인연은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경주 삼불사에 딸린 한 암자에서 두 달 정도 머무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두 차례 연속 선출되면서 대부분의 불교계 중요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불문(佛門)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 역시 가톨릭 신자지만 웬만한 불교신자보다 가본 절이 더 많을 정도로 불교와 친숙한 편이다.

◉노무현: 무종교인이다. 그러나 "불교는 개인의 완성과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함께 완성되기 위한 고도의 철학과 실천력을 겸비한 종교라고 생각한다 "고 말한다.

노 후보의 불교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 어릴 때 어머니의 독송에 잠을 깨곤 했다는 노 후보는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노 후보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독실한 불자다. 지난 1일 해인사 1200주년 개산대재에 참석한 후 종정 법전스님으로부터 대덕화(大德華)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권영길: 가톨릭 신자다. 그러나 권 후보는 "불교는 훌륭한 사상체계를 갖춘 종교이며, 특히 내가 추구하는 평등사상이 불교의 평등사상과 거의 같다"고 말한다.

권 후보의 불교 인연은 어머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가 서울 봉은사 신도였던 권 후보도 경허, 만공스님들의 고승전을 읽으며 삶과 세계를 초월해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스님들의 삶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북한산 관통도로나 경부고속철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에서도 적극 찬성했다. 부인 강지연 여사도 가톨릭 신자다.

◉정몽준: 개신교 신자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의 민족종교로 국가의 명운과 함께 해왔다"고 말한다.

정 후보의 불교인연은 아버지인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청담스님과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무사고를 위해 청담스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정 명예회장은 타계후 49재가 서울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정 후보는 지난 6일 권영길 후보가 함께 조계사 대웅전 해체 보수불사 고불식에 참석, 월드컵때 보여준 불교계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후보의 부인 김영명 여사도 개신교 신자다.



이회창 후보(한나라당)

1939년 황해도 출생
195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60~65년 인천지원 · 서울민사지법 · 서울형사지법 판사
197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81~86년 대법원 판사
1988년 대법관
1988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993년 감사원장
1993~94년 제26대 국무총리
1996년 신한국당 상임고문, 대표위원, 총재
1997년 한나라당 제15대 대통령후보
1998~2002년 同총재
2002년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후보

불교문화가치 발굴 · 보존

1. 종교정책은 자율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교가 국민의 정신과 문화생활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2. 현 정권은 문화예산 1%를 강조하고 있지만 불교문화나 민족문화 등 우리가 계승발전 해야 할 순수문화에 대한 지원은 전체 문화예산에 비해 작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교문화와 민족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며 보존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3. 불교계의 정보화 이용실적이 50%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실태조사를 검토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정보화는 정부차원보다는 불교계에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교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당에 지원방안을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불교수행 등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미 현 정부에서 전통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교계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저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는 불교계가 참여하여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것입니다.
5. 비지정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지정문화재의 현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비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전체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불교문화재는 전통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불교신도들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불교문화재의 보수 및 관리에는 반드시 불교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6. 조계사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라면 당연히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7. 가장 큰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절차나 시각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8. 우리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수천년 간 보존해 온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 불교가 환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과 문화적인 차원에서 불교계가 대북교류에 앞장서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교계의 대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9. 달라이라마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10. 제가 믿는 가톨릭은 화해와 일치, 나눔과 섬김을 추구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불교의 화쟁사상, 자비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불교문화재 보수 반드시 불교인 참여케

서울 조계사 일대 문화지구 지정 찬성



노무현 후보(민주당)

1946년 경남 진영 출생
1966년 부산상고 졸업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8년 변호사 개업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인권변호사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1987년 민주헌법정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1991년 통합민주당 대변인
1995년 통합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최고위원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후보

균형잡힌 종교정책 펼것

1. 역대 정권에서는 나름대로 균등하고 평등한 종교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종교 간의 인적 편향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종교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여 종교정책에 있어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무형문화재의 유지와 계승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교계가 문제로 삼고 있는 문화예산의 집행에 있어 문화재의 질과 양에 따른 예산 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불교의 현대화 · 정보화에 대해 적극 찬성입니다. 정신문화를 이끌어 가는 불교가 정보화와 접목될 수 있는 점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 DB 구축, 불교 포털 사이트, 관광 연계 템플 스테이, 인터넷 지원 시스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콘텐츠 강국이 상상력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불교문화 관련한 콘텐츠 개발은 결국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 문화재가 도난 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의 부실공사는 문화재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6. 인사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조계사 근처까지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때에 문화지구 지정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과 결과가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만족시켜서는 안되고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개발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수행환경과 문화환경의 수호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일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행의 완성과 함께 사회의 완성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라든지, 민족적 자주권 등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게 항상 이익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정치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0. 근래 들어 종교간 화해와 공유의 모습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속에서 종교간 갈등이라는 문제해결점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적극적 참여 검토

수행환경보호 양보 · 타협으로 해결해야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www.dongguk.edu



열린교육으로 참사람을 길러냅니다

물질중심의 가치관에서 인간중심의 가치관으로,
닫힌교육에서 열린교육으로,
울타리 안의 교육에서 세계와 호흡하는 세계화 교육으로 –
동국대학교는 기존의 생각과 발상을 뛰어넘는 교육체계.
참사람을 길러내는 열린교육으로 대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이면 개교 100주년 –
'참사람 열린교육'의 도량(道場) 동국대학교가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빛낸 인재를 배출해냈듯
새로운 100년에는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참사람 열린교육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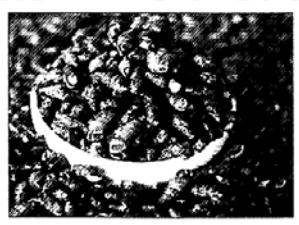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암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상하고 있으며, 불교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10개 문항을 채택, 질의했다. 이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단 정몽준 후보의 의견은 최종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16대 대통령 출마자에게 듣는다

Hyundae Bulkyo 8th 8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II



정몽준 후보(무소속)

1951년 서울 출생
197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년~1987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7년 현대중공업 회장
1988년~(현) 13·14·15·16대 국회의원
1990년~(현) 현대하이 이사장
1993년~(현) 대한축구협회장
1994년~(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1998년~(현)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2000~2002년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2001년~(현)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이사장
2001년~(현)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재단 이사
2002년 제16대 대통령후보

사찰문화재 관리방안 마련

1. 공직사회, 군부대와 같은 종교의 엄정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도 종교편향적 사례가 존재한다는 불교계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정치적 이용을 막고, 아울러 종교계가 정치현실을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정치불신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교문화 관련 예산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교문화의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학계와 관계, 그리고 민간 전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부의 정보화 예산은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3차원 입체영상 등을 응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관련 예산과 불교문화 관련 정보화지원사업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과 논의해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4. 불교관련 소재는 문화 콘텐츠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차별성을 담보해 독창적인 창작영역을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5.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61%인데 반해 국고 지원은 고작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대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부와 불교계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사찰 문화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조계사 일대를 불교문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무엇보다 조계사의 문화지구 선정에는 불교계의 입장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불교계의 반대의견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해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과 환경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 시 사찰의 수행환경 및 문화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적 계도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치적인 문제에 얽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적인 문제와 종교계의 입장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0. 각자의 종교가 갖고 있는 철학을 존중하는 가운데 종교문제를 다루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개발 · 환경문제 조화롭게 병행 유도

불교 문화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1941년 경남 신청 출생
1967년 대한일보기자
1969년 서울대학교 졸업
1988~94년 노동운동 투신, 언론노련 초대, 2대, 3대 위원장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1994년 우리농업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1995~9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1997년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1997년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
1999년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창원(을) 국회의원 후보
2000년~(현) 민주노동당 대표
2002년 민주노동당 제16대 대통령 후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반대

1. 민주노동당은 모든 사람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사회에서 개인의 종교활동을 극대화하고, 더불어 모든 종교 또한 어떠한 권력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의 문화예산은 공공문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문화로서의 불교문화 보존과 보호를 위해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보호와 보존의 차원에서 불교문화에 대해 특별한 배려보다 오히려 서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개발에 우선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미 우리나라 종교계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종교는 독립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불교계에 특별히 정보화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과 실행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역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 개발에 따른 관리, 유지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불교문화자는 대부분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관리 및 보수는 환경보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현 정부의 개발 중심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환경보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재의 보존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6. 적극 찬성합니다. 인사동이 지정된 것은 조계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북한산은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허파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산 관통도로 개설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고속철 또한 같은 입장이며, 편리함을 이유로 숲이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후세대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눈이 멀어 우리의 생명과 생활의 안위를 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8. 모든 종교활동이 한 개인의 행복이나 특정 종파의 안위를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계의 대사회 활동은 종교 역할의 필요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9. 정부는 대중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눈치를 살피며 달라이 라마 방한을 거부한 것은 또 다른 사대주의적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당입니다. 마땅히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10. 종교간의 갈등은 각 종교의 이기와 권력독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모든 종교는 모두 공평하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를 억압하고 비난하는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대중의 안식처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 문화재 고려, 개발위주 정책 재고

달라이라마 방한 거부는 사대주의 외교

역대 불교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대 대선에서 제시된 불교계 공약도 마찬가지다. 선거 전에는 '불심'을 끌어안기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었다.

먼저 97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을 보자. 당시 김대중 후보는 모두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켜진 것은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국립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지원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사찰환경 종합대책 마련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두 항목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불교관련법의 제 개정 추진 △종교편향 없는 종교정책 실현 △문화재 보존 △불교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지원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개국 지원 △남북 불교교류의 지원 확대 등 6개 공약사항은 다소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불교관련법을 제 개정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해놓고도 법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 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을 개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편향적 종교정책 배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군승인원 확충 방안 마련 △불교문화유산 보호 · 육성 지원 등의 불교계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외에 다른 공약사항에 대한 책임성 있는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신성한 공약'을 '부도수표'로 만든 것은 92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는 △불교방송의 지방방송망 설립 허가 △사찰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관련 법규 중 불합리한 조항 개정 또는 폐지 △경부고속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통과노선 변경 등 7개항을 불교계에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불교방송 지방망 허가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약사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불교계로서는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던 전통사찰 보존법 및 사찰 토지초과이득세 및 종합토지세와 관련한 공약을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기처분함으로써 불교계의 집중비난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역시 △사찰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 개선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 또는 폐지 △군종정책의 불평등 시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말 그대로 '空約'에 그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 10건중 대장경 한글화 등 2건 이행

김영삼 대통령 7건중 불교방송지방망 확충만 해결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표를 모으기 위한 '선심성 구호'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또 다시 올해 대선에서 제시될 공약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방관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각오다. 조계종은 최근 총무원의 실무자들로 '대정부 정책개발팀'을 구성하고, 대선 후보들의 대 불교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어떤 사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또한 지켜지지 않는 공약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공약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2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1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불교교양대학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해 창립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1회 연합회 포교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포교사고시 응시대상:**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6개월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시험일시: 2002년 12월 8일(일)오후1시~오후5시(필기시험 및 면접)**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02년 10월 21일(월)~11월 2일(토)
◆ **응시장소:** 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종로구 안국동)
◆ **포교사 고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2매(반명함판)
- 응시료 5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연합회)

◆**접수방법:** 학교별 일괄접수
◆**전형유형:** 서류전형→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 연수 및 품수
◆**합격자발표:** 2003년 1월 10일
◆**문 의:** 연합회사무국 02-734-9595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공동대표 한정섭법사(한국불교통신대학장) 정대은스님(해동불교대학장)
김재일법사(동산불교대학장) 안경우법사(경북불교대학장)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 기 총 회 공 고

해인동문스님들께 알립니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에서는 불기 2546년도(2002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꼭 참석하시어 동문회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정기총회 개최일시 : 불기 2546년 (2002년) 10월 24일 목요일
- 음력 9월 19일 오후 1시
2. 장 소 : 해인사 보경당
3. 안 건 : 1) 회장선출 및 임원선출 2) 감사 및 경과보고
3) 해인승가상 시상 및 장학금 전달식
4)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5) 기 타

※ 문의 :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02)720-8113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회 장 세 민 합장

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Ⅳ

사찰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지역 특성에 맞춰 수행 복지 교육 문화 사찰로

사찰이 가까워졌다. 이제 춤과 음악 등 웬만한 볼거리는 굳이 다른 곳을 찾지 않아도 된다. 원하면 산사 풍경을 벗 삼아 주말을 마음 편히 쉴 수도 있다. 자연을 배우고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며 텃밭을 일굴 수도 있다. 사찰은 이제 공연장이요, 휴식처요, 주말농장이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달라진 것은 이뿐만 아니다. 상당수의 사찰들이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각자의 개성에 한껏 색칠을 하고 있다. 어떤 사찰은 한 달 내내 수행에 몰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한문 학당이 되는가 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곳도 있다. 또 지역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지역민의 복지에 발 벗고 나서는 곳도 적지 않다.

사찰들이 이렇게 전통과 지역의 특색에 맞춰 특성화되고 일반에 친숙해지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하다. 올바른 여가문화 선도는 물론 국민 정서 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사찰에 가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고, 바로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여유'를 찾는다. 절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와서는 다양한 여가와 보람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절'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은 이제 법회를 보고 기도를 하는 고전적인 개념의 '절'이 아니라 생활의 친숙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 변화의 현장을 찾아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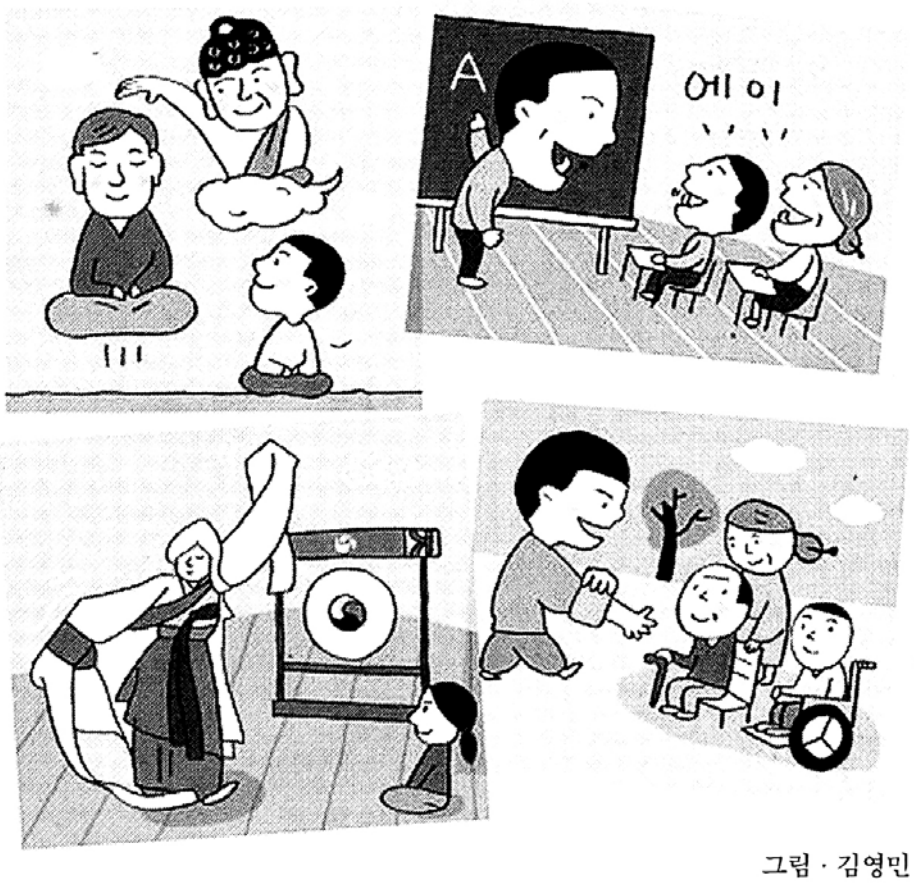


그림 · 김영민

체계적 수행위한 수련원 속속 개설
문화체험 인기…전통 체화하는 곳

수행 최근 3~4년간 불자들의 수행열풍이 이어지면서 참선 염불 독경 등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전문 수행도량이 늘고 있다. 기존 사찰들도 수행원과 선방 등을 잇달아 개원, 불자들의 수행패턴이 기도위주에서 참선 등 수행위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자상한 지도하에 참선수행을 할 수 있으며, 전문수련원을 찾아, 근기에 따라 여래선 화두선 등 다양한 수행법을 배워 수행에 몰두할 수 있다.

수행전문사찰로 개원한 서울 금강선원, 강원도 홍천 '선문장'과 경기 광주 유마정사, 남양주 봉인사 전문수련원은 수백명의 불자들이 자유롭게 수행과 경전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곳이다. 전문수련원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수행을 배우고 몰두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자들의 수행방법의 변화는 도심사찰인 조계사 봉은사 길상사 등 기존사찰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사찰에서는 신도들의 욕구가 전문 수행위주로 변해감에 따라 '열린 시민선방'을 운영, 불자들의 수행의지를 북돋고 있다. 특히 조계사는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시민선방 간경원 염불원 등 총림성격의 3원 체제를 갖춘 전문 수행원을 개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촌 보림사, 광주 광륵사 등은 직장인들이 아침과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 생활속에서 틈틈이 정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다.

교육 사찰들이 포교활동뿐 아니라 교육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찰홍보와 포교, 지역주민과의 유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쓰레기 제로 운동, 북한동포 돕기 운동 등으로 유명한 정토회(대표 유수)는 '정토행자'들에 대한 환경교육, 통일교육으로 생활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산하 단체인 한국불교환경교육원과 연계해 '환경공청회' 등을 열어 이뤄지고, 통일교육은 국내외의 통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청, 강의를 듣고 이어 '통일대화마당'에서는 참가자 토론이 진행된다.

국제화 시대에 필수로 요구되는 영어는 포교활동의 좋은 도구다. 이 점에 착안,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는 신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영어강좌를 열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열리는 강좌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제선원에 있는 스님들이 직접 강의해 부모님들에게 호응이 높다.

못배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열리는 한글학교와 영어 및 수학 교육도 고통받는 중생구제라는 측면에서 포교의 한 모델이다.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의 경우 종교와 관계없이 한글학교와 영어 및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80대 사이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들은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해 종교간 이해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서울 백련사와 해남 미황사등이 실시하는 한문학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문교육은 물론 예절교육까지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어린시절에 자연스럽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재나 기도 중심의 소극적 포교에서 교육을 개개체로 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문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그런 만큼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불교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시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서각 공예반, 볼화 그리기반, 사진반, 다도반, 꽃꽂이반, 연구답사반 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실시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양산 통도사는 성보박물관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직접적인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 포교원에 문화관을 설립하고 어머니합창단, 국악단, 사물놀이반, 우바이 무용단 운영, '주제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등 외국인과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현재 회원 1천2백여명인 사물놀이패. 이 사물놀이패는 천안지역 멍물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를 견인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회원중 종교비중은 불교 70% 일반인과 타종교인이 30%이다.

자원봉사단 증가 '찾아가 나누는 사찰'
호스피스 · 치매요양원 등 복지 전문화

복지 사찰이 지역 특색과 사찰의 전통에 맞춘 불교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면서 '찾아가 나누는 사찰로' 탈바꿈 하고 있다. 사찰들의 자원봉사단 창립이 늘면서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영역을 넘어 호스피스, 수지침, 발반사요법, 독거노인 돌보기 등 전문영역에까지 관심을 돌리는 등 사찰이 명실공히 복지도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천태종과 고양시 불교사원연합회는 올 4월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창립했고, 부산 범어사와 울산 정토사, 충북 청원 정토마을 등은 이미 호스피스 간병활동으로 임종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매만져 준다.

또 서울 삼천사는 노인, 서울 광림사는 장애인, 부산 내원정사는 아동 · 청소년, 부천 석왕사는 사회체육 등 복지활동이 영역별로 세분화되며 전문복지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노인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서울 삼천사는 99년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 3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노인복지관으로 선정되고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치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도량인 서울 광림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국내 처음으로 민간에서 실시했으며, 올 해 9월 자원봉사자를 위한 휴대용 수화집 '수화사랑 친구사랑'을 발간, 장애인 복지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월드컵대표선수단에 이어 국가대표 전종목선수들이 '수신토종오가피'를 먹고 있습니다. (주)수신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었다.
- 동아일보 9월 25일자 보도 -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 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자료무료신청 (02)446-4422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3. 누 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 비 (혼방)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5. 법 복 (회색, 밤색)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 가사 주문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주말엔 사찰로…사찰로…

Hyundae Bulkyo 8th 8 창간 8주년 특별기획 Ⅳ

자연속 문화공간 · 농장 · 쉼터

'새벽숲길' '천년의 기다림' 수행 · 휴식 함께
산사음악회 · 전시회 도심선 맛볼 수 없는 감동
절에서 텃밭제공 가족과 재밌는 주말 보내기

숲을 배경으로 산사의 대웅전에 비춰진 아름다운 조명에 국악과 가요, 잔잔한 클래식 등의 음악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런 모습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사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찰의 변화는 2~3년 전부터 시작됐다.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찰은 자연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찰은 더 이상 불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농장이요 공연장이요 박물관이고 쉼터다.

번잡함으로 가득한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사찰로 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사찰은 문화생활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의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고 더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여유로운 휴가와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 속의 문화 공간인 사찰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에서 열린 심곡암 산사음악회.

주제가 있는 수련회 5일 새벽 6시, 20여명의 사람들이 해남 대둔사 숲길을 거닌다. 목포 삼호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이정근 씨(38).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휴일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새벽숲길'에 참가한 이 씨 가족은 두륜산 곳곳을 거닐며 한껏 자연과 호흡했다.

선 등 각종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를 유익하게 보내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사찰의 주제있는 수련회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둔사 '새벽숲길'은 꽤나 인기 있는 수련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유로워진 직장인과 일반인들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매월 두차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데다가 자연과 어울어진 휴식을 맛볼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백두대간의 정기를 함께 누리고자 한다면 오대산 월정사의 '천년의 기다림'만한 프로그램도 없다. 적멸보궁과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특성을 최대한 살린 '천년의 기다림'은 가족이 함께 자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남양주 보광사는 숲과 태극권을 주제로 수련회를 열고 있다. 폭포에서 명상하기, 송하방담(松下放談), 명상하며 걷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 외에도 보성 대원사의 티베트불교를 겸들인 수련회, 공주 영평사의 구절초와 함께 하는 수련회, 창원 서원사의 낙동강변을 거니는 수련회, 영천 은해사의 팔공산 달빛 산행 수련회, 서울 길상사의 선 수련회 등 지역과 사찰의 특성을 살린 수련회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취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산사음악회 사찰에서 여는 각종 문화공연도 사람들의 발길을 사찰로 끌어들이고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향연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산사음악회는 사찰의 자연환경과 음악이 어우러져 대중적 인기를 모아, 음악회를 여는 사찰이 점차 늘고 있다. 춤과 음악이 있는 산사만 일부러 찾아다니는 '마니아'들도 생겨났다.

광주 증심사는 생명나눔과 환경보호, 종교인의 각성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매월 음력 보름 '풍경소리'라는 산사음악회를 열고 있다. 음악회가 시작되면 칠흑같은 어둠을 가르며 무등산으로 퍼져 나가는 선율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하다.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봉화 청량사에서 산사음악회로 알찬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실제로 지역주민과 신도들의 반응은 뜨겁다.

전시회를 겸한 산사음악회도 있다. 봄 꽃축제와 단풍축제를 매년 두차례 열고 있는 북한산 심곡암은 선서화 전시회와 음악회를 함께 마련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해남 미황사는 남도 농요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 미황사 군고(群鼓) 시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땅끝마을 잔치를 벌인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공연이 보고 싶다면 음악회에 앞서 열리는 괘불제와 탁본전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밖에 진천 보탑사와 서울 도선사, 서울 진관사, 공주 갑사, 광주 무각사, 합천 해인사 등도 음악회를 열어 일반인들의 발걸음을 산사로 이끌고 있다.

주말농장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공연과는 달리 주말농장은 자신이 직접 키우고 수확하는 재미가 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일부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가족과 함께 좀 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주말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불교의 친환경사상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찰의 주말농장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청도에 1,500여평의 농장을 마련한 대구 관음사는 120여가족에게 텃밭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정준철 씨(42) 가족은 5평 남짓한 밭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와 상추를 보여주며 "정성스레 밭을 일구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한 주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정씨 가족에게 농장은 주말여가를 유익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아이들의 생태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정토회 주말농장은 3,000평에 달하는 도심 속의 생태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주말이면 농작물을 가꾸려는 가족들이 밭을 일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연구실험장, 야생화 관찰학습장도 갖추고 있어 교육과 체험학습의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의 파주 생태주말농장은 가구당 10평의 토지를 분양하며, 농작물 재배 경험이 없는 이들을 위해 공동경작도 하고 있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남원 실상사는 사찰의 고전적인 기능을 넘어 사회재교육과 대안학교의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특별취재팀
김원우 한명우 박봉영 남동우 김철우 기자

생산불교 지향…사찰경제 새 모델

청운사 산학연구 통해 백련茶 제조 · 판매
목우암 차밭 2천5백평 개간…농협과 연계
실상사 귀농학교 · 생협 등 지역공동체 구성

일부 사찰들이 수행전법도량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생협운영, 연꽃 및 차 재배 등 생산불교를 지향하면서 사찰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김제 청운사는 연꽃 중 향과 영양, 맛, 약효가 뛰어난 백련을 차로 재배, 판매를 하고 있다. 원광대 내에 위치한 '다련원'에서 산학 연구를 통해 3년 전 개발한 백련차, 백련정차, 백련잎차와 연잎, 연자, 연근 등의 판매를 통해 청운사는 사찰 재원의 상당부분을 조달하고 있다.

목포 목우암에서는 2001년 2천5백평을 개간해 차를 재배하고 있다. 내년 쯤 1만여평을 더 개간할 예정인 금산 스님은 찻잎을 무안군 농협등과 연계, 판매해 재정자립을 꾀하고 있다.

각 단위 사찰에서 운영중인 생협도 바른 먹거리 제공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남원 실상사의 경우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서 귀농학교, 생협, 농장공동체 등과 연계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상사는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에 위치한 농장공동체에 불교적 이론 토대를 제공하고, 농장공동체에서 나온 무공해 생산물들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불교생협이 도농간의 연결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수원포교당, 서울 봉은사, 능인선원, 부천 석왕사에서도 인드라망의 불교생협과 연계해 생협을 운영하고 있다. 생협은 사찰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법회나 합창단 등의 활동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찰은 생협 활동에 정신적 ·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일 · 수행 하나로 자립기반 이뤄야"

인터뷰 김제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



"신도에게 만 의존하는 사찰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불교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원광대 바이오벤처보육센터에 입주한 뒤 산학 연구를 통해 개발한 백련차, 백련정차, 백련잎차와 연자 연근 등 연(蓮)을 이용한 각종 차와 보양식품을 2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도원스님(김제 청운사 주지 · 사진)은 "과거 사찰에서 수행과 일을 하나로 하여 생산불교를 지향했던 것은 이윤추구로서가 아니라 사찰과 신도, 사회를 연결하는 바람직한 순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상생의 개념을 사찰에서 도입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으로 사찰도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

지적한 도원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적 다양성과 중생과 고락을 같이하며 정도를 일궜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다면 사찰경제의 자립과 포교의 새로운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찰간 네트워크 구성땐 다양한 사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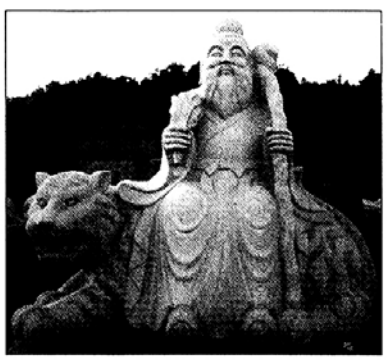
"사찰과 사찰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도원 스님은 사원경제가 대승불교의 시작이었던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속에 담긴 경제의 의미를 시대상황에 맞게 창출하고, 나아가 사회에 회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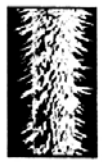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Ⅳ

대만 정사정사·자제공덕회를 가다

보시금 사회 회향 '제빈구난' 주력
(濟貧救難)

정사정사(靜思精舍)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 지난 1966년 4월 '자비희사'의 정신으로 증엄 스님이 설립한 불교자선단체다. 현지 언론은 기자보다 빠른 기동력으로 재난 현장을 찾는 이 단체를 '푸른 옷의 천사들'이라고 부른다. 자제공덕회는 자선단체의 대명사로 통할 만큼 대만인에게 신임이 높다. 이같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단체의 설립이념을 뒷받침하는 화련시 정사정사와 자제병원, 자제대학, 그리고 대북시 대애T.V 방송국을 9월 29~30일 이틀간 찾았다.



◇화련시에 소재한 자제공덕회의 주건물인 '정사당(靜思堂)'. 국제회의장, 전시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대애T.V의 한 직원이 자제공덕회 모금활동의 상징인 대나무 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있다.

모든 것 자급자족…농기구 스님들 필수품
청정하고 근면한 승가모습 사회의 귀감

정사정사 **자제공덕회**

대나무 저금통 활용…사용내역 매월 공개
구난·교육·언론·의료·문화 등 광범 지원

◈정사정사

9월 29일 대만 화련시 정사정사. 볏짚 모자를 눌러 쓴 채 외발수레를 끄는 스님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고무장화, 호미와 곡괭이 등의 농기구는 이곳 스님들의 필수품이다. 후원 한 켠에 자리 잡은 초 공장. 연신 거푸집에서 찍혀져 나오는 초를 박스에 담는 스님들의 손이 바쁘다. 일흔 살이 다된 노스님부터 근주녀(近住女 : 출가전의 女행자)까지 정사정사 대중들은 21가지 소임을 맡아가며 사찰살림을 스스로 꾸려나간다. '一日不作, 一日不食'. 지난 64년 보명사에서부터 증엄 스님이 줄곧 실천해 온 정사정사의 자급자족 전통이다. 심지어 사찰에 들어오는 보시금 마저 정사정사는 사회 자선사업에 회향한다. 보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사찰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청정하고 부지런한 스님들의 모습은 자제공덕회 사회봉사 활동의 본보기를 제공한다.

문병도(佛前問病圖)'가 먼저 눈에 띄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병자를 위문하는 모습이 새겨진 타일벽화. 72년 빈민무료진료소를 설치로 의료사업을 시작한 자제공덕회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86년 화련시에 병상 8백 개 규모로 개원한 자제종합병원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자제공덕회는 남화련 옥리분원, 태동분원 등 현재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동부산악 지역에만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자제공덕회는 이 지역 35만 명의 의료수요를 소화해 내고 있다.

⊙교육사업=자제대학 의학부의 '계용의식(戒用儀式)', 시신기증자의 뜻을 기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과과정이다. 해부실습을 하기 전에 학생들은 유가족을 방문한다. 학생들은 고인의 행적을 조사해 프로필을 직접 작성한 뒤, 스님 · 교수 · 학생 등이 참여하는 계명의식을 치른다. 이 같은 생명존중 사상은 자제공덕회가 운영하는 교육사업 전반에 투영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제공덕회는 94년 개교한 자제의학원을 2000년에 인문사회, 생명과학, 교육, 의학 등 4개 단과대학으로 확대해 4년대 정규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인문학과 생명학 중심 대학으로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국경을 초월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1999년 북한을 방문한 자제위원들이 농민들과 함께 구호물품을 차에 싣고 있다.

◈자제공덕회

자 · 비 · 희 · 사(慈悲喜捨). 자제공덕회가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사회사업의 실천이념이다. 자는 자선과 국제구호, 비는 의료와 골수기증, 희는 문화와 지역사회사업, 사는 교육과 환경보전사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자선사업=1963년 불교극난극복자제공덕회 설립으로 시작됐다. 현재 31개국에 132개 지회를 두고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제공덕회는 80년 재단법인 불교자제자선사업기금회로 운영형태를 전환한 이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99년 9.21 대만 대지진 때, 사랑의 가옥 2만 가구를 건립 기증하는 등 국내 자선활동은 물론, 89년에 최초로 외국 자제분원인 미국지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국제구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98년에는 북한 통일기업과 합작해 북한 수재민 돕기에 70만 개의 동계 의류와 식료품, 우유 등을 기증했다.

⊙의료사업=화련시 자제종합병원 로비를 찾았을 때 '불타

⊙문화사업=자제공덕회는 98년 1월 대북, 화련 등 5개 지역에 위성방송,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갖춘 대애(大愛)T.V를 개국했다. 정치경제 사건은 지양하고 철저히 '사람 사는 모습'을 편성지침으로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미담사례를 밀착 취재하는 '대애극장(大愛劇場)'이라는 프로그램은 대만 내 시청율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 격주간 신문 〈자제도여(慈濟道侶)〉나 중문 · 영문 · 일문 등 3개 국어로 발간하는 월간 잡지 〈자제〉 등에도 사심없이 사랑을 베푼다는 대애(大愛) 사상으로 편집된다.

◈성공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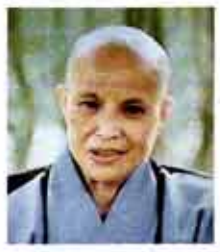
'대나무 저금통'. 자제공덕회 전신인 불교극난극복자제공덕회 회원 30명이 매일 5원씩을 모았던 모금함이다. '한 사람의 손이 천 명의 손을 움직인다(一手動時千動)'는 믿음, 설립 36년 만에 자선, 의료 등의 8대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자제공덕회의 원동력이다.

자제공덕회의 성공비결은 재정의 독립 운영, 투명한 후원금 관리, 자제위원의 적극적인 모금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정사정사의 스님들은 수공업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공덕회 자제위원들은 모금활동과 자원봉사로 자제공덕회를 운영한다. 승가의 재정자립과 재가의 사회활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후원금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전 세계 400만 후원회원에게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대만=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비희사 사회적으로 실천"

인터뷰 자제공덕회 회주 증엄스님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불교자선단체일 뿐입니다."

곧바로 자제공덕회를 설립했어요."

'정화인심(淨化人心: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킨다)'로 집약되는 스님의 자제사상은 인간불교를 제창한 스승 인순(印順) 스님의 정신에서 비롯됐다. 1963년 인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증엄 스님은 '증생 500명, 관세음보살론'으로 자제공덕회의 정신을 설명했다.

"500명 중생의 손이 모이면 한분의 천수(千手) 관세음보살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전에 파묻힌 관세음보살님을 중생의 모습으로 살려내자

3복사상으로 기복신앙 극복해야

9월 29일 화련 정사정사 관음전에서 만난 증엄 스님(사진). 전 세계 400백만 명의 회원과 5개 병원, 종합대학, 방송국 등 산하시설 직원 수만 2천여 명의 대규모 조직을 갖춘 자제공덕회의 설립이념을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66년, 원주민 고산족의 임산부가 난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8천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 병원을 짓겠다는 원을 세웠지요. 그리고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들게 되면 하나의 법회가 되고 그 자체가 도량이 돼, 중생 하나 하나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스님은 재가불자들에게 '3복(三福)' 사상을 강조했다. '자기의 복을 알고(知福), 복을 아끼며(惜福), 스스로 복을 짓는다(作福)'는 3복사상을 통해 그저 복 받기만을 원하는 기복신앙을 자연스럽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 포교사…8대 사업에 참여

자제위원이란

자제공덕회의 인적구성은 자제위원, 운송과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자성대원, 일반 후원회원, 자원봉사자인 지공(志工) 등으로 되어 있다. 일종의 재가포교사인 자제위원은 모금활동과 자제공덕회 회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덕회 초창기 30명으로 출발했던 자제위원은 현재 전 세계에서 1만 5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제위원의 임무는 '교부이생(教富利生)'과 '제빈구난(濟貧救難)',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제위원들은 매월 음력 20일을 '구제금발방일(救濟金發放日)'로 정해 무료의료진료, 생활보조금 지원 등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며 자제공덕회 사업 전 영역에 골고루 참여한다.

자제위원의 선발과정은 엄격하다. 다회(茶會)를 열거나 불자가정을 방문해 일일이 모금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포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청렴성을 중요 자질로 따지고 있다. 1년에 1,000여명이 배출되는 자제위원은

30명으로 출발, 132개국에 1만5천명
활동경비 스스로…사명감·청렴성 중시

사회봉사 활동과 자제정신의 역사, 연원, 현재 사업 등을 2년간 교과과정을 거쳐 자제위원으로 탄생된다.

활동경비의 자부담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자제위원의 가장 큰 특징은 대표직이 없다는 점. 사회적 지위,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특별히 회장 또는 위원장을 두지 않고 있다.

개교 20주년 기념

범주스님 초대 선화전

삼보를 향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으로 자아완성과 불국정토 구현에 혼신을 다하여 지난 20년 동안 매진하였습니다.

항상 묵묵히 성원해 주신 대덕스님, 교계지도자, 등문 및 불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교 20주년 기념 **범주스님 초대 선화전**을 개최하오니 왕림하시어 격려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6(2002)년 10월

전시 축하 퍼포먼스

선묵 범주스님(달마선원 선문화예술원)
조각 박찬수 관장(목아불교박물관)

동문합동 체육대회

1. 일 시 : 2002년 10월 20일(일) 오전 9시
2. 장 소 : 양정동 동의공업대 운동장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학 장 이 하 우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4-5층
전화 051)867-9944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토피,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修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적성 용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의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問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조계사·부산 관음사·마산 정법사 등

직장단체에 거점사찰 역할

법회장소·법사·재정 지원 … 신행상담도

광주 무각사 광주국세청·서부경찰서·서구청불자회 등
백제불교회관 대전시청·6개구청·정부청사반야회 등
서울 봉은사 세무사불자회·국세청보리회·해병불자회

부산본부세관 관우불교회 총무 신오룡(46) 씨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당리동 관음사 주지 지현스님에게 자문을 구한다. 법회 장소와 법문, 신행상담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 관우불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부산간호사불자회와 교사불자회 자립회, 사하구청 법우회도 관음사로부터 법회 장소와 법사 지원, 일부 재정적인 후원까지 받고 있어, 관음사는 부산지역 직장불자들의 없어서는 안될 거점사찰이다.

직장불교단체는 전국적으로 400여 곳. 이들 중 자체법당을 갖고 있는 단체는 30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단체들은 인근 사찰이나 회의실 등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찰에서 법회를 열고 있는 단체들이라 하더라도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무각사, 향림사, 창원 성주사, 서울 봉은사, 조계사, 대전 백제불교회관, 고성 운흥사, 마산 정법사 등은 직장단체에게 도량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후원도 아끼지 않아 직장단체들의 '귀의처'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는 광주지방국세청과 서부경찰서, 서구청 불자회, 광주 운전기사불자회, 광주불교산악회가 원찰로 삼고 신행활동을 펼치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올해 말 광주불교회관이 완공되면 사무실도 내어줄 계획이다.

대전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은 지난해 1월 개원 이후 직장단체는 물론 20여 재가신행단체들이 적(籍)을 두고 있을 만큼 대전지역 재가불자들의 거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대전시청과 6개 구청 불자회, 대전정부청사 반야회, 서대전세무소 불자회, 대전불교언론인회, 대전교사불자회, 철도청법우회가 매월 1차례 이상 법회를 열고 있다. 백제불교회관 소속 포교사들이 이들 단체들의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 외곽지역에 위치한 성주사(주지 원정)의 경우 대우종합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 법우회와 경남도청 불자회, 창원시청 불자회, 두산중공업 법우회, 창원법조불자모임 등이 신행활동의 중심도량으로 삼고 있다. 성주사는 법사, 차량지원과 일부 재정 후원을 하는 대신 직장불자들의 운력을 받고 있어 상조관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세무사불자회와 국세청 보리회, 한전본사반야회, 해병대불자회, 선재마을의료회 등에 법회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강남경찰서와 영등포교도소 법회에 법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작은 보시 큰 자비운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의 일부를 직장단체에도 후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성 운흥사, 광주 향림사, 서울 조계사, 마산 정법사 등이 직장단체의 거점사찰 역할을 하고 있다.

백제불교회관장 장곡스님은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려는 직장불자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은 사찰의 고유기능 중 하나"라며 "사찰이 직장불자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서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바른 신행활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은평구청 불심회

96년 9월 창립해 올해로 6살이 된 불심회는 1백명이 넘는 법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보면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는 법우들의 극성 같은 홍보 덕택입니다. 구청에 새로 전근해 온 직원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어 불교책자를 전달하는가 하면, 좋은 경구나 부처님 말씀을 발췌해 전자메일로 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전자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불심회와 공무원불자연합회 소식을 알려 왔지요. 이 정도면 불자들고, 매월 은평구불교사암연합회장인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의 강의로 기초의법을 거쳐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사암연합회 후원으로 호국영령과 구민화합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와 참회대법회도 매년 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심회 법우들은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전령사들입니다.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



◇은평구청 불심회원들이 은평사암연합회장 성운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는 모습.

봉사·친절 베푸는 공무원 불자되기 발원

관내 사찰과 유대 … 80여 사암 순회법회

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길영 회장님(재무국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탄탄한 조직력은 남다른 데가 있어 저마다의 원찰이 있으면서도 불심회 활동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총무, 포교, 봉사, 상조부를 두고 부장과 2~3명의 간사를 중심으로 회원들은 부별 활동을 자율적으로 펼치고 있지요. 또한 법우들 한사람 한사람의 돈독한 신심이 큰 원력을 이뤄 불심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조석으로 108배와 금강경을 독송하는 회원들도 10여명에 이릅니다.

불심회는 은평구 관내 사찰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80여 사암을 돌아가며 법회를 열고 있

급 등 법우들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챙기는 모습은 자못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면 서울시청 앞에 멋들어진 봉축탑이 세워지고 있지요? 은평구청 앞 광장에도 법우들과 구청 직원들의 작은 소망을 담은 연등을 층층이 매달아 봉축탑을 세웁니다. 봉축분위기를 절로 느낄 수 있다고 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불심회는 법회 때마다 부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인사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공무원불자가 되어야 겠지요.

▩김명락 포교부장(보건행정과)

불교산악인련 창립 5주년 기념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 재추진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 27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남북통일 기원 및 총재 ○·취임법회를 열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은 백두대간 영봉을 종주, 산상에서 남북통일 기원연등을 밝히고 법회를 여는 기원행사로, 단위 산악회가 지역별로 참여해 영봉을 오른다. 창립 1주년이던 98년 재정 등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은 김정길 신임총재 취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김대원 사무국장은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산악인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대장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새벽예불·108배 정진

소보원 법우회, 동화사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신동구)는 5~6일 대구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를 순례했다. 지난 4월 창립 이후 첫 성지순례인 이날 순례에 참가한 20여 회원 및 가족들은 동화사 새벽예불과 갓바위에서 108배 정진을 갖는 등 불교의식을 체험했다.



◇성북 승무사무소 법우회 회원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5일 성남 자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사랑나눔 경로잔치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우락)는 5일 성남 자광원에서 '고객사랑 철도사랑 사랑나눔 한마당' 경로잔치 및 봉사활동을 가졌다.

회원과 가족 30여명은 방 청소와 주변 정리 등 하루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 한편 회원들로 구성된 풍물패와 국악인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박우락 법우회장은 "매년 실시해 온 성지순례를 실천하는 불자상 확립을 위해 올해에는 봉사활동으로 전환했는데, 회원들이 더 뿌듯하게 회향해 의미가 깊었다"면서 "매년 복지시설을 찾아 일일봉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서울경찰청불교회 성지순례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정인식)는 20일 단양 구인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회원과 가족 30여명이 동참하는 이번 순례에서는 구인사 참배에 이어 온달동굴과 영월 청냉포, 단종릉을 둘러본다.

구로승무소 법우회 낙산사 순례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재)는 16일 양양 낙산사와 홍련암을 찾아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순례는 낙산사 총무 적산스님의 법문과 사찰 안내, 홍련암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단체장 동정



호국연무사서 위문공연

김활선 대한불자가수회장은 20일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불자가수 10여명을 초청, 군장병 위문공연을 갖는다.



창립 준비 발기인 모임

이진우 광주서구청 공무원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은 18일 서구청 인근 음식점에서 창립을 위한 발기인모임을 갖는다.



광주국세청불자회 3대 회장에

이준일 북광주세무서 조사과장은 2일 무각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 불자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초심자 위한 기초교리 강좌

김영천 은평경찰서 불심회장은 10일 서울 진관외동 백화사에서 주지 일법스님을 초청,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 강좌를 열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삶의 거울인 죽음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우리출판사의 죽음에 대한 책!!!!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 wonbook@chollian.net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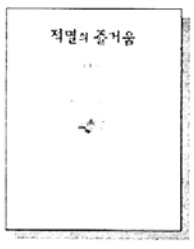
맹난자 지음 / 신국판 / 296쪽 / 값 9,000원

역사 속 인물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옥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을 '야 참 좋다'며 삶에 대한 한없는 만족감을 표했던 철학자 칸트하며,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몸으로써 환구(活句)를 보여준 옛 선사들의 이야기까지 참으로 눈을 떼기 어려운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참된 철학자는 결코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철학자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한 이는 스피노자였다
그러고 보면 죽음을 탐구하러 나가
내가 만나게 된 것도 삶이었다
그러니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적멸의 즐거움



정휴스님 지음 / 신국변형판 / 240쪽 / 값 7,000원

고승들의 즐거운 죽음 이야기!

'시신을 벌레들에게 나누어주고 부도탑도 만들지 말라'는 청활스님, '열반에 들면 시신을 숲 속에 두고 들불에 타도록 하라'고 말한 혜안스님 등 충격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여러 선사들의 입적 과정을 그렸다. 또 물구나무서서 거꾸로 입적하거나 뜰 앞을 태연히 걷다가 오늘 떠나겠다고 말하고 극락이 눈앞에 보이지만 자신은 지옥으로 가겠다는 유언을 남긴 여러 선사들의 임종게 등도 소개하였다.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본문 중에서-

죽어서 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정휴스님 엮음 / 신사륙판 / 132쪽 / 값 5,000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선사들의 깨침의 노래!

중국의 선사(禪師)와 우리 나라 역대 선사들이 죽음을 맞아 토해낸 열반송을 정휴스님이 짧은 시 형식으로 풀이하였다. 나고 죽는 일에 초연해지는 것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정진해서일까. 선사들은 죽음을 사랑하고 즐겼다. 죽음을 죽음이 아니게 하는 힘, 그것이 수행의 절정이라고 말한 스님의 글에서 불교사상의 정수 및 선(禪)의 진수를 느낄 것이다.

이 禪詩(임종게)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떠남의 언어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회귀의 영혼의 모음이 있으며,
앉아서 열반하기가 싫어 서서 입적하는
해탈의 몸짓이 있으며, 걸다가 문득 명상에 잠겨
보리수 잎을 잡고 입적하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진리가 언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남긴 임종게 속에는 해탈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스님 엮음 / 신국판 / 232쪽 / 값 6,000원

죽음과 환생 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가르침!

티베트의 불교인들은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기 현장스님의 책은 잘 죽기 위한 가르침인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둘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둘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괴로워하였다."

-린포체-

일주문



대충 대종사 9주기 추모재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8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2대 종정을 지낸 대충 대종사 열반 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27일 백고좌 회향대법회
자성 동화사 주지는 27일 오전 10시 동화사에서 개산 1509주년 기념 및 백고좌 회향대법회를 봉행한다. 053)98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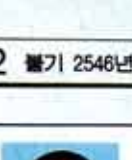
아미타불 괘불 점안식
일오 대승종 총무원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민회관에서 통일염원 아미타불 괘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부산 광주 등 전국순회 법회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전국 순회법회를 갖는다.



불교문화유적 답사
영조 광주불교교육원장은 27일 회원들과 부여 무량사, 보령 성주사지 등으로 제62차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떠난다.



21일 환경방생법회
회암 양평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은 21일 오후 1시 양평군청 앞 등에서 영산재 및 환경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산사의 별빛 한마당' 개최
수경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19~20일 북한산 망월사에서 자연체험 행사인 '산사의 별빛 한마당'을 연다. 02)720-1654



수재영기 천도위한 영산재
혜공 대구 관암사 주지는 13일 갓바위 주차장에서 수해로 목숨을 잃은 영가들의 합동천도와 국태민안을 위한 영산재를 개최했다.



'국민화해…' 주제 발표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회장은 8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국민화해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 주제로 발표했다.



후불탱화 점안법회 봉행
리선행 마음의 쉼터 회주는 27일 오후 2시 횡성 '마음의 쉼터 대웅전에서 개산 2주년 기념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선문화예술원 개원
범주 속리산 달마선원장은 13일 경북 상주 달마선원 내 1백평 규모의 일반인을 위한 선(禪)문화 센터 '선문화예술원'을 열었다.



'선과 정신분석' 주제 강의
도각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장은 21일 오후 6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선과 정신분석'을 주제로 강의 한다.



국기발전 기여 국민포장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3일,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혼의 법률적 문제들' 강좌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곽배희 소장을 초청 '이혼의 법률적 문제들' 강좌를 연다.



일본석학 초청 강연회 열어
조용길 동국대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장은 7일 일본 고마자와 대학 타카미 타이슈우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正道令과…' 출판기념회
권경술 새생각실천회장은 10일 서울 유네스코 회관 11층에서 〈正道令과 正道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창립 11돌 모범회원 등 표창
박석규 대광명인불자회장은 11일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모범회원에게는 표창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일본내 사명당유적지 답사
오재희 (새사명당기념사업회장은 23~27일 일본 대마도와 구주지역으로 제2회 사명당 유적지 답사를 떠난다. 02)6263-2050



국어운동 공로 표창패 받아
9일 제556돌 한글날을 맞아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사진 위)이 한글학회로부터 국어운동 공로 표창패를, 홍콩 불교대학 김광석 부교수(58)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도원 스님은 93년 삼광한글학교 설립, 김광석 부교수는 홍콩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공로가 인정돼 수상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시력 잃어가는 할머니

경로당 쪽방서 힘든 노년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김복녀 할머니(71 · 진관외동)의 블루스는 끝없이 이어진다. 음악도 없고 조명도 없는, 서울 진관외동 3평 짜리 쪽방에서 추는 춤이건만 잔뜩 신이 났다. 얼마 전부터는 눈마저 보이지 않게 됐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김 할머니의 고향은 경북 의성군 너럭바위골이다. 대동아 전쟁 징용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 첫 남편은 6 · 25 전쟁으로 떠나 보냈고, 두 번째 만난 남편마저 51살에 세상을 등져버려 혼자 몸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지만 미국생활 10년 만에 김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구수한 고향 땅 냄새를 맡고 싶었고 진저리치도록 시큼한 김치를 먹고 싶었던 할머니는 끝내 딸 가족을 남겨 두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국생활은 쉽지 않았다. 미국 생활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돌리자, 김 할머니는 끝내 외톨이가 됐다. 여기에 미국 사는 딸에게서도 연락이 끊겼다. '가게가 잘 안 된다. 일 하러 가야 한다'는 전화가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10년. 김할머니는 전국을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작년부터 김 할머니는 진관외동 경로

딸 따라 도미했다 귀국, 어려운 생활

명암만 식별 … 무료급식으로 끼니



◇하나 있는 딸과의 연락도 끊어진 김복녀 할머니는 경로당 구석 방 한 칸에 몸을 의지한 채 고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당 방 한 켠에 세 들어 산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일자리도 없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가족없는 노인에게 주는 생활비인 3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방세 12만원 내고 나면 18만원이 남는다. 따라서 하루 생활비는 오천원이 조금 넘는다. 인근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는 급식으로 점심 한끼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게 때운다.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산다고 김 할머니는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평생을 앓아왔던 당뇨병이 악화돼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간신히 환한 것과 어두운 것만 구분할 뿐이다. 김 할머니는 어두운 게 제일 싫다. 눈이 정말 안 보이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한 딸을 따라 도미(渡美)했던 10년 세월. 할머니는 말도 안 통하는 땅에서 손녀를 키우며 살아왔다.

할머니가 추는 블루스도 이때 배운 것이다. 말벗이라고 청얼대는 두 손녀뿐이기에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조금씩 배운 것이다. 할머니에게는 이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어엿한 가정도 있고 평생 따라다니면 배고픔도 없었기 때문에.

쪽방을 나서는데 문틈으로 할머니의 18번이 흘러나온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누나 … 봄날은 간다, 봄날은 정말 자알 가안다…."

후원계좌)주택은행 김복녀 461925-96-109483. 전화번호)02-359-0932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문화 대중화' 이끌 주체될 것"

6일 출범 통도사 신도회 장복만 회장



"불보종찰 통도사 불자들의 대의기구격인 신도회인 만큼 스님들과 신도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처님의 정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월 6일 공식 출범한 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장복만(60 · 양산대 재단이사장 · 사진) 회장은 스스로를 '앞만 보고 달려와 부처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정진과 포교를 위해 진력할 뜻을 피력했다. 양산대학교 재단이사장과, 동원문화장학재단 등 교육사업과 동원개발 대표이사 등 사회 활동으로 분주한 장회장은 "통도사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이날 출범한 통도사 신도회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활동을 벌여오던 포교국 산하 신행단체와 신도조직을 통합, 정식 출범한 것. 관음회, 지장회, 봉찬회를 비롯 포교국 산하의 14개 신행단체의 대표기구다.

"기존 신행단체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더불어 연대와 교류를 강화한다면 조직의 역량과 역할이 배가될 것"이라고 내다본 장회장은 "신도회가 사부대중의 힘을 결집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대사회적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승불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신행단체들과 연대 · 교류 강화

이를 위해 가정 먼저 추진한 것이 지회 조직 재정비. 장회장은 13일 양산지회, 울산지회, 부산지회, 서울지회의 조직을 재정비한 후 13일 임원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활동에 돌입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소외된 이들에 부처님 가르침을…"

자작 기초교리서 '연꽃' 보시 나선 박명숙 씨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모르는 부분은 사전을 뒤져 공부해 가면서 5년 만에 펴낸 책이 바로 〈연꽃〉입니다."

30년 넘게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관음회를 조직해 신행과 포교의 일선에서 활동해 온 박명숙 씨(63 · 사진). 최근 직접 쓴 기초교리서 〈연꽃〉을 들고, '불서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군법당과 구치소, 소년원, 양로원 등에 가보면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궁금증을 풀어줄만한 불서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연꽃〉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사성제, 팔정도 등 기초교리와 불교 경전, 절의 구조와 명칭, 승가, 수행의 계위 등으로 구성됐다. 박씨는 2천부를 찍어서 그동안 인연맺었던 군법당과 구치소, 양로원 등에 보냈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관문사 창건4돌 기념법회 봉행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가 6일 창건 4주년 기념 및 서울지부 창립 32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정산 감사원장, 춘광 관문사 주지, 박봉식 금강대학교 총장 등 3천여 명이 동참한 이날 춘광 스님은 "지역사회 이바지하는 도량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 · 중 · 고생 39명에 장학금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회장 이왕선)는 6일 초등생 9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0명 등 진안군 마령면 소재 모범학생 39명에 모두 8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인근 지역 독거노인 20명에게 각 10만원씩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해인사 링 린포체 초청법회

해인사(주지 세민)는 티베트의 승왕 달라이라마의 왕사(王師) 링 린포체를 초청, 7일 대적광전에서 1029일 49재 열세번째 법회를 개최했다.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링 린포체의 법문에 이어 마정수기 의식도 가졌다.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팔달마 팔문 재수부



▷12띠 수복 달마



▷달마 백복도



▷금분 불자 달마(액상지)



▷불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득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국민은행 075-01-0349-506 득심사

전 화 : 02)839-7829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증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법당 : 100평
- 요사 : 11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진주지역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부지 : 467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13억

※ 최고의 산세와 경관을 지녔으며 (예정계획으로 종합병원 고속도로 및 터미널 10분이내 구리시 30분내 거리에 위치함)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
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회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부근
- 건물 : 최신건물로 대지 100평 건물 30평 텃밭 500평 임법당 법당 방 2개 욕실 2 주방 1 난방심야전기
-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1)429-6059
032)876-2248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전몽한옥사찰 최고요지
- 대지 : 78평 건평 60평 중 대웅전 23평 석자 삼신불 후불옥금탱화 100평 칠성목금탱화 60평 신중목금탱화 60평
- 홍송 살단 법단 목급시설일체
- 큰방 2개 별채 방 2개
-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람 답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양북
- 부지 : 75평
- 요사채 : 2동 30평
- 가액 : 4천 5백

※걸망 풀어놓는 곳
※마을 있고 언덕배기 바다 보임

- 위치 : 경주 산내
- 부지 : 700평
- 법당 : 16평
- 요사채 : 40평
- 가액 : 1억 5천

※ 건천 IC에서 9km(12분)
※ 뒤는 산 앞은 멋진 계곡 접함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51평
- 건평 : 50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 조용하고 전망이 기가막힘
- 가액 : 3억(절충가능함)

011)732-6933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 목조 새건축)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제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1)9859-742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포교당 안 내

- 위치 : 인천 부평 소사역 200M
- 법당 : 50평, 방 2개
- 보증금 : 1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역사깊은 도심 포교당임

- 위치 : 인천시 서구 소재
- 법당 : 40평 요사 방 2개
- 보증금 :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최고 시설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2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포교당 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3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9)319-5954
02)833-1597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25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150평
- 가액 : 20억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한국동 한국임보원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 부지 : 8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신축)
- 가액 : 4억 4천만원
- 특징 : 천년고찰터에 신축으로 조성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 부지 : 약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신라시대동불(보물급)이 있는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될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 안내

- 위 치 : 경북 경주시 동국大에서 10분거리
- 대 지 : 170평
- 대웅전 : 15평
- 삼성각 : 5평
- 요사채 : 30평
- 가 액 : 7000만원

011)9625-713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 대지 : 200평 평수 1층 30평
- 2층법당 19평 요사채 창고 등 별도있음
- 주차장 17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011)534-5014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훤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지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6)207-5600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읍 위치 서산사
- 법당 : 30평
- 요사채 : 25평(2동)
- 대지, 임야 : 5000평
- 가액 : 1억9천(가액조정가능)
- 만약 증축시 70평 가능함

011)9457-6954

장수건강
돌침대 특大할인

잠자리 바꿔 보세요 - 건강이보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보약입니다.
(사계절용, 월 전기료 8,000원~12,000원선)


▲상급보료

02)424-9427
장수건강온돌(리빙스톤)

건물 및 부지 안내

- 위치 : 도봉산 19번 종점에서 도보로 25분거리, 차량 운행사5분거리
- 대지 : 임야포함 1502평(개인사유지)
- 건물 : 건축물대장 2필지(1필지 28평, 1필지 17평)
  - 현재 식당 25년 운영중임(영업하가증,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찰로 운영할 경우는 재건축 요망
  - 식당으로 운영하실 경우 인수 후 즉시 영업가능
- 가액 : 상담 후 가격 후 절충

연락처 02)955-4785 / 011)399-478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 220평
- 요사채 : 30평 이상
- 법당 : 23평
- 산신각 : 5평
- 공양간 25평,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1)226-2880

포교원 안내

- 인천 부평구청 전철역 5분거리 4층 건물 중(3층) 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화장실 별도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영단, 앰프시설 불기 일체
- 전세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 12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11)577-2251

사찰 안내

-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천 소재(국도변 ● 부지 : 대지 350평
- 건평 : 법당 25평(기와, 단청필),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 30평(스라브)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 27평(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2개
- 산신각 및 용왕당(천연자연수)
- 사철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소 세수려함
- 요사채 외 2층으로 필요시 건물 증축가능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임

- 매가 : 2억5천만원(감정가 1억 8천만원에 급 양도하고자 함

011)9017-5445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20평
- 주차공간 넓고 조경수 심어져 있음. 텃밭도 있음
- 가액: 3억 (조정가능)

052)269-4952

포교당안내

- 위치 : 양산시 중부동 소재
- 면적 : 50평
- 거실, 방3개, 주방, 욕실, 법당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전세 포함 3천만원 월세 30만원

055)372-3729
011)9668-1953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내동 3층 건물 중 3층 '신축' (법당자리)
- 건평 : 60평
- 보증금 : 4000만원 월세 : 40만원 전세가능 가액 : 7000만원 현장 방문 후 가액 조절

017)845-7090

사찰 안내

- 위치 : 김해 대동
- 대지 : 180평
- 법당 : 13평
- 요사채 : 40평
- 가액 : 2억 5천

055)335-77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 법당 : 40평, 3존불(3.5자) 후불 탱화,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화, 다다미 마루, 방2칸, 부엌 1칸
- 가액 : 5천만원(상담절충가능)

011)735-917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 건물 : 3층 건물 2층(40평)
- 석가모니불, 소불 10t불 지장, 신중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200만원(절충가능) 보광사

053)636-9306
011)9598-4193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소재
- 법당 : 150평
- 요사 : 방 4개
- 보증금 1억 8천만원 (전세)
- 시설비 (답사 후)
- 최고시설

011)530-1975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포교당안내

- 부산 구포 덕천 로타리에서 걸어서 5분거리
- 시설 건평 60평 방 4개로 A급 삼존불, 지장보살, 지장탱화 산신탱화 있습니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 공양주 구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진주시 최고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신중탱화
- 평수 : 대지 100평(정원 20평)
- 건평 45평 방 3개 주방, 샤워실, 살림도구 일체
- 전세 : 2500만원(월세가능)
- 시설비 : 1000만원(답사 후 결정)

011)837-4010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5천군 상리면 도하리 중봉산 11분거리
- 대지 : 종문스승, 200여평사용가능
- 건물 2동 방4개 보일러 기타시설 완비
- 부처님 친불 모시고 있음
- 해발 600고지 계곡 떠고 경관이 수려
- 가액 : 1500만원

011)541-9457
054)822-7497
054)652-1184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화정동
- 건물 2층건물에 2층 50평
- 미타삼존불 50나한 지장 신중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599-997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 근처
- 대지 : 약 600평
- 법당 : 25평(임법당)
- 요사채 : 1층 70평, 2층 30평
- 특징 : 교통요지 운영양호
- 가액 : 2억 5천만원(절충가능)

041)337-6348

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 법당 : 20평 부지 : 700평 요사 : 20평
- 건물은 옛날토굴집
- 수리는 완전함
- 가액 : 6500만원

033)372-6494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에서 택시로 20분 거리
- 부지 건물 2동 논밭 6천평
- 특징 산세수려, 송림울창한 적정처 주위에 송이버섯 많이 남 꽃나무 유실수 다수 조경수려 전기전화있음
- 가액 6000만원

051)257-0052
018)762-43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종로구 종로 5가 182-7번지

016)207-561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중심가 (주엽 전철역 200m)
- 건물 : 3층 건물중 3층(20평) 앞뒤로 아파트 단지로 포교원이나 협회관으로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7백만원

031)919-0306
011-9701-0603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주엽 전철역 200m) 송원리 20번지
- 건물 5동 평수 270평
- 특징 : 마당까지 차가진입 수령500년된 정자나무 있음
- 가액 : 4000만원

055)883-5161
016)739-516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평지)
- 대웅전 25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채 45평(방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석불
- 가액: 1억 9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포교당안내

- 위치 : 구리 남양주
- 건평 5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
- 시설비 5500만원(조절가능)
- 시설물 : 도시가스, 방2개,
- 사무실1개, 욕실, 공양간, 화장실2개

031)555-406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 평수 :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방 4개, 부엌 약 150평
- 가액 : 3000만원
- 즉시 입주 가능

019)361-6134

토굴안내

- 위치 : 전남 화순사평 대원사 벚꽃과 계곡옆
- 암자나 전원주택 가능 경관 좋음
- 부지 약 200평 건물 35평
- 가액: 1억, 전월세 가능

061)852-535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학성동 학성종합시장 옆 2층건물
- 평수 : 23평 방 1개
- 주방 1개 법당 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6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2)296-2422
019)419-148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 건평 32평, 4층 건물의 4층
- 전세 3500만원
- 입주후 즉시 법회 가능

051)501-0038
011)9548-8667

포교당안내

- 부산 구포 덕천 로타리에서 걸어서 5분거리
- 시설 건평 60평 방 4개로 A급 삼존불, 지장보살 지장탱화 산신탱화 있습니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 공양주 구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진주시 최고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신중탱화
- 평수 : 대지 100평(정원 20평)
- 건평 45평 방 3개 주방, 샤워실, 살림도구 일체
- 전세 : 2500만원(월세가능)
- 시설비 : 1000만원(답사 후 결정)

011)837-4010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5천군 상리면 도하리 중봉산 11분거리
- 대지 : 종문스승, 200여평사용가능
- 건물 2동 방4개 보일러 기타시설 완비
- 부처님 친불 모시고 있음
- 해발 600고지 계곡 떠고 경관이 수려
- 가액 : 1500만원

011)541-9457
054)822-7497
054)652-1184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 동구 화정동
- 건물 2층건물에 2층 50평
- 미타삼존불 50나한 지장 신중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599-997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 근처
- 대지 : 약 600평
- 법당 : 25평(임법당)
- 요사채 : 1층 70평, 2층 30평
- 특징 : 교통요지 운영양호
- 가액 : 2억 5천만원(절충가능)

041)337-6348

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 법당 : 20평 부지 : 700평 요사 : 20평
- 건물은 옛날토굴집
- 수리는 완전함
- 가액 : 6500만원

033)372-6494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에서 택시로 20분 거리
- 부지 건물 2동 논밭 6천평
- 특징 산세수려, 송림울창한 적정처 주위에 송이버섯 많이 남 꽃나무 유실수 다수 조경수려 전기전화있음
- 가액 6000만원

051)257-0052
018)762-43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종로구 종로 5가 182-7번지

016)207-561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중심가 (주엽 전철역 200m)
- 건물 : 3층 건물중 3층(20평) 앞뒤로 아파트 단지로 포교원이나 협회관으로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7백만원

031)919-0306
011-9701-0603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주엽 전철역 200m) 송원리 20번지
- 건물 5동 평수 270평
- 특징 : 마당까지 차가진입 수령500년된 정자나무 있음
- 가액 : 4000만원

055)883-5161
016)739-516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평지)
- 대웅전 25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채 45평(방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석불
- 가액: 1억 9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포교당안내

- 위치 : 구리 남양주
- 건평 5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
- 시설비 5500만원(조절가능)
- 시설물 : 도시가스, 방2개,
- 사무실1개, 욕실, 공양간, 화장실2개

031)555-406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 평수 :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방 4개, 부엌 약 150평
- 가액 : 3000만원
- 즉시 입주 가능

019)361-6134

토굴안내

- 위치 : 전남 화순사평 대원사 벚꽃과 계곡옆
- 암자나 전원주택 가능 경관 좋음
- 부지 약 200평 건물 35평
- 가액: 1억, 전월세 가능

061)852-535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학성동 학성종합시장 옆 2층건물
- 평수 : 23평 방 1개
- 주방 1개 법당 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6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2)296-2422
019)419-148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 건평 32평, 4층 건물의 4층
- 전세 3500만원
- 입주후 즉시 법회 가능

051)501-0038
011)9548-8667

남 왈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6461, 021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h57kr@yahoo.co.kr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접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한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6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포교당안내

- 위치: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5번출구 3분거리)
- 약 20평(거실, 욕실, 주방, 법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74만원 시설 권리금 답사후 결정

019)9138-487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 대지 100평 법당 25평 요사 30평
- 보증금 7000만원에
- 월 30만원

011)9233-190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지하철역에서 5분거리
- 대지 : 151평
- 대웅전 14평
- 요사채 : 18평
- 특징 : 광안리 앞바다와 광안대교가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
- 가액: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1)9994-412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 대지 : 80평
- 건평 : 15평 (임법당, 방2개)

011)9985-831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신현동 주공아파트 앞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목조 A급 시설완비)

011)9150-8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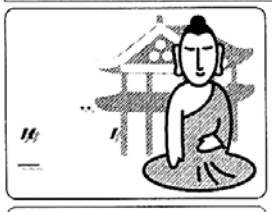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등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금화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경남 진주시 금곡면 석계리
055)753-9826, 754-2997
휴대폰 016-546-9826

향용사 법회안내
매월(음)초하루 오전10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반곡 767-5
063)243-9152
017-658-9152

덕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송창동 3-68(7/2)
063)463-5907 / 011-684-1408

염창사 법회안내
매월(음)초삼일
전북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214-5
(창북초등학교 뒤 염창산 용정마을)
063)584-6571
011-659-6571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 / 011-732-6933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 / 448-1144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수도사 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법 회 안 내
여래사 약사만다라 대법회
일시 : 2002년 11월 2일(土)
오전 10시30분
서울 성북 성북동 168-100
02)3673-3881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아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노적사
화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창립 정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 354-7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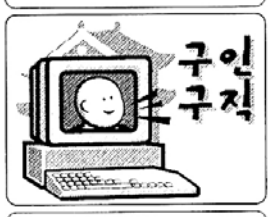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開山 2주년 기념 후불탱화 점안법회
때 2546년 10월27일(日)오후 2시 곳 속리산 가을의 쉼터 대웅전
아침 9시 서울 잠실롯데월드 앞 너구리상에서 현대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왕복교통비 10,000원 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593
033)3456-008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복된장,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소원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철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결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 ~ 3
016)9414-1525

배우자 구함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30~35세
011-558-6221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 여수 연화사
011-9521-5677
061)641-0700

같이 수행하실 행자스님 구합니다
041)566-0722
041)566-6301

모십니다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평생을 함께 하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십니다
041)952-4197
016)9311-4103
02)996-3813

부전스님 모십니다
▷ 65세 이상
011)376-3012
02)2254-2198

각종 염불해 드립니다
49재, 영가천도, 불공,
기도, 시달림
011)9596-433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서울 우이동
02)992-7064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1)422-6757
041)545-6531

행자 및 수행을 함께 할 학인을 모십니다.
위빠싸나, 관법수행
(불가기공, 도가기공, 의료기공, 양생기공)
051)264-9621, 011)577-7600

부전스님 · 어린이 법회선생님 모십니다
031)266-6526
018)357-6526

사찰 사무원(女) 구합니다
▷ 충남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3222

암자를 직접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암자 운영 무료, 종단불문
경북의성군 , 창건주
017)813-9126

기도부전스님 구함
기도정진하시는 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통영시 봉평동 미륵산 용화사
055)645-3060/011-464-3090

모십니다
김천 불일사
사찰에서 공부하고 수행하실 신도님
간단한 의식집전이 가능한 분, 숙식제공
018)587-2363

부전·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40~50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017)260-3310

배 우 자
불심이 돈독한 40대 여성을 구합니다
공예업을 운영하고
재력 조금 있음
011)508-1234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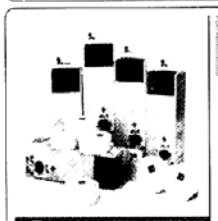


고려대장경 간본대장경 속장경 돈황보장 불사자금관계로 급히 양도 합니다
054)853-3855

북한산 심곡암 제 5차 단풍문화축제
일시 : 2002. 10. 19 ~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축' 화 촉
아껴주고 안아주고 나눠주며 세상의 가장 큰 이름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송희국의 차남 서인석군 장화숙의 차녀 도필선양
일시 2002년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1시 40분
장소 대전 오페라웨딩 2층 로맹스홀 TEL : 042)363-5000

탈 종 공 고
종단 한국불교 조동종
사찰명 회광암 법명 (호:김원갑) 주 소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2리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2002년 10월 3일부로 탈종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조동종 종정 법하



특별합니다!! bady wash cream 을 파 소
선택및소금(1000℃ 약품소금(+키토산(고산지) + α = 한성크림
강력한 심부압작용(백내 독소제거, 노폐물제거, 과부세포재생)
이런분께 권합니다
★각질제거, 미백효과
★여드름이나 피부트러블로 고통받는 분
★주부습진, 우즘, 아토피성피부염
★출산후(부기)나 부인병으로 고민하시는 분 (탁월한 효과)
★부부가 같이 쓰시면 특별합니다.
★건성, 중성, 지성피부에 다 좋습니다.
바이오 피부 깊숙이 느껴진 생생에너지
50g 6개(1set)=25,000원
(고가의 외제품과 비교해 주십시오)
몸진신을빛소금 작정으로써여 합력, 선경, 임력를 정화시키고 기혈순환을 돕는다 본 제품은 미국FDA에서 인정성 검사를 통과한 유황소금과 키토산의 함성크림으로 부작용이 전혀없고 항균성과 보습으로 피부에 탁월합니다
(주)을파소 특판사업부 02)942-5470~1 소장 : 임현택
사업자등록번호 209-05-88613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49 벤처라인B/D 202호

Mo 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연지플라우어
각종 꽃 주문 배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399-7781

벼 락 맞 은 벽 조 목 염 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볼에 지니거나 염주 단주,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부부화합, 사업번창 건강해차, 매매, 사고예방, 취업,
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보십시요
주문전화 : 033)643-5599 / H.P 018-236-5589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범종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靑雲易學院
02)723-7449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기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풍수지리(도법)
여보게
왜 어깨위에 짐을 지고 다니시는가
내가 그짐을 좀 덜어주렵?
이장에서 화장
묘터 선산 건물 집터(음, 양)
모든 감정 및 상담까지 천문지리도법으로
"산소"와 산을 형상으로 보면서 설명과
방법 및 방편법을 선택해 줌 산소 조경 및
이장 화장 분묘 등등 직접 작업함
지역별 산소터(명당자리) 다량확보
백두 풍수 연구원
www.vipsaju.net
02)3445-2959
원장 법 진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덕풍명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붓자 용자)
승복 소장하여 활기찬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탁마대사)그림 觀자그림 (수백點 차단)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경기도 가평소재 (유료양로원)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도 법문주 보살(가운데)이 부산 정토불교대학 수강생들과 함께 '현대불교'를 보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하나…답이 있어요"

도 법문주 보살 '현대불교' 권유 7년째…오늘도…

길거리 · 지하철, 때 · 장소 가리지 않아

"바른법 만나게 해줘 고맙다"에 피로 '싹'

도 법문주(56 · 부산 온천2동) 보살은 오늘도 '현대불교'을 챙겨들고 집을 나선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현대불교신문 홍보를 시작한지 벌써 7년째. 이제 법문주 보살에겐 쉽사리 그만둘 수 없는 일과가 되어버렸다.

지하철이든 길거리든 어디서나 사람만 만나면 시작되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 우주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현대불교를 보라'는 법문주 보살의 구독 권유는 때때로 눈총과 외면을 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 서러울 때도 많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이제는 그만두어야지 하며 몇 번이고 다짐을 하면서도 다음날이면 영락없이 현대불교신문을 챙겨든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했을 때 현대불교의 큰스님 법문을 읽고 전기불이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법문주 보살은 "하늘을 보고 울고 다녔는데 현대불교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불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모두 나와 있었다"고 회고했다. 현대불교를 통해 삶의 길을 찾은 법문주 보살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문을 권유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다.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근 사람들에게 불법의 소중함을 전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법문주 보살의 물음은 그간의 고충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법문을 접하면 나중에 눈뜨고 마음 여는 인연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법문주보살의 신문 권유에 '넌즈시'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을 기약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구독하는 신문을 한 면 한 면 나누어 들고 다니며 한명이라도 더 권했고, 그도 모자라면 신문을 복사를 해서 들고 다녔을 정도.

100명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두려 했는데 그렇게 한사람 두 사람 늘어난 구독자들이 오히려 법문주 보살의 포교활동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바른 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거나 "신문을 읽고 사는 게 달라졌다"는 사람들의 감사 전화가 그간의 설움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을 모두 잊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법문주 보살의 권유로 구독자가 된 이경선(울산) 보살은 "어찌나 조목 조목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지 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며 "다양한 정보와 법문, 신행 소식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차를 타고 밤새워 가야 하는 먼 곳에 계시는 큰스님도 앉은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숱한 스승들이 길잡이가 되어주니 단돈 5천원으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치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산=천미희기자

2차대전때 희생된 무연고 한인유골 · 위패

40만기 2006년까지 日서 환국

1차 이어 2차 300기, 3차 11월 1300기

미술교류협 산하 영령봉환본부 추진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의 군대와 기업소에 강제 징집돼 억울하게 희생당한 무연고 한국인 희생자 위패 및 유골 40만기가 2006년까지 한국에 돌아온다.

(사)세계미술교류협회(회장 이백암, 실장 박동섭) 산하 태평양전쟁희생자 무연고영령봉환사업본부는 9일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본지에 단독 발표했다.

미협 산하 무연고영령봉환본부 강황국 본부장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일본 동경 우천사 등 23개 사찰에 봉안중인 위패와 유골을 올해 11월까지 3차에 걸쳐 환국시키고, 내년 3월부터 2006년까지 매달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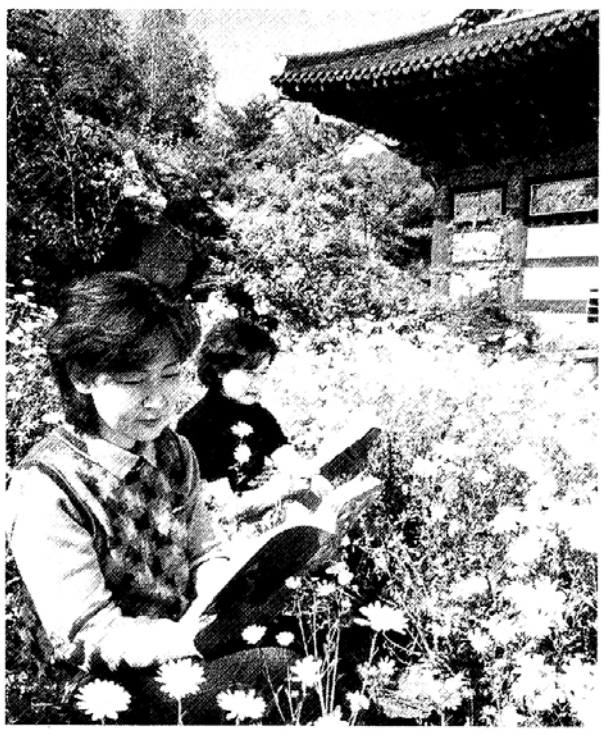
일본 세계평화사 본산 주지 송미호룡스님(일본 봉송위원장)과 궁영등(평화사 제정주관)의 협조에 의해 9월 28일 1차로 일본 오사카 지장원과 아미타사에 봉안된 한국인 무연고 희생자 위패 100기와 본적과 사망년월일, 사망원인이 기록된 명부 등을 이운해와 파주 평화통일사에 임시 안치한 미협 산하 무연고영령봉환본부는 2차로 10월 말 위패와 명부 300기(예정), 3차로 11월 1300기(예정)를 들여올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 무연고 희생자 유골은 화장된 뒤 300~500명씩 사찰의 묘지에 합장되 있으며, 재일 한민족 희생자 위패 및 유골 고국 봉안문제는 오랜기간 한 · 일정부의 현안이었다. 정부는 1993년 '망향의 동산'에 유골 14,400기의 안치가 가능한 납골당을 설치한바 있다.

김원우기자



◇일본 지장원에 방치돼 있는 무연고 한인 희생자들의 무덤. 시멘트로 덮혀있는 이 무덤에는 화장된 300~500명의 유골이 합장돼 있다.



산사에서 구절초 향기를 파란 하늘과 향긋한 구절초 꽃 내음이 영명사(주지 환성)를 화장세계로 만들고 있다. 5일부터 13일까지 구절초 꽃 축제가 열린 공주 영명사에서 두 불자가 가을의 정취에 흠뻑 취해 꽃 속에 몸을 담그고 독서삼매에 빠져 있다. 공주=임민수기자

"진신사리 모신 戒壇 향해 마당서 예배 후대들어 편의에 따라 전각 건립한 듯"

김흥삼씨 '오대산 적멸보궁' 세미나서

불자들이 기도처로 많이 찾는 적멸보궁을 다룬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월정사(주지 현해) 성보박물관은 11일 박물관 개관 3주년(10월 13일)을 맞아 '오대산 적멸보궁의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흥삼(강원대 강사)씨는 '상원사 적멸보궁과 진신사리신앙' 주제발표에서 "오늘날 적멸보궁이란 편액을 붙인 전각은 본래 법당이 아니라 진신사리의 예배장소로 마련된 전각이었기 때문에 불상을 따로 안치하지 않고 다만 진신사리가 봉안된 쪽으로 예배를 위한 불단을 마련했다"며 "처음에는 사리를 모신 계단(戒壇)을 향해 마당에서 예배하던 것이 편의에 따라 전각을 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건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강근 교수(경주대)는 "적멸보궁이 우리 나라에 언제 처음 세워졌는지, 언제부터 불사리봉안처 앞의 배전(拜殿)을 적멸보궁이라 불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문헌기록과 전승 유물로 볼 때 19세기 초에는 적멸보궁이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정사는 학술 행사의 일환으로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조선시대 불화 특별전'을, 월정사 용금루 상설전시관에서 '사진으로 보는 오대(五大)적멸보궁' 사진전을 12월 30일까지 개최한다. (033)334-1817

권형진 기자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대구에 '붓다의 집' …의무실 · 공연장 등 갖춰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불교 무료 노인전문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감천(대표 오정스님)은 12일 원로의회 부의장 원명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감천사 회주 무공스님, 조해녕 대구시장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붓다의 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대구시 동구 진인동에 개원한 '붓다의 집'은 2001년 6월 착공 지난 4월 30일 완공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152㎡의 규모로 물리치료실, 의무실, 야외공연장, 장애편의시설 등을 모두 갖춘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거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며 현재 60명 정원에 30여명이 13명의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구=박원구기자

"법화사 중창 元나라 주도"

김일우씨 주장

13세기 후반 제주 법화사의 대대적인 중창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世祖)가 원찰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가 '고려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5일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김일우 제주문화예술재단 학예연구사는 "법화사 중창(1269~1279)은 고려 왕실의 착안으로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추진과 마무리는 원의 주도"라고 밝혔다.

원나라가 법화사를 중창한 것은 일본 전법을 위한 지리적 여건과 고려 왕실과 원 황제 쿠빌라이가 같이 신봉하던 관음신앙에 기초한 사찰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권형진 기자

미얀마선수단 초청 공연

삼광사, 지속적 교류 약속

14일 폐막된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불교계의 서포터즈는 최후까지 빛을 발했다.

삼광사는 10일, 미얀마 선수단을 초청 만찬을 베풀고 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아시안 게임을 통해 맺은 인연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미얀마 체육부 뚜라이 에민 장관을 비롯한 미얀마 선수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만찬에 이어 문화 공연이 열려 미얀마 선수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미얀마 체육부 뚜라이 에민 장관과 선수단장 등 6명은 5일 전통불상 53불(53佛)을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께 기증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기자

세계一花 대회 열려

논산 무상사서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 만공월면스님을 기리는 '세계일화대회'가 6일 15개국 130여 명의, 숭산스님 제자와 한국, 미국, 캐나다, 폴란드, 홍콩, 싱가폴 등지에서 온 3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논산 무상사(주지 대봉)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광스님(미국 관음선종회 주지)은 대표설법을 통해 "스승이 제자이고 제자가 스승이다. 스승에 집착하면 스승이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스스로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일화(世界一花)'란 만공스님이 세상의 참모습을 한 송이 꽃에 비유한 것으로, 숭산스님의 전 세계 포교 원력의 바탕이 됐다.

숭산스님과 제자들은 현재 세계 32개국에 130여 개 선방을 운영하고 있다.

논산=강유신 기자

통도사 수련동문회 결성

장태호회장등 임원 선출

통도사 수련회를 거쳐갔던 수료생들이 수련회 동문회를 결성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향의 길을 찾아 나섰다.

5~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1회 통도사 수련회 동문회에서는 장태호 회장, 강혜정 부회장을 비롯 동문회 임원 선출과 회칙을 통과시키고 통도사 수련회 동문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부산, 대구, 경주, 포항, 울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50여명의 수련회 동문들은 3개월 마다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하고, 향후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포교, 봉사 활동 등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통도사 수련회 동문회는 그동안 수련회에 참석했던 1천여명을 훌쩍 넘는 인원들 중 통도사 수련회 참가 인연을 더욱 의미있게 회향하길 원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장태호(46 · 아이티 영업본부 이사) 회장은 "지역 소모임과 인터넷 동우회 활성화를 통해 수련회 동문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수련회를 통해 접한 불법의 향기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기자



◇박대각심 보살이 신도회 임원들과 '불사계'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자비화, 정대원행, 홍관음행, 박대각심, 최진여성, 강묘각지 보살.

우리 절 우리 신도

신도회 · 합창단 창립 산파역

고양 노적사 신도회 박대각심 명예회장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요사채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절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도들이 북한산 매표소에서 기와 한 장, 모래주머니 하나씩 들고 올라와 지은 요사채인데…"

북한산에 위치한 노적사 신도회 명예회장 박대각심(65 · 서울 서초동) 보살은 지난 6월 불타버린 요사채 때문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1년 후인 26살 때부터 내집처럼 드나들었던 노적사. 하다못해 절 마당에 떨어진 돌멩이하나도 내 것처럼 가꾸고 정성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대각심 보살은 실망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무상법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박대각심 보살은 사촌언니가 노적사 창건시 화주보살이었던 것이 인연이되어 지금까지 40여년간 노적사의 모든일을 혼자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사찰종무는 물론 살림살이까지 그의 머릿속엔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기억되어 있다. 또한 신도회를 조직하고 관음회, 합창단을 창립할 때도 산파역할을 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노적사 불교교양대학 2기를 수료했고, 지금도 틈만 나면 불서를 보며 불교적 소양을 높이고 있다.

절 일외 암센터서 의료기 소독봉사도

젊은 시절 수없이 108배를 하며 마음을 낮추려고 해도 욕심이 절로 생겼는데 자식들까지 모두 출가시키고 난 지금은 부처님이 모든 서원들 다 들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대각심 보살은 최근 고양시사암연합회에서 만든 봉사단체인 천수천안에서 주최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대 사회적으로 회향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현재 박 보살은 노적사 신도들과 함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수술도구 등 의료기를 소독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대각심 보살의 이같은 선행에 이자비화, 정대원행, 홍관음행 등 노적사 신도회원들도 사찰에서만 하는 소극적 봉사에서 탈피해 직접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하고 있다.

박대각심 보살은 "절에 들어 설때마다 임시로 천막을 쳐 놓은 요사채를 보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당분간은 스님을 도와 요사채 불사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활짝 웃음을 지어보였다. 또한 걱정없이 절에 다닐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준 남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김두식 기자

추천의 말

종후스님 (노적사 주지)



평생을 한절만 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멀리 서울 서초동에 살면서 절에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한걸음에 달려와 도와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에 다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보살은 하심의 자세로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회 창립에서부터 관음회, 합창단 조직을 혼자서 해냈지요. 박보살은 한마디로 노적사에서는 없어서 안될 소중한 분입니다.

실업률0%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은행 | 14th Asian Games BUSAN 2002

2002 아시안게임 공식은행



원하는 사람 모두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은행이 시작합니다

한국 금융을 이끌어가는 은행이기에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은행은, 단지 은행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원하는 사람 모두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

wooribank.com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 '우리은행' 입니다
선도은행으로 더욱 앞서가겠습니다. 2001년도 당기 순이익 7,129억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1.3%, 고정 이하 여신비율 2.06% 등을 달성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한국 금융을 이끌어가는 대종가(大宗家)입니다
한국 금융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와 한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하는 한국 금융 대종가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더욱 앞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은행, 증권, 종합금융, 신용카드, 투자신탁 등의 금융네트워크를 갖춘 우리금융그룹의 대표은행으로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하실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법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같은 길 걷는 우리는 영원한 친구"


◇15일 아프카니스탄으로 떠나기에 앞서 공양간에서 정토회 도반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는 공양주 유정길 씨와 아내 이지현 사무국장.

아주 특별한 부부

정토회 유정길·이지현 씨

나누는 삶 실천위해

남편은 아프간 긴급 구호활동 아내는 한국JTS서 후방 지원

정토회 산하 한국제이티에스 사무국장 이지현씨(40세)와 정토회 공양간 공양주 유정길 씨(42세). 아주 특별한 부부다.

아파트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도 하나 없고, 남들 다 있는 자가용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가졌나?

아내 :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해보면 나와 타인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적게 갖고, 적게 쓰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 : "꼭 좋은 것,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활동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많지요. 우리 둘의 한달 수입이 60만원이지만 그 가치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삽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양주 남편 VS 사무국장 아내

부부 싸움은 자주 하는지?

남편 : "별로 싸우지 않는데, 서로 틀틀대는 경우는 가끔 있지요. 어쩌다 해 달라고 한 다림질을 해놓지 않았을 때 그래요."

아내 : "왜 다림질해야 하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하죠? 그냥 입고 다닐 옷도 많은데."

최근에 함께 본 영화는?

남편 : "오아시스!"

아내 : "오아시스!"

서로의 생일을 잘 챙기는 편인가?

남편 : "아마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9월 29일이 내 생일이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일 챙기는 것 보면서 사치라고 무심했었는데, 막상 모르고 지나니 조금은 섭섭하네요.

아내 : "정말? 음력 8월 23일인 건 알고 있었는데 벌써 지났나? 좀 미안하네! 후후후"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기나?

남편 : "보통의 부부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메일도 이용하고요."

아내 : "글쎄, 시간적으로 환산하기는 그렇고 그냥 얼굴 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더 커요."

부부이기 이전에 두 사람 사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남편 : "믿음직한 도반, 힘이 되는 든든한 존재!"

아내 : "친구!"

고통없는 세상 만들기, 삶의 목표

너와 내가 하나 되고, 편견과 고통,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상. 그들이 함께 가꾸어가려는 삶의 궁극적 목표다.

이씨와 유씨는 지난 90년 1월 20일 결혼했다. 아직 2세는 없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유보한 상태다. 이씨는 대불련 간사 활동을, 유씨는 중앙불교교육원에서 법륜스님과 일하다 92년부터 정토회에서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한달 수입은 각각 30만원씩 받는 활동비를 합친 60만원. 이 가운데 15만원은 정릉에 사는 어머니 용돈으로, 또 일부는 정토회 운영비나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고, 나머지로 생활한다. 대부분이 교통비로 소비되지만,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부부는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 가끔 밥값 술값도 내고, 시사잡지도 사보고, 가끔 함께 영화도 본다.

이러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한 수행이다. 자신의 생활 전체를 수행으로, 수행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순간순간 닥치는 일들을 여여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더 넉넉해지고, 삶에 대한 의지도 더욱 굳건해진다. 조만간 유씨는 아프카니스탄 긴급 구호활동을 위해 현지로 떠난다.

'일'은 곧 '수행'

굳이 결혼이라는 관례를 따를 필요가 있었나?

"신념대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결혼으로 인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굴절되거나 좌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이 서로가 일을 하는데 활력소가 되었죠. 함께 갈을 일을 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두 사람.

부부로 생활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때는?

남편 : "취미와 기호가 서로 너무 달라서 가끔 어긋날 때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제가 하는 일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요. 경제적면에서 부터 손자 문제까지. 하지만 신념대로 살기 위해 어머니와 타협할 수는 없었지요."

아내 : "동감해요! 반면 제 경우엔 결혼 이후 30대 초반에 부딪쳤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내 : "늘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한국제이티에스에서 아프간 구호를 추진하면서, 전쟁이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프간은 인도와는 또 달라요. 갈등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15일에 유정길씨가 아프간 현장으로 직접 가서 구호활동을 하게 되니 그 마음이 더욱 절실해 질 것 같습니다. 1년 예정인데,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래요."

남편 : "(크게 웃으며) 가서 죽지 않고 모든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ngo 등록하고, 카불에 거처를 정하고 조사 작업부터 시작하게 될겁니다. 카불 북부의 파르자 난민캠프, 댐 건설, 학교 등을 지원할 예정이구요. 이후에는 탈레반의 거점지였던 아프간 서남부 칸다하르 지방을 오가며 긴급구호활동을 펼칠 겁니다. 올해 초에 말했던 공양주 일까지 중간에 그만두고 자원한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요."

글=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사진= 임민수 기자 ymnsoo@buddhapia.com

국태민안 국민대화합을 위한

一心寺 山神 石窟 法堂 佛事案內



귀의상보하옵고
소납이 지난 7월25일, 남북이 하나로 이 땅 불국정토기원 일심사 아미타 좌불 봉안후, 월드컵 경기때 국민화합 하는가 했더니 요즘 와서는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시끄러워 한반도 백두 대간의 정기를 다루시는 33山神을 봉안코저 산신 굴법당 佛事중이오니 참불자 인연 맺고저 합니다.

- 일 시 : 2002년 11월18일 오전 10시
  연예인 초청공연 오후1시부터 4시까지
- 장 소 : 일심사(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1구)
- 문 의 : 016-407-2549, 041-356-2549



일 심 사 주 지 설 호

릴레이 수행일기 <上>



이금현
경불련 부회장
자비의집 운영

아주 어렸을 적에 읽어서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마녀 이야기인데,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나그네를 자신의 침대에 눕혀보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침대에 맞추어 다리를 자르고 작으면 잡아당겨 늘려서 침대에 맞춘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속뜻을 잘 모른 채 '나쁜 마녀' 라고만 생각하던 그 마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나의 잣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나라는 생각(我相)' 의 또다른 이름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통도사 포교당인 구룡사가 있다.

천막법당 때부터 나는 부처님과 마주 앉아 내 고약한 심경과 인간에게 보이지 못하는 결점 투성이의 마음, 미움 그리고 눈물까지도 곧잘 토해내곤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처럼 웃으셨고, 그리고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그런 따뜻한 가슴으로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 사는 최상의 길이자,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게 아닐런지.

시봉드는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려 자비의집 공양간에 내려오시는 할아버지 같은 큰스

배고픔 덜어줄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할아버지 · 할머니들 모두가 천진불

슬퍼하셨다.

필자가 신행을 시작할 즈음, 각 사찰마다 나름대로 학식을 갖춘 불자들이 늘어나고 기초교리 그리고 금강경 등 경전을 배우는 불자들이 늘어나, 부처님 가르침은 2500년만에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듯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아는게 병이라고 했던가, 등 굽혀 부처님께 손모아 기도만 하시던 노보살님들의 자애스런 웃음은 기복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주변엔 내 잣대로만 남을 재는 그런 편견과 오만으로 무장한 불자가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을 종종 인용하는 걸 보게 된다.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생활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오늘도 마녀의 침대에 눕혀진 수많은 나그네들의 힘든 모습을 보며, 지식은 지혜와 반비례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님의 마음과, 치마 걷어 속곳 주머니에서 동전 몇닢 꺼내는 할머니에게 식구 이름 적어 올리라며 예쁜 연등 달아주시던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의 환한 웃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게 된다.

추적거리는 가을비 속에 오늘도 자비의집 처마 밑엔 아침을 거르신 채 빗방울을 피하며 쪼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다. 문 열기만을 기다리며….

날마다 자비의집엔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듬뿍 정성 넣어 끓이는 된장국 속에서 보글보글 우담바라화가 피어남을 본다. 그 우담바라꽃 향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천진불이 된다.

이 땅에 굶주리는 대중이 한 사람도 없게 하자는 취지로 1992년 문을 연 자비의집.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반찬 배달, 노인 잔치준비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산 부처' 가 아닐까.



◇현정선원은 참선, 염불과 같은 '의도적' 수행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즉문즉답' 을 통해 끊임없이 분별지를 깨뜨리는 방편아닌 방편을 쓴다. 설법중인 현정선원 원장 대우거사.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현정선원 **일승법**

'있는 그대로 부처' 아는 것이 일승

'분별지' 타파…수행 방편도 쓸데없는 일
즉문즉답으로 진행, '마음의 평화' 성취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소재한 현정선원(顯正禪院). 선원이란 이름대신, 'Fuoyee!' 라는 영문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알 듯 모를 듯한 이 글자에 현정선원의 기풍이 다 담겨있다. 'Fuoyee!' 는 '훠이!' 라는 감탄사. '모든 시름 걱정 다 날려버리고,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자' 는 것.

간판부터 '파격' 으로 다가오지만 의외로 방편은 지극히 평범하다. 아니, 방편이랄 것도 없다.

현정선원은 '범부는 하찮고 성인은 저 높은 곳에 있다든가, 저 거룩한 성인처럼 되려면 좌선, 독경, 염불, 명상 등의 고된 수행을 해야만 한다' 는 생각을 다 쓸데없는 분별로 간주한다. 모든 이가 있는 그대로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투철히 알면 된다는 것이다. 현정선원은 이를 '일승법(一乘法)' 이라 한다. 선원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방편은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는 문답뿐인 셈이다. 9월 27일 오후 2시, 정기법회에서의 한 문답.

"일체가 인연화합으로서 '나' 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인연에 따른 망상을 좇으며 나태를 일삼고 무기력하게 경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청운)

"'나' 까지 포함한 세상만사는 분명히 망상의 소산이므로 실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 허망한 법을 하나도 허물지 않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일승보살의 길입니다. 일의 성패에 관계없이 삶을 사는 사람은 일체의 두려움이 없고, 허둥거림도 없으며 후회하는 일 따위는 영원히 없는 법입니다." (대우 거사)

끝없이 분별지를 깨부수는 대우 거사의 즉문즉답(卽問卽答)과 설법은 매우 '현대적' 이다. 그의 언어는 매우 논리정연하고, 불경과 선어록은 물론 현대과학을 비롯한 세상사를 두루 꿰고 있다.

현정선원은 이처럼 자유로운 수행풍토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본분도량(本分道場)' 임을 강조한다. 결코 무엇을 가르치거나, 닦고 배우고 하는 따위의 모든 유위행(有爲行)에 의존함이 없이, 곧장 '자기의 마음' 을 밝힘으로써 곧바로 '나(我) 없고, 합이 없는(無爲)' 자리로 직입하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제자인 장순용(50)씨는 "지금껏 밖으로 내달으면서 온갖 이상(해탈, 열반 등)을 추구하던 그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 '본래 스스로 맑고 깨끗한 마음' 을 볼 수록 깨달음으로써 頓悟)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자는 것이 현정선원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정선원에 인연이 닿은 수행자들은 대부분 신행경력 수십년이 넘는 구참자들이다. 보림회, 수선회, 금강경독송회 등 수행단체에서 오랫동안 정진한 불자들, 직장인, 주부, 학자 등 7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20년전에 창립돼, 89년 3층짜리 자체 건물을 마련한 현정선원에는 600여 회원이 있으며, 지난해 1월 문을 연 인터넷 사이트(www.fuoyee.or.kr)에는 2만8천여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기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2·4째 토요일 오후 4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02)582-9371

김재경 기자

"마음은 본래 원만한 것, 밖에서 얻을것 없어"

현정선원 대우 원장



"이 '마음' 은 본래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아무것도 밖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수행 방편에 의지하여 반복적으로 갈고 닦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없는 것만 못하니,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현정선원 원장 대우 거사(大愚居士, 72)는 어떤 진리를 전해 주려 하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든 끊임없이 상대의 분별지를 부숴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임을 깨우쳐주려 한다.

"모든 부처가 한결같이 오직 심인(心印)을 전했을 뿐이며, 오직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 를 전했을 뿐" 이라는 대우 거사는 "만약 현재 분별하고 운동하는 '신령한 깨달음의 성품' 을 알면 '당신의 마음' 이 곧 그대로 부처이거늘, 어찌 허망하게 밖으로 구하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습니까"라며 반문한다.

1970~80년대에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와 함께 부산과 경남 산청에서 거사 중심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우 거사. 20여년전부터 과천과 서울 한 켠에서 조용히 불법(佛法)을 펼쳐온 그는 지난 3월 설법을 모은 첫 저서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현암사)를 출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일승 보살은 초발심에 불과(佛果)를 얻는다' 는 대우 거사는 "모름지기 조촐한 마음으로 '무심 무념의 삼매' 에 들어 모든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인 채로 담담히 바라보며, 거듭 삼가면서 조촐히 정진할 것" 을 당부했다.

수행 캘린더

■팔만사천배 참회=성철스님문도회는 성철 스님 열반 9주기를 맞아 7일7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10월 18일 오전 7시부터 25일 오전 7시까지 해인사 백련암에서 봉행한다. 추모재는 25일 오전 10세 30분 해인사 대조광전에서 봉행. (055)932-7300

■'수행과 깨달음의 길' =정토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서울 정토회관에서 '사념처관, 초기불교의 수행법' 을 주제로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수행과 깨달음의 길' 강좌를 연다. (02)587-8993

■철야 염불정진=만일염불결사회는 10월 19일 오후 8시 근본도량인 성남 정토사(주지 보광)에서 철야 염불정진법회를 열고, 염불정진 및 문답시간을 갖는다. (031)723-9797

■철야 참선정진=보림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서울 정릉 보림사 선방에서 토요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부산 보림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10시 화엄사에서 좌선(7시~9시) 및 능엄경 강송(9시~10시) 법회를 연다. (02)914-6187

■3천배 용맹정진=서울 불광사는 10월 19일(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 3000배를 실시한다. (02)413-6060-2

■21일간 용맹정진=대구 영남불교대학은 복지관 개관 및 백의관세음보살 봉안을 기념, 21일간 하루 1000배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10월 9~29일 오전 9~10시 500배, 오후 6~7시 500배. 백의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는 10월 29일 오전 9시 50분 봉행. (053)474-8228

■관선무 수련=전국비구니회관은 10월말까지 '관선무 지도자 대학' 수련생을 모집한다. 관선무는 불교 무예를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방편이다. (02)733-5467

■문사수법회 수계=문사수법회는 회주 한탑스님을 계사로 '새생명 탄생을 선언한다' 주제의 2002년 문사수 수계법회 잇달아 연다. 10월13일(고양, 031-972-3581), 10월20일(정진원, 042-485-8111), 10월 27일(대전, 061-381-0108)

■가을 수련회=우리는선우는 10월 12~13일 충북 음성 미타사에서 창립11주년 기념 가을 수련회를 연다. 12일 김연호 제천지회장의 '십만배기도 신행담' 도 듣는다. (02)2278-8672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지리산 실상사 사부대중들은
현대불교의 창립 8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리산 실상사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전화 063)636-3031
전송 063)636-3772
홈페이지 www.silsang.net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원장 동출
■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403호
전화 02)720-0824 팩스 02)722-8760
메일 sulpub@hananet.net
홈페이지
http://user.chollian.net/~solbaram0824/
※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은 월간 설법, 설법문안, 사보, 단행본 등 불교 관련 서적을 제작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
선덕 효림
주지 일문
대중일동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TEL : 031)948-7700~1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주경
대중일동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160
TEL : 041)662-3824

불음포교도량
불광사
주지 지범
■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27(망장포)
TEL : 064)767-2580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주지 법안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96-2
TEL : 02)395-9911

바라밀현장

흥산보금자리 **김진순 원장가족**

폐교보수…온가족 노인 뒷바라지

남편 교수직 버리고 동참·부모도 딸 지원

인근사찰 스님들 침 봉사·서예작품 제공



◇막 병원에서 퇴원한 임순임(94)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다정하게 위로하는 김진순 원장(오른쪽). 김 원장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편안히 모시는게 노인복지'라고 말한다.

"할머니 오줌 마려우면 말해야 돼요.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으응, 알았어. 미안시러워서."

지난 1일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 873번지, 구 흥산초등학교에 자리한 곡성군의 유일한 노인요양시설 '흥산 보금자리'. 이곳 장미방에서는 김진순 원장이 막 병원에서 돌아 온 임순임(94) 할머니의 다친 팔을 만지며 위로하고 있었다.

평균연령 90세의 할머니 다섯분과 할아버지 세 분이 요양중인 흥산보금자리. 지난 해 1월 폐교를 개보수해 문을 연 흥산보금자리에 입소한 어르신들과 직원간에는 전혀 거리감이 없었고, 손녀가 친할머니를 대하듯 다정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곳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김진수 원장의 친정 아버지는 이사장, 고종사촌 동생은 간사, 남편은 연구원 등 온 가족이 소임을 맡아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돌보기 때문.

특히 남편인 김도원(55) 거사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노인들이 부처님 곁에서 편안하게 삶을 회향할 수 있도록 돕자'며 광주신학대 교수직 사표를 내고 오로지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뛰어든 사업이라 더욱 뜻깊다.

친정 아버지인 김창희 이사장은 폐교가 되기 전 흥산초등학교에서 16년간 교장을 지낸 인연으로 부인 조환요(72) 보살과 함께 더덕이며, 도라지, 오가피, 산초 등 한약재와 밤, 매실, 모과, 감 등 유실수, 채소 등을 길러 노인들에게 자연식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친정 동네 주민들을 비롯, 그녀를 돕는 이들도 하나 둘씩 늘고 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서예가로서 구양순체의 대가인 우송 스님. 스님은 수시로 서예 작품을 기증하고 있다. 화순 심양사 백산 스님은 1년 동안이나 매달 한번 침술봉사를 해주고 있다. 또 인터넷 동호회인 '따뜻한 세상만들기' 회원들은 매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노인 요양시설로 인가를 받은 이후, 게이트볼 연습구장, 축구장 제공, 목욕서비스와 노인잔치 등 지역사회복지사업도 펼치고 있는 흥산보금자리.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식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십시일반의 정성과 자원봉사가 절실하다.

(061)363-3973, 후원구좌 : 농협(예금주 보금자리) 605105-52-002263

곡성=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극복 절로 하심되고 인욕공부도

흥산보금자리 **김창희** 이사장 부녀



"복지사업은 예상 외로 은가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보람도 큽니다. 한 단계씩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절로 하심이 되고 인욕공부가 되죠."

흥산보금자리 김진순 원장(50)은 처음 남편의 포교원력에 공감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양과 헌신이 포교차원을 넘어서 생활속의 수행이 되었다고 말한다.

김 원장의 정신적, 물적 지주인 친정 아버지 김창희(74) 이사장은 "딸이 혼자 복지시설을 꾸려간다는 게 너무 안쓰럽다"며,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노인복지라는게 딴 게 아니예요. 동네 어른, 외로운 노인 잘 모시는거죠."

김 이사장은 늘 딸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봉양하라고 강조한다. 아버지가 몸소 실천하니 끌인 김 원장도 친부모 이상으로 노인들을 공경하며, 날마다 새롭게 발심한다.

心 마음비추기

비교하는 마음 조복 받아야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을 때의 이야기이다.

옆자리에서 소주잔을 곁들여가며 식사를 하던 두 사람의 대화가 마음을 끌었다. 두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고 대화는 주로 그들의 신앙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그 중 한사람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상대에게 대부님이라고 칭하였다. 알다시피 천주교에서는 신입신도의 신앙심을 위해 고참신도 한 사람을 선정하여 맺어주고 관리하는데 이때 신입신도가 고참신도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대부이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중 특히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대부라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신앙심을 피력한 신입신도의 말이었다.

대부에게 신입신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대부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까닭을 묻자 상가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는 그는 종교를 갖지 않아도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준 일 없이 나름대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했다.

이젠 나이도 들고 허전한 감도 없지 않아 종교를 갖기로 마음먹고 친구를 따라 천주교에 입문을 했는데 신부님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으니 인간은 항상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실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본인이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자신보다 어렵게 살던 친구가 새 집을 장만하고 집들이를 하게 되었을 때였다고 한다.

아파트 벨을 누르자 친구가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자신의 눈이 친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새 집안을 훑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가 장만한 집이 생각했던 것 보다 큰 것을 보고 자신의 집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 비슷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순간 '아차, 이게 신부님이 말한 죄로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 했다.

사람들은 너나없이 비교하는 버릇을 가지고 산다. 이 때 비교는 대부분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주제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기도 하고 남들을 깔보거나 우러러보기도 한다. 사람들이 비교하는 버릇은 명함을 주고받는 첫 대면에서도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 형제 부모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심지어는 진실을 추구하는 종교 속에서도 이런 비교하는 버릇은 계속되는데 하다못해 절을 찾고 교회를 찾아도 크고 웅장한 곳이 작고 왜소한 곳보다 가피와 공덕이 있다고 믿는다.

살생과 도적질이 아니라도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법이다. 우월감과 열등감, 존경과 멸시 등 비교하는 버릇을 끊고 물질과 외향을 쫓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되비추어 보아 조복 받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죄 짓는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참회는 삶의 변화·거듭나게하는 길

업장소멸·깨달음 이르는 선행조건

공덕화(48 부산 영도구) 보살은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은 저절로 달라질텐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도박으로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잦은 불화를 일으킨 남편이 한없이 미웠고, 모든 것이 남편 탓인 것만 같았다. 괴로운 마음을 추스리려 몇 년을 절에 다녔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어느날 법문을 듣던 중, '상대를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임을 인정하는 것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법문이 들려왔어요. 늘 듣던 법문인데 그날따라 마치 망치에 얻어 맞은 것 같았죠."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고 굳게 믿으며 남편을 원망해온 스스로가 부끄러워 법회 내내 울었다. 남편을 향한 원망심과 증오심이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남편과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자, 남편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 공덕화 보살은 원망과 미움대신 남편이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부처님을 대하듯 존경과 사랑으로 남편을 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옥 같던 가정이 극락처럼 변했고, 이후 공덕화 보살에겐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인정할 때 꿈쩍도 안할 것 같던 환경도 바뀌고 도저히 안풀릴 것 같던 문제도 해결된다는 믿음이었다.

많은 불자들이 이처럼 참회를 통해 더욱 성실해진 남편, 가정에 충실한 아내, 마음 따뜻한 직장동료로 거듭난다. 마산 금강정토사에 가면 이와 같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는 불자들이 유독 많다. 금강경 독송, 108배, 1천배, 참선 등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금강정토사 불자들은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점검하는 참회가 자신은 물론, 주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금강정토사에는 가족 중 한사람이 불자가 되면 머지 않아 온 가족이 불자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마산 금강정토사 신도들이 일과 후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

참회는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일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직장 동료의 삶까지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금강정토사 주지 자원스님은 "매일 매일 치열한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참회"라며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참회를 통한 자기 변화"라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大韓佛教 曹洞宗

종정 尹智明(德瓚)

승정원장 : 韓春潭 **승정부원장 : 崔諸空**

문도회장:姜梵海 포교원장:金法空
총무원장:朴心月 교육원장:黃大隱
부 원 장:金日光 문화원장:宋慧淨
감찰원장:金正林 선 원 장:金大休
종회의장:林眞一 율 원 장:朴一松
종회부의장:禹海倫 호법원장:金大觀

총무부장 : 宋德性
사회부장 : 郭行旭
교무부장 : 劉光慧
재무부장 : 李法緣
규정부장 : 趙行修
사서실장 : 郭法輪
감찰부장 : 李正默
포교부장 : 許雲成

全國教區 宗務院
서 울 원 장 : 金德龍
경 기 원 장 : 洪晩悟
강원1원장 : 李滿慧
강원2원장 : 成慧泉
충 북 원 장 : 延大景
경 북 원 장 : 朴雲鶴
대 구 원 장 : 林德眞
경남중부원장 : 梁海日
경남서부원장 : 黃法光
울 산 원 장 : 朴海月
부 산 원 장 : 鄭德正

佛紀 2546年 10月 4日

大韓佛教曹洞宗 總務院長 朴心月(德潭) 전화 02)2062-0725 팩스 02)2062-0726

창건 1253주년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

괘불제(掛佛祭) 그리고 작은 음악회

● 일 시 : 불기2546년(2002년) 11월 9일(토) 오후 1시 ~ 8시
● 장 소 : 미황사 대웅보전 앞마당

Ⅰ. 괘불제 (오후1시)
- 괘불이운
- 괘불봉안
- 육법공양
- 헌공작법(바라춤, 나비춤)
- 법어

Ⅱ. 금강스님의 종문양 탁본전
"천년의 소리"
● 시 간 : 오후 3시
● 장 소 : 자하루

Ⅲ. 제3회 작은 음악회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
- 예불(종성,법고,예불문,반야심경)
- 창건서사시 낭송
- 이애주교수의 춤
- 전병주님의 대금연주(曲 미황사)
- 범능스님의 노래
- 범능스님과 땅끝마을 아이들이 함께하는 동요합창
- 자유작곡가 이원수님의 피아노 연주
- 박양희님의 노래(노래모임 '꼬두메')
- 정기영 할아버지의 판소리
- 해남 우수영 사람들의 부녀농요
- 땅끝마을 어머니들의 풍물
- 말원문

♣ 문의 : 061)533-3521 / mihwangsa.com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혜경스님의

경전 읽기



법화경 ⑰ 분별공덕품 제17

다섯가지 실천사항

기쁜 마음으로 '법화경' 수지·전법

부처님 멸도 후 '깨달음 이루는 길'

네 가지의 믿음에 대해 설한 부처님은 이어서 5품이라고 하는, 부처님 멸도 후의 다섯 가지 실천 사항과 그 공덕에 대해 설한다.

이 5품이란 초수희, 독송, 설법, 겸행6도, 정행6도의 다섯 가지 실천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의 실천은 부처님 멸도 후의 수행이므로 '멸후의 5품'이라 한다.

1) 초수희(初隨喜): "여래가 멸도한 후 만일 이 가르침을 듣고서 비방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수희심, 隨喜心)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참다운 신앙을 얻은 사람의 경지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이 〈법화경〉을 듣고 그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용하며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초수희'이다. 경에서 설하는 것을 듣고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확실히 그렇다"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를 '깊이 믿고 이해하는 경지'라고 한 것이다. 〈법화경〉 실천의 첫출발은, 〈법화경〉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2) 독송(讀誦): "하물며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간직하는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이런 사람은 곧 여래를 머리 위에 항상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 〈법화경〉을 이해하고 확신한다면, 경전을 읽고 외어 가르침을 뚜렷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공덕은 탑과 절을 건립하고 승방을 지어 승단에 공양함과 같기 때문에 현실로 탑을 세우거나 승방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설하는 것이다.

3) 설법(說法): "만일 여래가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듣고 받아들여 간직하며 혹은 쓰고 혹은 남을 시켜 쓰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이 사람은 승방을 세우되, …이로써 지금 나와 비구승을 공양함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여래가 멸도한 후에 만일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고 혹은 자신이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해 이 경전에 공양하면 탑과 절을 세우거나 승방을 지어 스님들께 공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경전을 독송하고 그것을 마음 속에 뚜렷이 간직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시켜 쓰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해야 한다. 이것이 '설법'이며 자신의 실천 수행임과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 실천 수행의 공덕은 앞의 '독송' 공덕보다 더욱 커서 서른 두 개의 전당에 높이가 8다라수가 되는 갖가지 시설을 완전히 갖춘 절을 짓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한다.

4) 겸행6도(兼行六度): 6도란 6바라밀을 말하며 6바라밀의 수행을 겸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하물며 이 가르침을 간직하고 겸하여 보시·지계·인욕·정진·일심·지혜를 행한다면, 그 공덕은 가장 높아 무량 무변할 것이다."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보살 수행으로서 6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즉 앞의 네 가지 믿음 가운데 '일념신해'에서는 〈법화경〉을 잠깐만이라도 믿고 이해하면 5바라밀을 실천한 것보다 그 공덕이 크지만 반야바라밀은 제외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야바라밀을 더한 6바라밀의 수행을 말한다.

5) 정행6도(正行六度): '겸행6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5종 법사인 수지·독·송·해설·서사를 실천하면서 6바라밀의 수행을 중심으로 실천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받아들여 깊이 간직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설하며 자기도 쓰고 남에게도 쓰도록 시킬 뿐만 아니라…, 〈법화경〉의 깊은 뜻을 바르게 해설하고 또 자신의 몸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계율을 지켜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결합하여 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뜻이 굳건해 항상 좌선을 즐겨 여러 가지 깊은 정신 통일의 경지에 도달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배워 두뇌가 명석하여 지혜를 구하되 어려운 질문에도 바르게 대답하리라." 이와 같이 〈법화경〉을 실천 정진하는 사람은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사람이라고 설한다.

이상이 '멸후의 5품'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 부처님의 뒤를 이어 〈법화경〉을 수지하고 널리 펴는 실천 수행과 그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공덕을 바탕으로 하여 설한 것이다.

여기까지 말한 4신과 5품은 〈법화경〉의 실천이론을 설한 것으로서 중국의 천태에서는 이것을 수행의 단계에 10신·10주·10행·10회향·10지·등각·묘각의 52위설을 채용하고 있다.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⑱

보존과학과 불심회복

첨단과학 분야 가운데 엑스선, 적외선 및 현미경 등을 이용해 문화재의 손상상태를 분석하고 화학 및 고분자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담당하는 '보존과학'이란 분야가 있다. 이 분야 종사자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것을 보지 않으며, 구도자처럼 마음을 맑게 유지하여 보존처리에 몰두한다고 한다. 사실 이런 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고려인들의 순수한 불심이 담긴 수월관음도가 복원될 수 있었다.

불교계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불심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 그런데 간혹 이상한 방향에서 잃어버린 '불심'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때가 있다. 얼마전 법주사에서 대불(大佛) 불사를 하더니 해인사도 43m(13층 아파트 높이)의 불상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인사 측은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수련원, 영상 포교실 등을 함께 조성해 재가자들의 부족했던 수행 공간을 늘리면서, 신앙의 중심으로서 대불을 조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해인사는 '이곳에 대불을 조성하면 국운이 열리고 민족이 화합하고 국민이 평안할 것이라는 몇몇 큰스님들의 유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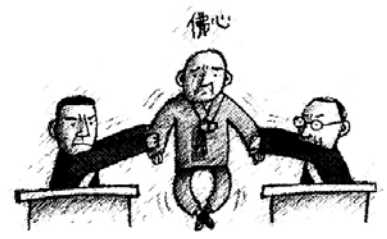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부처님 향한 마음'은 형상과 무관

순수한 '불심 회복'이 곧 화두 타파

본래 불상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제자들이 그분을 기리기 위한 일환으로, 2세기 초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방에서 처음 제작된 것으로 '불심(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깊이의 문제이지 불상의 크기와 관련지을 일은 결코 아니다.

한편 요새 대선을 앞둔 정치계는 이상한 '불심'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신문 홈페이지에서 '불심'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본래의 '불심'에 관한 기사는 별로 없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심 잡기' 기사만 잔뜩 찾을 수 있다. 지난 일년간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평소에는 가만있다가 큰 행사 때만 되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왕 이런 자리에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면 정신적인 스승들의 좋은 법문을 가슴깊이 새기고 돌아와,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사심 없이 인내하며 실천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 스승들이 해야할 다음과 같은 좋은 법문들까지 하고 오니 내친 김에 이분들이 아예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나서는 것도 불교계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하는 말은 '갈등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상생과 일체의 세상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할 것', '병원에서는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의술로써, 정치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기업인은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각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자' 등이다.

끝으로 '불심'과 관련하여 간화선의 원류인 오조법연(1104년 입적) 선사께서 제창한 〈무문관〉 36칙의 '노봉달도(路逢達道)' 화두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오조 선사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달도인(達道人: 선의 스승)을 만나거든 말이나 침묵으로 대하지 말라. 자! 일러 보아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무분별의 지혜가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순수한 '불심'을 회복(체득體得)할 때 이 화두의 경계는 비로소 자명하리라!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㉚

禪과 21세기

작용과 하나되어라

'한 물건'도 없으니, 평상시 마음이 바로 道

여러 곳에서,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며,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곧 이런 부류의 들여우·도깨비를 믿고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결박하고는, '이치와 행동이 서로 응하고 3업을 다스려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랑비처럼 많다. 옛 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약 사람이 도를 닦는다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기 이전의 어둠 그대로가 곧 밝음이다'라고 한다. 그 까닭에 옛 사람은, '평상시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잘못된 공부의 대표적인 형태는 의식적 조작을 통하여 어떤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부가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관심과 노력은 어떤 부자연스런 상황을 조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왜곡되어 있었던 정신구조를 자연스럽게 바로잡는 관심과 노력이어야 한다.

공부를 한다는 행위에서 관심과 노력은 기본적으로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발심에서 이미 의도적인 면이 있고, 공부를 하는 노력에 이미 조작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작해 가기만 해서는 타고난 본성을 깨닫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깨달음이란 본성을 일깨워서 본성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각(自覺)하도록 하는 일이다. 공부는 유위행(有爲行)이 아니라 무위행(無爲行)에 의해서만 완성된다. 본성 스스로가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사실은 본성은 항상 깨어 있지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변화하는 의식(意識)이라는 현상에 눈길을 빼앗겨서 본성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눈(眼)이 보이는 대상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러한 대상을 보게 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없는 것과 같다.

눈이 보이는 대상 위에서 자신을 찾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성이 나타나는 의식 위에서 자신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현묘한 이치나 그럴듯한 문자나 황홀한 느낌이나 뛰어난 육체적 능력 등을 추구하는 것을 본성을 찾는 공부라고 여긴다면, 그야말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의식의 조작품으로서 본성 스스로가 비추어내면서도 또 스스로 끄달려가는 신기루 같은 허깨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이 바깥의 사물을 볼 수 있을 뿐 스스로를 보지는 못하는 것처럼, 본성도 의식을 알 수 있을 뿐 스스로를 알지는 못한다. 그렇긴 하지만 눈이 스스로를 깨닫는 길이 바깥의 사물을 보는 행위를 통하는 것뿐인 것처럼, 본성도 스스로를 깨닫는 길이 의식이라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는 것뿐이다.

눈은 대상을 바라보되 보이는 대상만을 보고 대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고 있는 자신 즉 본다는 작용 그 자체를 자각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가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본성도 의식의 세계를 경험하되 경험되는 세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변함 없이 바탕이 되는 작용 그 자체가 되어서 다만 그렇게 작용할 뿐일 때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 매주 수.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 정 화) http://www.mindfree.net/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조 실 진 제
주 지 지 성
부주지 선 봉
총무 진담 기획 법륜 교무 선문
재무 상원 사회 덕현 포교 진오
호법 교경
승가대학 강주 해월 금당선원 선원장 지환
外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전화 053)982-0101~2 팩스 053)985-4405
* 지난호(390호) 게재된 현대불교 창간 8주년 동화사 광고 중 '종정'은 '조실'의 오식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독자여러분께 혼란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건봉사
주지 정영도
신도일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26
전화 033)682-8100
팩스 033)682-5994

대한불교 조계종 만월산 용연사
주지 자 월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193번지
전화 033)647-1234/647-5781
팩스 033)647-5782

사자산적멸보궁 법흥사
주지 도 완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전화 033)374-9178
팩스 033)374-9176

大韓佛教 曹洞宗 宗正院 청련사
宗正 尹智明 德瓚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
전화 : 02)379-3935
02)719-7636
FAX : 02)379-6938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치악산 구룡사
원주불교대학
주지 자광 이원행
■ 강원도 원주시 서초면 학곡리1029
전화 033)732-4800~3
팩스 033)732-1211

머구리 회집
주지 최만집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182-2번지
전화 033)652-2591

"염불만 열심히 해도 성불"

정토학회 '염불신행방법론' 주제로 학술대회

법산스님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 염해야

보광스님 염불과 선 수행 결합한 '염불선' 제시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인 〈무량수경〉에서는 "누구든지 일심(一心)으로 염불하면 극락 세계에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다. 실제로도 불자들의 신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염불이다. 하지만 그저 열심히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이 대부분일 뿐 염불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정토학회(회장 강동균 · 동아대 교수 · 사진)는 12일 '염불신행방법론'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토신행의 한 형태로서 신앙적 측면에서만 다뤄져 온 염불을 학문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염불 신행의 이론적 토대를 갖추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첫번째 질문은, 염불이라는 타력 신앙을 통해서도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모아졌다.

강동균 교수는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화엄경〉 '십지품'의 주석서인 〈십주비바사론〉에서 용수가 말한 "만약 사람이 일심으로 그 명호를 칭하면 즉 아뇩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을 얻는다"라는 구절을 예로 들며 "아무리 노력해도,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위치인 불퇴전(不退轉)으로 나아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염불을 통해 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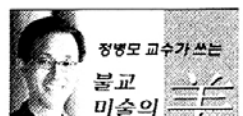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보다 적극적이다. 태원 스님은 "성불하는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염불 수행이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한 수행법으로, 성불하는 지름길이라 본다"고 밝혔다. 깨달은 부처님의 생각에 몰입하는 수행자는 자기 스스로 깨치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국 부처의 지위에 오르려는 수행을 통해 그 경지를 성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불 수행의 종류는 다양하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원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불 ·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이 가장 일반적. 하지만 법산 스님은 "입으로만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마음에 관하는 관념(觀念)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원력이 마음에 충만하여 입으로 명호를 부르고 마음으로 관하여, 마음이 부처님을 염하고 또 염해서 심즉시불, 불즉시심의 경지에 이르면 곧 성불로써 정토가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원 스님 역시 "어떤 염불이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깨달아 불퇴전에 오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원 스님은 "현재 목적은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지만 정토에 왕생한 후의 목적은 아미타불의 법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데 있다"며 "염불 수행자는 먼저 귀의하는 마음을 갖고 '나무○○불' 또는 '나무○○보살'이라고 갖추어 불러야만 일체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력적인 선 수행과 타력적인 염불 수행을 병행한 '염불선'의 수행방법에 대해 발표한 보광 스님은 "간화선 일변도인 한국의 수행 풍토에서 염불선은 새로운 수행방법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3)

바다의 관음 · 산의 관음

관음보살 응신, 바다보다 산에서 찾아

조선때 새 형식 등장… 산수화의 영향

우리 나라 3대 관음성지는 낙산사 · 보리암 · 보문사이다. 이들 성지는 모두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의 관음성지인 닝보우(寧波)의 보타산(補陀山)도 이름만 산이지 실제로 가보면 바닷가의 언덕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있어 관음보살은 바다를 배경으로 영험을 주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다가 아니라 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관음의 이미지가 있다. 당나라 스님 현장(玄奘)이 쓴 〈대당서역기〉에 묘사된 보타낙가산(布呾洛迦山)을 보배처럼 장식하였다. 특히, 수월관음도의 배경이 되는 암반은 거의 이곽파 화풍으로 표현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이 화풍의 유행은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15세기에는 안견을 비롯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이 화풍을 즐겨 구사하였다. 1550년에 제작된 이 불화도 역시 이곽파 화풍으로 묘사되었다. 산의 위용이 앞 시기에 비해 다소 약화되고 대신 산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변화를 보였다. 그래도 아직 위용이 남아 있는 산 속에는 32응신 가운데 22응신의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이 장면들은 법화경 보문품이나 능엄경에 근거하였을 텐데 아직 확실치는 않다. 관음보살이 산 속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뭐 그리 대수겠냐만은 조선초기 사람들은 관음보살과 그 응신이 바다보다는 산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경향은 이 불화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에 제작된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 수월관음도, 지온인 소장 오백나한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초기 불화에 산의 관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경전과 더불어 당시에 유행한 산수화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도갑사 관음32응신도(이자실, 1550년, 비단에 채색, 235×135㎝,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원측, 현장 강의 도청" 근거없다

남무희 씨, 자은학파의 '도청설' 이의제기

〈송고승전〉의 〈원측전〉과 〈규기전〉에 실린 '도청설(盜聽說)'은 '근거 없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주장이 한 소장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남무희(국민대 철학과 강사)씨는 12일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68회 정기발표회에서 "열 아홉 살이라는 원측과 규기의 나이 차를 생각해 볼 때 원측이 현장의 강의를 도청했다는 도청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라 원측의 생애 복원과 그의 정치적 입장'을 발표한 남 씨는 〈대주서명사 고대덕원측사 불사리탑명배서〉 등 원측과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해 그의 생애를 복원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

남 씨에 따르면, 신라 원측(613~696)이 당 현장의 강의를 도청했다고 하는 시기는 원측이 36살 무렵. 현장은 당시 17살이었던 규기(632~682)

당시 원측 유식학 정통, 규기는 배울 때

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33세 무렵 인도에서 돌아온 현장을 처음 만난 원측은 이때 이미 유식학에 정통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 씨는 "원측이 도청했다고 하는 시기에 규기는 학문을 수학하는 시기였고, 원측은 이미 유식학에 정통해 있었다"며 "규기 계열이 자신들을 정통으로 내세우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도청설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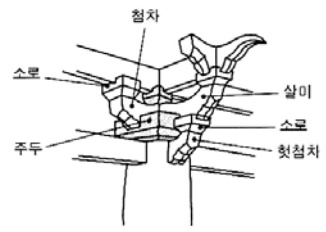
한편 현장은 자신이 세운 서명사의 대덕으로 원측을 임명하는데, 46살이었던 원측은 이때부터 〈성유식론소〉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긴다. 반면 23살 때부터 범어를 배우기 시작한 규기는 25살(원측은 44살)이 되었어야 현장의 역경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원측이 각종 저서를 내놓을 때에도 규기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말이다.

도청설은 당나라에서 돌아온 현장이 인도에서 배운 유식론을 제자인 규기에게 강의할 때 신라 원측 스님이 몰래 엿듣고 강의가 끝날 무렵 서명사에서 규기보다 먼저 유식론을 강의했다는 내용. 중국 유식학의 양대 학파 중 규기를 중심으로 한 자은학파가 원측의 서명학파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가 되어 왔다.

"고건축 용어 쉽게 정리돼야"

학자 · 목수마다 달라 고건축 대중화 장벽

용어 정리 위한 종합 · 체계적 연구 필요



◇공포의 구조와 세부 명칭.

김도경 박사 주장

전통 건축물의 기둥 위에는 '공포'라는 것이 있다. 지붕의 무게를 분산해서 기둥에 전달하는 공포는 장식적 측면에서도 뛰어나지만, 건물의 형식이나 시대를 구분하는 데도 결정적 요소다.

하지만 웬만큼 사찰 답사를 다닌 사람도 헷갈리는 것이 또한 공포 용어다. 일반적인 분류 방식인 주심포, 다포 정도야 이해한다 해도 살미, 첨차, 행공 등 구체적 설명에 이르면 감조차 잡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 열린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김도경 박사(헤라시아 문화연구소)는 이 문제에 대해 "공포 용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학계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탓이 더 크다"며 "연구자들의 쉬운 접근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용어라도 쉽게 재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용어의 혼란은 기존에 없던 용어를 새로 만들 때 가장 심각하다. 국내에 남아 있는 건축 관련 문헌 자료는 〈화성성역의궤〉 등 조선시대 후기 기록들. 조선시대 건축물에는 없는 부재가 고려시대 건축물에 있을 경우 용어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자의적으로 신조어(新造語)를 남발한 결과 오히려 공포 연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덕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는 '헛첨차'란 용어다. 기둥의 앞뒤로 끼여 있는 이 부재를 일반적으로 헛첨차라 부른다. 하지만 첨차는 도리(기둥을 좌우로 연결) 방향으로 쓰인 부재에 붙이는 이름. 이처럼 보(기둥을 앞뒤로 연결) 방향으로 쓰인 부재는 '살미'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다면 '헛살미'가 타당하다. (그림 참고) 〈화성성역의궤〉에는 공포 부재 그림이 있고 용어가 나오는데,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태만 비슷하면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김 박사는 "목수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공포 용어의 정리는 개인적인 연구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부재 용어의 정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수원 포교당

주 지 성관 스님
선원장 금산 스님
총 무 도헌 스님
교 무 산성 스님
기 획 도림 스님

대중일동

■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전화 : 031)245-9670~2
팩스 : 031)244-8562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현 지

임원 스님 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
전화 : 062)376-3223
팩스 : 062)376-3224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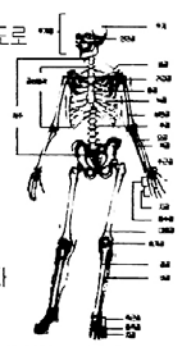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詩心 그윽한 禪의 향기

계곡에 나가 나의 발을 씻고
산을 보고 나의 눈을 맑히며.
부질없이 영욕을 꿈꾸는 일 없으니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랴.
臨溪濯我足 看山清我目
不夢閒榮辱 此外更何求

푸른 눈이 청산과 마주하니
그 사이에 티끌을 허용치 않고
자연의 청정함이 골수에 이르나
다시 어찌 열반을 구하리오.
碧眼對青山 塵不容其間
自然清到骨 何更覓涅槃

고려 진각혜심眞覺慧諶 선사의 '유산遊山' 이란 제목의 5언 절구다. 산하대지는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뭇 생명을 걸림없이 청화시켜 주고 있다. 자연에 순응한다면 우리도 자연대로 맑고 깨끗하여지리라. p68

역시 진각혜심선사의 '선당시중禪堂示衆' 이다. 대자연의 품안에 안겨 그 섭리에 따라 우주 법계의 진리를 좇는다면 다시 더 구할 것이 없도록 만족이 게 있으련만. 영화榮華를 구하여 덧없는 공속에 헤매면서 처음 속에 빠지기 때문에 지옥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p69


◇달공 조홍식 거사.

달공(達空)거사' 로 더 잘 알려진 조홍식 거사(82세).

그가 최근 펴낸 〈선심시심禪心詩心〉에는 재가불자로서 오랫동안 수행해 온 그만의 향기가 배어난다.

부처님과 조사들은 깨달음에는 재가도 없고 출가도 없으며 오르지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신심만 있다고 하였던가. 달공거사는 구산스님, 송담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30년 넘게 수행해 온 재가 불교의 산 증인이다. 서울불입회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 참여불교재가연대 고문 등을 맡고 있으며,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불문학(佛文學)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학자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5시부터 1시간 동안 요가를 하고, 시간만 나면 '이뭣꼬' 화두를 들고 화선에 드는 달공거사. 1986년 정년퇴임 이후 본격적인 수행에 매진한 달공거사는 법련사 철야정진은 물론, 공주 갑사, 무문관 등 전국의 이름난 수행처를 찾아 가행정진을 계속했다.

선심시심



선사들 어록 현실생활에 맞춰 재해석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 선시 통해 꿰뚫어

이 책은 그런 그가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월간 〈불광〉에 '선심시심' 의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주로 선사(禪師)들의 어록을 풀이하고, 거기에 오늘의 상황을 반영하여 재해석했다. 10여년 전에 쓰여진 것들인데도 지금 읽어도 오늘의 우리 현실에 그대로 거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무문관 · 낮닭 우는 소리에 깨치다 · 공명의 저 언덕 · 비 그치니 산은 더 맑고 · 일 없는 도인 등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달공거사 자신이 직접 부딪친 수행의 문제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찾은 깨달음, 문화재에 대한 사랑, 선사들의 가르침과 숨겨진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에, 읽는 재미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한편 읽어가다 보면, 불문학자의 유려한 문체에 해박한 지식과 삶에 대한 통찰력 까지를 고스란히 전수받을 수 있다.

"나 자신처럼 깊을 헤매는 이들을 위하여, 선각자들은 일찍이 그 길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 책이 그런 길잡이의 구실을 얼마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한편 달공거사의 불교와 인생이야기 〈달처럼 대화처럼〉(도피안사 刊, 9천원)도 함께 발간됐다. (도피안사 刊, 8천원) 이은자 기자 eleej@buddhapia.com

신간소개

별을 보면 법을 보고…



천문학 박사인 서울대 이시우 교수가 펴냈다. 제1장 '우주와 법계' 에서는 천문학의 내용과 자연의 이법을 대비해 살펴보았으며, 제2장 '법계의 이해' 에서는 앞의 단원에 나오는 주요 용어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신구문화사 刊, 1만원〉

시마, 저주받은…

'시마詩魔' 란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쓰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시적 영감을 말한다. 당나라 때 시인 백낙천이 처음 사용한 이래 숱한 문장 속에서 그 함의의 양상을 달리하면서 이어져 왔다. 이 책은 우리 옛 글속에 담겨 있는 시마의 의미를 찾아 고전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인 김풍기씨가 펴냈다. 〈아침이슬 刊, 1만2천5백원〉



1차로 유가 · 묵가 · 도가 · 주역 4권



신세대를 위한 동양사상 새로 읽기

진보적 재야 동양철학자인 묵점 기세춘씨가 '신세대를 위한 동양사상 새로 읽기' 시리즈 7권 중 1차로 4권을 펴냈다.

유가(儒家)사상을 집대성한 〈제1권 공자는 왜 소정묘를 죽였는가〉를 비롯해 묵가(墨家)사상을 정리한 〈제2권 인류 최초의 반전 평화운동가는 왕이족의 묵수철학자—묵가〉, 도가(道家)사상을 정리한 〈제3권 일곱 번째 구멍을 뚫으면 도가 죽는 까닭—도가〉, 주역 64괘를 번역하고 시로 옮긴 〈제4권 고을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는다〉 등이 그것이다.

동양고전에 관심 있는 이들과 특히 한글세대인 신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양고전의 진수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핵심을 짚어주는 간명한 해설을 붙여 읽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 기씨는 그동안 거침없는 혀설,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 날카로운 풍자로 고전강의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는 찬사를 들으며 KBS와 EBS TV에서 '논어이야기' 와 '노자와 21세기' 강의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 EBS에서 강의하고 있는 도올 김용옥의 '논어' 와 '노자' 강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대립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도올의 명점과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화남 刊, 각권 1만3천원〉 이은자 기자

추사와 그의 시대

당대 지식인들 사상 사회적 상황 등 담아



〈추사와 그의 시대〉는 대외적인 격변기에 조선사회를 이끌면 추사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의 사상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추사와 그 시대의 정황을 분석하고, 농촌 경제의 변동을 정리하고 있으며, 추사의 역학사상을 분석했다. 또한 추사의 학문과 청조 학술과의 관계를 살피고 있으며, 추사 그림에서 법고 정신을 고찰하고 추사 일문의 사군자화를 분석하고 있다.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인 정병삼(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유봉학(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이세영(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지두환(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강관식(한성대 회화과 교수), 방병선(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민식(극동대 강사, 정재훈(서울대 강사 씨 등이 참여했다. 〈돌베개 刊, 1만6천원〉

해외불서

성 베네딕트의 율법



베네딕트회를 창시한 성 베네딕트Saint Benedict(480-543)의 율법은 6세기 이래 가톨릭 수도원의 일상생활을 규정한 규범이었다. 다양한 종교, 특히 가톨릭과 은밀한 교류가 있었던 불교의 계율 역시, 등 시대의 사원과 승려들의 삶을 제한하는 규범이었다.

〈성 베네딕트의 율법(Benedict's Dharma)〉에서 노먼 피처, 조셉 골드스타인, 쥬디트 짐머 브라운, 이파 등 네 명의 뛰어난 불교학자들은 '종교의 규범' 이라는 독창적인 주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치밀한 분석과 역사적 일화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은 불교사원 및 가톨릭 수도원의 지혜를 관통하는 조망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의 결론은 어떠한 종교적 전통도 유사한 계율 또는 율법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패이트릭 헨리(Patrick Henry) 엮음, Riverhead Books 출판.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마음공부에 도움될 책 2권

달라이라마의 마음공부

달라이 라마는 열여섯 살에 조국의 자유를 잃었고, 스물다섯에 조국을 떠났으며, 이후 40여 년 동안 티베트 독립운동을 하는 망명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결코 평온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달라이 라마는 언제나 미소 띤 얼굴과 열린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걸까?

'분노를 사랑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이기심을 자비심으로 바꾸는 마음수련법' 이란 부제가 달린 〈달라이라마의 마음공부〉는 1999년 8월 달라이 라마가 뉴욕에서 대중에게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불교의 수련 방법' 을 주제로 한 이 강연에서 달라이라마는 8세기 인도 성자 카말라쉴라의 〈명상의 중간 길이 단계들〉, 14세기 티베트 수행자 쵸그메 이 상포의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련법〉이라는 책과 11세기 티베트 성자 랑그리 탕파의 '마음공부에 대한 여덟 구절' 을 바탕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전하고 있다. 〈해냄 刊, 8천5백원〉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

틱낫한 스님이 이끄는 프랑스 플럼 빌리지에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학교' 가 있다. 여기서는 1년동안 '깊이 들여다보기' 라는 과목만 가르친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게 되며 더불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서로의 맺힌 매듭을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책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는 이처럼 스님이 명상센터를 이끌며 겪었던 일들과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 , '마음밭 가꾸기' 라는 주제에 대해 한층 더 무르익은 가르침을 전한다.

"지금 이 순간을 최고로 멋진 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쁜 일상의 흐름을 멈춤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스님은 '멈춤' 의 의식을 통해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꾸는 들 刊, 8천5백원〉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금강경(다름다운우리말경전1)	우룡스님	효 림
3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4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불광출판사
5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6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7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8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문서원
9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10	선가구감	청허스님	효 림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02-722-4162 팩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안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 (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보 제 119호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 고구려 안원왕 9년(539). 총 높이 16.2㎝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1

불상 통해 미술사 바로 보기

탑파 · 동종 · 부도 · 탑비도 광범연구
불교미술 관련 이념 배경, 역사 밝혀

"우리가 어느 절에서나 반드시 만나보고 어느 박물관에 가더라도 쉽게 마주치는 불상은 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차례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를 바로 보는 첫 걸음이다."

올해 화갑을 맞은 간송미술관 최완수 연구실장은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1〉의 집필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최 연구실장은 열 살 때 집안의 원찰이었던 충청남도 예산군 가야산 보덕사에서 부처님을 처음 보았다. 극락전에 독존(獨尊)으로 모셔져 있는 '아미타여래좌상'이었는데, 황금빛 나는 인물상의 잘생긴 모습에 반하여 유심히 살펴보니 얼굴은 마음에 드는데 머리가 이상했다. 마치 사발 하나를 엎어 놓은 것 같은 이상한 머리에 대해 스님에게 물었더니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서 6년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 그때 보리수 열매가 머리 위에 떨어져 쌓여 저런 모습이 되었다고 전해온다"고 말해 주었다. 최 실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건 아닐텐데' 하는 아쉬움과 의문이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게 되었고, 그것을 밝혀 보겠다는 묘한 지적 호기심은 서울대 사학과 진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어느 전문 학자에게서도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 규명에 나선다.

이 책은 최 실장이 40년 넘게 몸 바쳐 온 불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불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 거기에 반영된 우리 역사의 전개과정과 우리 불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불교미술의 중심인 불상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지만 탑파나 동종, 부도, 탑비 등 불교미술 전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언급하였고, 그와 관련된 이념 배경이나 역사적 사실을 가능한 밝혀놓았다.

제1부 '불상의 기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이후 약 600년 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부처님의 모습이, 간다라 지역에서 출현하게 된 이유와 점차 예배의 대상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2부 '비단길을 따라, 중국'에서는 처음부터 불상을 예배대상으로 삼은 중국 불교의 기원에서부터, 인도풍 불상에서 탈피해 점차 황인종 용모로 옮아가게 되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불상의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 소개한다. 제3부 '법수는 동쪽으로 흐르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처음 전래된 불상은 중국에서 양식화 되었던 간다라식 불상이었으며 그것을 조본(祖本)으로 하여 이후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고구려와 신라, 백제 불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 책은 EBS에서 2000년 9월부터 1년간 매주 1회씩 46회에 걸쳐 방송된 강의와, 비슷한 내용으로 1999년 7월부터 신동아에 연재된 '최완수의 우리 문화 바로보기' 30회 중 8회분을 모아 출간한 것이다. 〈대원사 刊, 2만8천원〉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헤르만 헤세 모든 시작은 신비롭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라"

헤세 '평전' … 생애와 작품세계 규명



헤르만 헤세(1877~1962).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어권 작가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그의 작품에 열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헤르만 헤세-모든 시작은 신비롭다〉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이다. 헤세의 일생과 사상뿐만 아니라 작품의 해설을 곁들인 본격 평전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간되는 헤르만 헤세의 평전이다.

이 책은 헤세의 작품이 그의 생애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의 정신적 성장과정과 작품의 발전과정이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헤세의 생애를 이해하는 과정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동양적인 사상에 대한 깊은 통찰, 자연친화적인 사상, 모든 종류의 억압에 대한 저항 정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 등을 헤세의 작품에서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평화의 수호자, 환경 운동가, 참된 종교인 등 헤세의 모습을 재조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바로 그렇게 살려고 했을 뿐이다."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자가 자신이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 고뇌하고 방황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는 묵시적인 울림이 이 책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인생살이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은 타인의 견해나 성인의 말씀, 이를테면 헤세의 삶의 자취나 그의 말과 글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신비스런 힘이고, 그 힘을 신뢰할 때 각자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알로이스 프린츠는 바로 이 점이 헤세의 작품이 여전히 사랑받는 중요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더북 刊, 1만5천원〉

이은자 기자

우주! 어떻게 생겨나 어디로 가는가

전문가 서평

팽팽하게 긴장된 수평을 유지한 채 흔들리지 않는 수평 막대저울이 있다고 치자.

(▲) 이런 수평관계에서 왼쪽에 아주 작은 먼지라도 쌓이면 막대는 그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얼른 오른쪽에 그 먼지 질량에 해당하는 추를 얹어놓아 수평을 유지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웠는지 다시 오른쪽이 기울게 되었다. 또 다시 왼쪽에 적당한 크기의 추를 올려놓아 수평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수평막대는 계속 아래위로 움직이겠지만 여전히 그 수평을 깨지는 않고 있다. 즉 한쪽 막대가 땅에 닿지 않는 한, 수평막대가 계속 흔들거려도 수평은 수평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수평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는 수평과 후자처럼 조금씩 요동이 있지만 여전히 수평을 유지하는 흔들리는 수평이다. 전자의 수평을 우리는 무(無)에 유비할 수 있다. 일체의 흔들림이 없던 무의 수평은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외부 간섭으로부터 시작되는 요동에 의해 양쪽 수평막대 끝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발생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수평막대의 위아래 요동은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곧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교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동하지만 일시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는 한쪽 끝에서 볼 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서로 교환이 된다. 쉽게 말해서 합이 영(0)이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일단 발생했다는 점에서 에너지는 요동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무한히 늘어만 간다. 다른 쪽 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한쪽 수평막대가 한번 진동하면서도 아슬아슬한 수평을 유지한다면 무에서부터 수사적인 차원에서 4배수의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한쪽 끝의 양의 위치에너지는 비록 가상적 혹은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쪽 끝의 음의 위치 에너지를 수반한다. 음의 에너지는 실제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전체로 보면 에너지의 합이 영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상은 이 책 전반에 흐르는 무에 관한 사유구조를 수평 막대저울이라는 단순한 이야기로 바꾸어 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우주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130억 년 전 오늘과 같은 우주 탄생을 가져다 준 빅뱅은 거의 무와 같은 존재인 최초의 알갱이로부터 터졌을 것이다. 이 책을 잘 읽으면 그것은 무에서 유가 탄생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보이지 않는 유에서 보이는 유로 전환되는 사건일 뿐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를 무라고 말할 뿐이다. 보이는(혹은 보일 수 있는) 유는 보이지 않는 유에 의해서 상쇄되며 따라서 우리는 그 에너지의 합이 영으로 보존된다고 말한다. 무는 이러한 보존성을 일러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미래의 우주가 더 커질지 아니면 작아질지를 결정하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물체가 어느 일정 거리 안으로 서로 붙어 있으면 그들 사이의 인력 때문에 멀커덕 붙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일정 거리 밖에 놓이면 이내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주 물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결국 우주는 축소할 것이고 성기게 퍼져 있으면 우주는 팽창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에 속한다. 이런 상식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우주물질들 즉 암흑물질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으며, 비록 중력효과만을 갖는 암흑물질은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추론한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유라고 하는 것은 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는 추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연구주제인 중성미자가 바로 암흑물질의 강한 후보임을 고려할 때 무에 대한 경험적 접근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논리학에서는 여자와 남자 혹은 A와 -A는 모순관계이면서 동시에 보집합의 관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주계에서 무와 유는 모순관계가 아니라 포섭적 전환관계이다. 이 점은 이 책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며, 동시에 저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주의 형상이다. 그 안에는 무가 유를 낳지만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것이 아니며, 보이는 유는 무의 한 단편이라는 생각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불교를 좀 아는 이들이 이 책의 이런 전개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심장박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입자물리학과 우주물리학의 내용이 범어의 수나에서 용수의 중론에까지, 화엄경에서 구사론까지, 하다 못해 송대의 벽암론이나 도가사상에 이르는 일련의 빔(空, 無)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 유사성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에 빠져버리면 우리 현대 불교 또한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 왜냐고? 책의 저자가 9장에서 말한 부분을 따오자. "불교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물리학의 주요 관심사는 관찰대상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유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읽을 만한 책이었다.

■최종덕/ 상지대 교수(과학철학)

우주의 구멍



우주계의 유와 무는 포섭적 전환관계
입자물리학 내용 불교의 '空'과 흡사

〈우주의 구멍〉은 철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논제인, 0(無, zero)의 신비를 규명해 온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책이다. '없음'의 수학적 표현인 0의 역사를 더듬어감으로써 무, 0,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초끈이론 등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 제기한 끝없는 이론의 행렬을 한자리에 모아 매력적인 0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해냄 刊, 1만5천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남전 잡아함경, 쌍윳따니까야를 아십니까?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는 화두에 대해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답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역사적인 부처님의 원음(原音) 가르침
한권으로 읽는 쌍윳따니까야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주요목차 소개〉
- 삶이 덧없고 목숨은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깨달은 이는 특별한 말을 사용합니까 일상용어를 사용합니까
-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 사회적인 부의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보아야합니까
- 딸이 태어나면 실망해야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 권력에 도취한 삶과 바른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길입니까
- 수행을 닦는데 성적 차별이 장애일 수 있습니까
- 지옥으로 이끌지 않는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깨달음을 이른 분 말씀하시길 주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종교가 달라 적대감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무례한 말로 모욕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과의 합일을 원하는 종교와 불교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 탐욕과 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 약자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는 옳은 길입니까
- 왜 존재를 뛰어 넘어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까
- 불교적 인과론이란 연기의 일반법칙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 어떻게 생노병사의 세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 이 세상은 어떻게 생성하고 소멸하는가
-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까
- 올바른 수행자가 되려면 무엇을 두루 알아야 합니까
- 세계에 대한 견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무지한 자가 깨달은 자라고 자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깨달기 전에 부처님의 궁극적인 의문은 무엇이었습니까
- 바다보다 많이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 다인을 방문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해탈한 수행승에게도 아직과 환대와 영성이 장애입니까
- 수행자가 여인을 방문할 때 동가집을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 나의 내 것이라는 교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 겁벗이 든 수행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 출로 떨어져 수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입니까
- 몸은 병들어도 어떻게 하면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까
- 누가 묻는다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 해야 합니까
- 시간의 이아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삶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 끊임는 추론과 해아림은 어디에서 옵니까
- 수행승들이 말씀을 부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 제자의 죽음 앞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 시대를 진지하게 성찰할 때 의미란 무엇입니까
-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들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 일체의 세계란 무엇이며 경험 밖의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 수행자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세에서 유익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부처님께서 새로기 수행승에게 병문안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 사람이 감각되고 인식될 때에 나는 그 가운데 있습니까
- 베다(天啓書)에 정통한 자의 참다운 뜻은 무엇입니까
- 귀부인의 오만한 초대에 수행승은 어떻게 응했습니까
- 거센 파도와 소용돌이가 있는 인간의 바다란 무엇입니까
- 주관과 객관 그리고 욕망의 관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 부처님께서 피곤하셨을 때에 어떻게 법문을 하셨습니까
- 어떻게 우리가 신들의 밧줄과 악마의 밧줄에 묶입니까
- 여성이 겪어야하는 고통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 여성이 지닌 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인가
- 열반이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방도는 있는가
- 재가생활에서도 탁월한 앎과 봄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 적을 죽이는 성스러운 전쟁은 정당한 것입니까
- 단지 하늘나라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제사는 옳은 일입니까
- 수행자가 보석과 황금을 수용해도 좋습니까
- 숙명론적인 업의 이론에서 윤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윤회에 대해 이교의 스승과 부처님은 어떻게 달리 말합니까
- 흠잡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 불사(不死)의 참뜻과 그 불사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 윤정도, 윤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 모든 수행의 근본은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병드셨을 때에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 청선은 집대적인가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되는가
- '나는 우월하다'는 자만이외에 또 다른 자만은 무엇인가
-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 습관과 비탄을 뛰어넘는 해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최후의 유훈은 무엇이었습니까
- 보리수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만입니까
- 부처님께서 자신의 늙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신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부처님께서는 휴도 계실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 세속적인 재가의 신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 술 마시는 불자에게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습니까
- 부처님을 따르는 재가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지혜로운 재가신도가 베푸는 법문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 위없는 깨달음을 전하는 초전법륜의 내용은 무엇인가
- 죄로움을 보는 자는 과보율의 소멸도 보는가
-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생명을 죽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증자와 초목을 훼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호회로운 집에서 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자음을 속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폭행을 일삼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국판 / 496쪽 / 값 18,000원

빠알리성전협회에서 나온 책들
- 쌍윳따니까야 전집(전12권) 값 300,000원
-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값 9,000원
- 신간 맛지마니까야 제1권 값 30,000원
- 범어문법학 값 80,000원
- 빠알리어사전 전2권 값 70,000원

※ 이 책은 불서전문 온누리(02-3672-7184)나 여시아문, 교보문고를 비롯한 주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법보시 주문도 받습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말로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Korea Pali Text Society
전화02-2631-1381 팩스 02-2631-3770 kptsoc@kptsoc.org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이드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포기

옛날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 중에서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이란 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삶의 도정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면, 또는 자신이 팔방미인이 아니라서 부득이 어느 한 길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더욱 더 이 시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갈등과 주저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확고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하며, 최선의 가치를 채택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부처님도 우리들과 같은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자 삼칠일간 법열에 잠겼다고 한다. 이때 당신이 깨달은 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내가 깨친 법을 전하려 해도 저들은 어리석어 믿고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헐뜯고 비방하며 삼악도에 떨어져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 회의하며, 대중교화를 포기하려고 한다. 이때 범천이 나타나 법을 청하고 있다. "중생세간이 비록 번뇌와 망상에 뒤섞여 있고 청정하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러한 번뇌와 망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신다면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범천이 설법을 권유하는 이유이다. 불전에 나타난 이때의 장면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고 신화적인 성격이 농후하지만 범천의 세 번에 걸친 간청과 부처님의 세 번에 걸친 거절의 형식을 거쳐, 마침내 설법을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장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다만 부처님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기 작가들이 미화한 것 정도로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 불교의 기본적인 종교적 특징이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달았더라도 그것으로 중생들을 깨우쳐 주지 못한다면 그 진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깨달았으되 혼자만 즐기고 만다면 진정한 의미의 깨달은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비로소 진정한 부처가 탄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원대하고 끝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동적인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후 전개되는 수많은 가르침은 모두 중생들을 위한 수기설법이라는 점에서 길 떠나는 이의 강한 신념과 지혜를 엿보이고 있다.

필자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점은 법열에 잠긴 삼칠일간에 범천과 설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범천은 인도의 전통 민속과 브라만교에서 우주를 주재하는 임금이며, 인도고대 신화 속에서는 창조주로 등장하고 있다. 부처님이 막 깨달은 당시에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범천이 부처님을 찾아와 설법을 권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천과 진행한 문답이 부처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심리적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자연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열악했던 당시의 인도에서 중생들을 위해 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안락과 주변의 일체를 포기하고 대중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범부와 성인의 길이 그래서 다르다할지라도 너무나 크고, 어렵고, 고독한 일이기에 부처님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 같으면 어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쉽게 살 수 있는 삶의 길과 어렵지만 가치있는 삶의 길에서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면, 부처님께서도 당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들과 같이 회의와 주저, 갈등과 선택 그리고 번복을 수십번씩 하지 않았을까. 극적으로 범천의 권유에 의해 위대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한편 위대한 포기를 전제하고 있다. 포기 했기에 위대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만드는 조연인 범천의 정체는 무엇일까? 필자는 범천을 깨어있는 이성이라 해석한다. 편안하지만 작고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렵지만 넓고 큰 길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부처님의 내면의 소리, 이성의 소리였던 것이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일반 범부들은 활짝 열려 있는 천당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굳게 닫혀 있는 지옥문으로 들어가려 아우성친다"고 말하고 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의 당위성과 참다운 가치의 문제를 둘러싼 양보할 수 없는 내적 갈등 속에서 이성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부처님의 출발은 이성의 승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위한 헌신' 일체의 것 포기
부처님 선택 이성의 빛난 승리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인간 참모습 회복이 조사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답해 봐."

4일, 서울 상도동 백운암에서 만난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은 말씀을 마치시면서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참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이 잘 사는 길입니다."

활짝 웃으셨다. 아주 맑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미소, 스님의 어떤 가르침보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91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선(禪)을 바탕으로 한 참사람 정신을 사회 보편의 정신으로 세워 나가기 위해 서초동 참사람 운동본부 설립 준비에 바쁜 스님께 조사선과 한국불교에 대해 여쭈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서 옹 스 님 (고불총림 방장)

◆깨닫기 위해서는 오로지 '조사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조사선이어야 하는지요.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조사선이지요. 인간 세상에서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말하지만, 선에도 악이 항상 붙어있고, 참에도 거짓이 붙어 있으며, 아름다움의 이면에도 추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초월한 것이 종교이고, 이 종교와 인간까지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조사선뿐입니다."

◆지금 제방 선원에서 조사 선풍이 올곧게 유지되고 있는지요. 선지식이 수좌들을 제접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고, 견성에 대한 치열함이 불교 전체 수행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 불사와 기도 중심의 분위기가 대세인 듯합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합니까.

"옛날부터 그러한 폐단은 많았습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수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사선의 근원을 올바로 가르치는 곳이 드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럴수록 조사선을 더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조사선 즉 간화선은 일반인들로서는 다가가기 힘든 수행법입니다. 심지어는 조사선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많은데, 과연 그런지, 그렇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선방 수좌들만으로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올바로 하면 전혀 힘들 것이 없는데,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큰 스승 아래서 지도 받으면 쉬운데, 다들 그렇게 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다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선은 선방 수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승속을 떠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수행법들이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수행법이라 불리우는 아봐타나, 명상요가 등이 그것입니다. 또 불교 내부에서도 위빠사나와 같은 초기 불교의 수행방법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겉모양새로만 본다면, 이들 수행법의 등장이 조사선의 위상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곧 조사선의 수행 방법에 효용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르게 하면 쉬운데, 잘못 알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봐타나 명상요가 같은 수행법은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위빠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빠사나는 산란한 정신을 안정시키기는 하지만 생사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진리를 꿰뚫는 참선이 필요합니다. 조사선만이 관습과 위선, 범주화된 인간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참선은 더 이상 불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을 보편적 정신으로 인식하고, 타 종교에서도 개인적 차원이나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전반의 수행 풍토를 보면 기도나 염불 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선(禪)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사선의 껍데기만

서옹스님은? ——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들어 무명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과 아집을 타파하여 참나(眞人)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서옹 큰스님은 7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이루기 위해 참사람 운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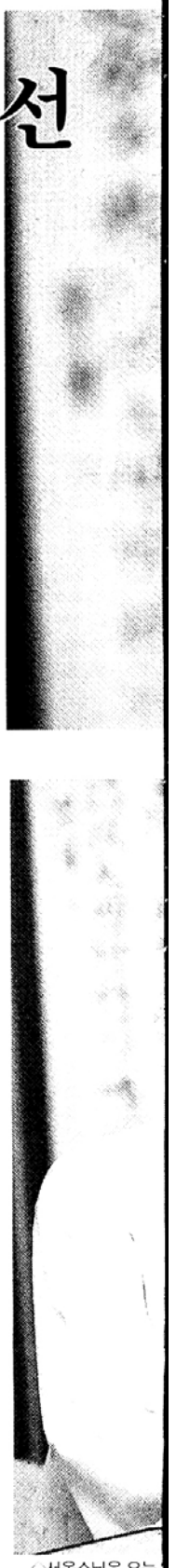
스님은 1912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32년 백양사 만암 스님 문하에서 득도했다. 1935년 중앙불교전문대학교, 1941년 일본 경도임제대학교를 졸업했다. 일본 임제종 총본산 묘심사에서 수선, 3년 안거를 성만했다. 1962년 동국대 선학원장, 도봉산 무문관, 동화사, 봉암사, 백양사, 봉암사 조실을 역임했으며, 74년~79년까지 조계종 5대 종정을 지냈다.

현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이다.

세계평화 · 자유 위해 '참사람운동'

자유자재 절대평등 대자대비

조사선 수행은 참사람의 길



◇서옹스님은 오는 … 의 가르침을 설할 계획

韓國佛教 太古孫
(太古宗 19期) 道伴에 알림

전국의 山下 道場에서 修行精進 하시는 태고종 19기 도반스님네의 法體康寧하심을 발원 합니다.
수계산림후 금일에까지 面面히 이어저 오던 19기 僧伽團體(金剛僧院)에서 도반상호간의 義理를 돈독히 하고 수행풍토와 승가의 位相을 傳承하여 불교 발전을 도모하고 佛家의 慧命을 전승 하고자 하고 19기 도반의 結集을 확고히 하는 法席을 마련하여 합동득도 19기 도반스님네의 관심과 성원으로 隨喜同參하시어 琢磨하여 주시고 본회의 위상을 高揚코저 하고니 도반스님네의 연락 바랍니다.

韓國佛教 太古宗 19期
僧伽團 金剛僧院

연락처 011)897-0120
032)435-0478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기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견학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 품 :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익일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탁월한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관여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계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숲, 담배해독
· 피부뮤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켐메칼라이프 Co.
C.W. (구)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노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참사람 운동을 통한 선(禪)의 보편화에 전념하고 계신 서옹스님.



해운정사에서 열리는 무차법회에서 차별없는 부처님

가져다 써서는 안됩니다. 현대 사회가 선을 수용
: 것은 서양문명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결점을 보
하고자 하는 문화적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양의 정신문화로서 선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측
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형식만 수용해선 인간을 근

원적으로 변화시킬수 없습니다. 그것이 서양문명이 선을 수용하고 있는 한계이며, 때문에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사선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7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이루기 위한 참사람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참사람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인류는 과학문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차 타

이기적 욕망 버리고 끊임없이 참선하라

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뿐입니다. 자연파괴, 환경오염, 국가간의 전쟁 등 모든 것이 투쟁으로만 뻗치고 있습니다. 참사람은 상하, 귀천, 성인과 범부 등을 초월해 화해와 자유에 투철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아를 초월한 본성자리이자, 인간의 진실성을 근원적으로 드러낸 본래의 자기 자신이 참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오염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과 아집을 타파해서 진실한 인간상인 참나를 되찾으면 나와 남의 대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참사람은 참으로 자유자재하고 절대평등하며 대자대비합니다. 우리 스스로 참사람임을 믿고 참사람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선과 참사람 운동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조사선은 참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 방법이지요. 조사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참사람 운동의 핵심입니다. 조사선은 자아를 초월하여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드러내게 하며, 이러한 경지를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사선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두 조화롭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며 공존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조사선이기에 조사선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아름답고 즐거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의 바탕 위에서는 누구나 자비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진 인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의 전통을 보편화시키려는 의도의 하나로 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무차선회를 펼치셨고, 올해는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립니다. 법회는 원래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데 굳이 '무차' 형식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차란 형식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평등 정신에 의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치셨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중생의 나쁜 습관에 의해서 그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도 있고, 궁극적으로 흐트러진 수행가풍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기 위해 무차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무차 법회를 열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 칼루파하나 교수가 조사선을 연구하러 백양사에 들렀었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무차 법회의 전통을 이야기했더니, 왜 그 좋은 걸 하지 않느냐고 해서 무차법회를 계획했습니다. 무차 법회에서 수행자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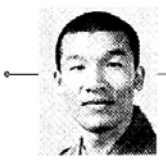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지금 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가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파괴, 남북통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 불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 멸망이냐 생존이냐 하는 문명사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병근을 치유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위주의 사고를 초월한 참사람주의라고 확신합니다. 참사람 만이 현대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 여여한 진리의 세계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어라
빨리 상응하고자 한다면
오직 둘이 아니라고 말하리
둘이 아니고 모두 한 가지이니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구나'
〈승찬 스님의 신심명(信心銘) 중에서〉

참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대자연을 불이일체(不二一體)로 보며, 영원한 생명으로 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바로 알고, 끊임없이 참선 수행해야 합니다. 참선을 통해 이기적인 욕망을 가라앉히고, 참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만이 인류가 살 길입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미산스님 <하>

지금은 승가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그렇지 않지만 과거 동국대학교는 스님들의 무덤(?)으로 통했다. 어렵게 대학공부를 마치고 나면 환속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4년의 대학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자유로우며 활기가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공부를 위해 진학한 스님들도, 대학의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또 아직까지도 군법사라는 제도는 조계종 스님들의 공식적인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에 환속의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불가에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쭉 뻗은 나무는 서까래나 기둥, 대들보 감으로 다 베어지지만 굽은 나무는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 산을 지킨다는 뜻이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쓸모있어 보이는 사람은 출가수행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안팎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세상의 안목에서 볼 때 굽은 나무가 불가에선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미산스님처럼 우직하게 자신의 공부만 챙기는 스님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혹 눈에 띄었다가도 홀연히 그 모습을 감추곤 한다. 마치 산을 지키는 거목처럼 쉬 자신을 팔지 않고 오롯하게 한길로 매진하는 까닭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90년대 초반 강원을 마치고 인도 및 동남아시아 성지순례를 나서서 스리랑카에서 우안거를 날 때 우연히 미산스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영국으로 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스님은 은근한 끈기와 쉼없는 노력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저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공부를 챙겼다는 스님이기에 유학생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야기 거리를 들을 수 없었다.

2년 전 불교계 신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산스님의 기사를 접하게 됐다. 세계적 명문으로 이름난 대학에서 한국 스님의 향학열과 구도열정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귀국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거의 20년 세월을 넘어 스님을 뵙게된 것이다. 스님은 반가움에 어쩔줄 모르는 나에게 마치 어제 만났다 헤어졌던 사람처럼 그렇게 맞아 주셨다. 학창시절 법사의 인연으로 만났다가 출가의 세월이 익어 어느덧 종단의 소임을 보게된 후배를 스님은 스님의 늘 그런 담담함으로 격려하고 다독여 주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묻고 싶은 이야기와 청하고 싶은 부탁이 많았지만 바쁜 스님의 발길을 잡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다만 스님께 나중에 여건이 되면 우리 종단과 포교를 위해 조금의 힘이라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스님은 흔쾌히 그러마는 대답으로 자리를 접었다. 그리고 미산스님은 다시 미국 하버드대학의 세계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잠시 더 외국생활을 했다.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뒤 스님은 남방의 수행처와 국내의 선방을 다니시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월드컵을 맞아 한국불교계에서 추진하던 템플스테이 일을 맡아 다시 서울로 온 나에게 있어 종단의 국제적 감각이나 제반 상황은 극히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침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와 함께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 핵심 역할을 맡아줄 프로그램 진행 스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수 차례 논의와 회의를 거쳐 미산스님이 최적임자라

쉼없는 공부…옥스포드大 박사
국제행사 큰 몫, 든든한 의지처

는 결론을 내고, 당시 수행처에 계시던 스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렸고 스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 템플스테이가 시작될 당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 대표행사인 연등축제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의 전체 일간지와 오신에까지 보도된 직지사에서의 외교관 템플스테이에 대한 기사비중은 오히려 연등축제를 압도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발우공양을 비롯해 참선, 다도, 연등 만들기 등 미산스님의 유창한 영어로 진행된 가르침과 지도는 대다수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이후 템플스테이의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종단의 유일한 국제포교인력 양성과정인 국제포교사연수와 국내외 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등 스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미산스님은 수고와 번거로움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지만 미산스님은 일을 아무리 해도 표를 남기지 않는 스님이다. 마치 흐르는 땀방울을 식혀준 바람이 자취를 남기지 않듯 어느새 산사의 고요속에 몸을 감추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30년을 넘긴 출가수행의 이력은 스님의 한결같은 젊고 편안한 얼굴속에 갈무리되어 있다. 산사의 살림을 즐겨 백양사 참사람 수행원의 소임을 맡고 계신 스님은 주변사람들에게 늘 든든한 의지처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금강승 선관무(선무도) 수련 안내

주말 수련반 | 동계 수련반 | 연중 수련반 (행자)

금강승 선관무(선무도)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불가의 전통 수행법이다. 이는 화랑도에게 세속오계를 가르친 신라의 원광법사가 중국법화사에서 천축(인도)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은 후 귀국하면서 이땅에 면면히 내려오는 전통 수행법이 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승 선관무회주인 원욱스님은 양익스님에게서 이 수련법을 전수 받은 후 스님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전하여 제자들을 양성하였으며 금번, 사단법인 금강승 선관무회 중앙수련원 개원을 계기로 각처에 인연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1. 동계 수련반 : 1차 2002. 12. 23 ~ 2003. 01. 06 (15일간)
(음 : 2002. 11. 20 ~ 2002. 12. 04)
2차 2003. 01. 07 ~ 2003. 01. 21 (15일간)
(음 : 2002. 12. 05 ~ 2003. 01. 19)
2. 주말 수련반 : 금요일 21시 입소 ~ 일요일 14시 퇴소(2박 3일)
※ 2002년 10월 25일 부터 연중무휴로 접수 가능
3. 장소 : 금강승 선관무회 중앙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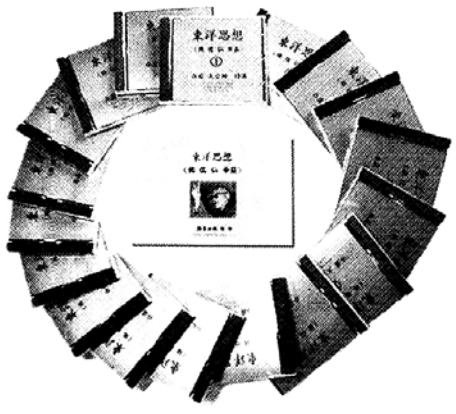
◎ 문 의 처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904
☎ 033)764-6362.
서울본원 ☎ 02)598-6771,
경기본원 ☎ 031)754-4213
◎ 홈페이지 : http://www.sunkwanmoo.com

사단법인 금강승 선관무회 이사장 원욱합장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큭,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법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국내 최초 근·현대 불교미술품 한자리에

불교문화산업기획단
17~28일 가나아트센터



◇정종여의 '의곡사여래좌상 괘불'.



◇오지호의 '아미타후불탱화'.



◇이만익의 '월인천강'.



◇이화자의 '석별'.

작고·원로·중견작가 41명 작품 72점 전시

정혜사 '관음보살입상' 등은 미술계 첫 공개

20세기 불교미술 흐름 정리·지방 순회도

근·현대 불교미술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국내 최초로 마련된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 조소예술가인 김복진(1901~1940)씨의 '정혜사 관음보살 입상'(1935)(390호 26면 참조)을 비롯해 정종여씨의 '진주 의곡사 여래좌상 괘불'(1938), 근대 대표적 유화가 오지호의 '광주 무등산 아미타후불탱화'(1954), 70년대 현대 채색화를 새롭게 일군 박생광씨의 '청담스님'(1983), 이중섭씨의 '손'(1954), 최영림의 '극락도'(1969) 등 작고작가와 원로·중견작가 41명의 작품 72점이 선보인다.

이중 유려한 자태에 원만한 상호 등으로 근대 최고의 불상작품으로 꼽히는 '정혜사 관음보살입상'과 높이 7m의 대작으로 붉은 가사를 입고 있는 연화좌 위의 여래좌상이 인상적인 '의곡사 여래좌상 괘불', 청담 스님의 면모가 추상적인 기법으로 설득력 있게 묘사된 대작 '아미타 후불탱화'는 미술계에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고희동씨의 '인봉선불 진영'(1938), 설산 스님의 '경봉당 익운진영'(1917) 등 볼거리가 푸짐하다.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화려하고 다양한 기법의 불교미술품들을 접하다 보면, '불교미술하면 으레 고루하고 지루하겠지' 하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스님은 "이번 전시 작품중 '정혜사 관음보살 입상'과 '의곡사 여래좌상 괘불'은 안전 문제로 개막일 하루만 전시될 정도로 일반인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귀중한 작품"이라며 "20세기 불교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막식날인 17일 오후 4시부터는 괘불 이운식 퍼포먼스가 열리며, 26일 오후 2시에는 '현대미술 강연회' 세미나도 마련된다. 또 11월과 12월에는 양산, 속초, 여수에서 지방 순회 전시도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사상바탕 명품들만 골라"

인터뷰 전시회 기획자 윤범모 교수



"한국미술문화 가운데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현대미술과 맥락을 함께하지 못해 그동안의 불교미술전은 고미술품 위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본격 창작품 가운데 불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명품만을 모아 놓은 이번 전시는 근현대 불교미술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윤범모 교수(경원대 미술학과, 미술평론가)가 밝힌 전시회 개최 취지다.

미술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난 불교적 깨달음을 조형적으로 살펴본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윤범모 교수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불교사상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은 20세기 한국미술의 대표급 작가들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에 부합되는 작가들로만 선정했다"며 "현대미술의 특징을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듯이 근현대 불교미술 또한 인상화, 추상화, 입체작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감상하는 재미가 각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간 화합 예술 한마당

제6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15일부터

'사랑과 평화' 주제 단편영화 공모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모여 종교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연합문화예술제가 열린다.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과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펼쳐지는 '제6회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바로 그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운영위원장 양산스님)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단편영화공모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작품의 상영시간은 30분 미만이어야 하며,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우수작품을 선정해 대상(문화부장관상), 최우수감독상, 우수촬영상, 기획상, 특별상 등 5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924-7048

운영위원장 양산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지난 6월 월드컵 기념 종교미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힘입어 이번 종교예술제도 종교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해 남북이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만큼 종교계도 문화교류를 통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제

24일 오후 7시 30분에는 불교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원음방송 주관으로 음악제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범능스님의 '제비꽃이 핀 언덕에'를 비롯해 니르바나오케스트라의 '모짜르트 심포니 제25번 1악장', 신형원의 '개똥벌레', 한마음선원소년소녀합창단·조계사어린이합창단·PBC소년소녀합창단·CBS소년소녀합창단·원음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오-필승코리아' 등도 연주된다.

⊙영화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주관하는 영화제는 △15일 동승 △16일 존큐 △17일 취화선 △18일 미션바비라 △19일 마리이야기(애니메이션) △20일 오아시스 등의 일정으로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3~7시 하루 2회 상영된다.

⊙학술세미나

16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는 민족종교와 유교의 주관으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도덕성 회복과 종교인들의 다짐'을 주제로 윤이흠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꽃밭을 배경으로 상념에 잠긴 동승을 그린 원성스님의 '마음이 머무는 아이'.

자연소재작품 100여점 전시

원성스님 "동자승 눈에 비친 세상 묘사"

동승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 온 원성스님(서울 돈암동 대불정사이 4년만에 자연을 소재로 한 신작 전시회 '자연 속으로'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아이', '연꽃의 서정', '목탁소리', '오직 한 생각' 등 1백여점의 작품이 벽에 걸린다.

'자연 속으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자연만을 그린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동승을 앞에 등장시킨 후 배경에 자연의 모습을 담았다.

원성스님은 "동자승의 맑고 순수한 눈을 통해 세상을 묘사하려 합니다. 어머니 금강스님을 따라 절에서 생활하며 본 스님들과 자연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원성스님은 현재 강원스님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집필중이며, 내년초 유혁주 감독에 의해 영화화 될 예정이다.

김주일기자

심곡암 단풍문화 축제

茶道시연·산사음악회

서울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이 19일부터 27일까지 '제5회 단풍문화축제'를 마련한다. 19일 오전 10시 후불탱화 점안식을 시작으로 법회와 수계식이 열리며, 특히 27일에는 심곡다도회의 다도시연에 이어 오후 1시에는 산사음악회가 펼쳐진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가수 한영애씨의 '거기 누구 없소', 이성원씨의 '핏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등이 연주된다. 축제기간에는 기현 스님(양평 보타암)의 '선서화' 전시회도 볼 수 있다. ☎914-8860

한·중수교 10주년 기념

범패·나비춤 북경공연

인천시 무형문화재 10호 보유자인 일초스님(자원사 주지)과 전수생 15명이 세계문화교류협회 중국본부 초청으로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북경예술대학에서 공연을 갖는다.

한·중수교 10주년과 북경예술대학 건교 50주년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일초 스님 무용단은 화려하고도 장중한 무게가 느껴지는 법고춤을 비롯해 바라춤과 나비춤 등을 무대에 올린다.



◇바라춤을 추고 있는 일초스님.

생활 명품 정보 - 항상 새롭고 신속한 정보를 불자님들께 제공합니다.





월드컵 기념종 한국 문화 관광상품 최초로 한정 수량만 생산 판매!

월드컵 기념 종은 종 제작자로서는 유일하게 인간문화재와 명장에 지정된 원광식 선생이 제작한 월드컵종이 기계 소장작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반 제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청아한 소리와 디자인은 보는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 문화 관광상품중 처음 원목으로 제작된 모형조각으로 지붕은 기와지붕을 형상화 하고 있으며 기둥은 무량수전기법 응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종의 품격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소장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희소가치를 보장해 주기도 하였다.

이번 생활명품마당에 소개되는 작품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월드컵 금종과 동종 50개에 한하여 파격적인 특판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물량이 많지 않아 구입하지 못하여 애를 태웠던 불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듯 하다. (제조사 : 성종사)

장인의 숨결로 불자들에게 다가서....

문의전화 02)732-1520

이트인기상품

침실출입문 천장에 달아 놓으면 풍경의 맑은 소리가 공간기운을 살리게 된다.
판매가 : 30,000원 (2개1set)



용무늬 풍경세트

전통문양 등 과 현대 조명의 만남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전통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벤처기업 '강산정보'. 벤처기업인 만큼 도전정신으로 똘똘뭉쳐 오늘도 전통문양 개발에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 강산정보는 우리나라 고유 무늬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상품 개발, 전통무늬의 자료를 수집 데이터 베이스화를 구축, 고건축 보수및 해체 수리를 위한 3차원 리모델링 작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우리 문양 개발에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전통문양 등은 이러한 개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전통문양 등은 거울의 뒷면에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무늬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원목과의 어우러짐 속에 은은한 멋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준다. 재료로는 오동나무를 사용하였는데 예로부터 자식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하였고, 자녀가 성숙하여 출가를 하게 되면 그 오동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어 보냈는데 이는 오동나무가 가벼우면서도 여러 가지의 효용성이 아주 뛰어 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 등(燈) - 황금 빛 반야심경 글씨 감상할 수 있어

반야심경은 심경이라고도 한다. 당나라 현장(玄)이 번역하였고 관자재보살이 반야행을 통해 나타나는 법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불교의 기초적인 법문인 오온(五蘊) 12처(十二處) 18계(十八界)가 모두 공(空)하며, 12연기 또한 공하며, 4가지 진리 또한 공하다고 하여 모든 법의 공한 이치를 나타내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으로 대표되는 공의 이치는 어떤 대상이든 고정적인 성품이 없음을 나타내었으며, 오직 보살은 마음에 가림이 없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으로 최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이치는 또한 신묘하여 진언으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등(燈)은 심경의 내용을 사방에 배치하여 등에 불을 켰을 때 황금 빛 반야심경의 글귀를 감상할 수 있다.

사천왕등(燈) - 호신등으로 집안을 지켜.



사천왕은 부처님의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수미산에서 동서남북(동-지국천왕, 서-광목천왕, 남-중장천왕, 북-다문천왕)의 네 방위를 지키며 불법수호와 사대부중을 보호하고 있다.

본 제품은 통일신라 초기에 세워진 경주 나원리 5층 석탑(국보 제 39호)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의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이 금동사리함은 뚜껑 윗면에 연화당초문이 새겨져 있고 사방 측면에는 사천왕상이 정교하게 선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 조 : 강산정보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박해정
특판가 : 반야심경등 35,000원, 사천왕등 39,900원
판 매 : 마하불 02)732-1520



전통창호문양 차걸이 등(燈), 열쇠고리

2002 서울 문화관광상품공모전 및 전국공예품대전 수상 작품

한국전통창호를 이용하여 만든 차걸이 등(燈)과 열쇠고리가 출시되었다. 전통 창호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 만든 이 상품은 보는이로 하여금 섬세한 가공형태에 만든이의 노력을 엿볼수 있다.

전통창호문양 차걸이 등 윗 꼭지를 올리면 불이 깜빡이게 되어있어, 차걸이용은 물론 실내 인테리어 악세서리로도 아주 좋다.

- 차걸이등 1세트 (2개) 18,000원 · 열쇠고리 1세트(2개) 10,000원
- 문양종수 : 귀감문, 띠살문, 복자문, 세살문, 아자문, 원육문, 빙살문, 희자문, 달마문, 卍자문

☎[대표 : 이원종] 문의 : 02)461-7264 fax 02)461-7265

디지틀 불경 룸 비 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휴대용 디지틀 불경 룸비니 시판



로얄 T&S에서 휴대용 디지틀 불경 룸비니가 개발되어 시판에 들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 특히 룸비니에는 관음도가 들어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호신의 역할도 해 준다. 룸비니에 들어 있는 경전은 불자라면 자주 독경하는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등이 저장되어 있다. 구수한 독경을 듣고있다보면 모든 근심걱정번뇌가 소멸되고, 사바세계를 벗어나 장엄한 극락정토에 들어온 환희를 느끼게 될 것이다. 특별할인가: 35,000원. 문의 : 로얄 T&S 02)525-4643 fax 02)543-4653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기(氣)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숯 목걸이가 개발 되어 화제다. 세계제일의 고강도 숯 비장탄을 수가공으로 깍아서 만든 이 숯목걸이는 가슴이 숯을 닿게 걸고 다니면 숯에서 발생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방사로 심장의 혈행순환을 돕는다. 단단하기가 보석같으며 물이 묻어나지 않은 이 숯은 못을 놓으면 자석이 되고 전기도 잘 통하기도 한다. 2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긋지긋한 피로 이제 안녕

발바닥에 붙여 전신의 노폐물이나 수독을 배출하여 피를 맑게하는 대나무수액시트로 관절이나 아픔이 있는 환부에 붙여 염증물질을 빼게 하므로서 질병을 개선해 주고 있다. 상품구입시 숯 단주(판매가 45,000원 상당) 증정.

100매 90,000원 문의전화 :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돌침대 와 옥돌매트 효과! 신개념 건강솔루션 '굿모닝헬스큐'

2003년형 신개념 옥돌보료 - 국내 최다 발명특허획득

(주)그린스톤전자에서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한 신개념 건강 옥돌보료를 개발 하여 시판에 들어갔다. '굿모닝헬스큐'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국내 최대 발명특허를 내어 세간에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업정신이 건강을 최우선하는 만큼 종사하는 직원들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초기 제품으로는 굿모닝 헬스큐 24 프리미엄, 굿모닝 헬스큐24, 굿모닝 헬스큐 3종이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 24볼트 전용제품을 상용화 하여 전자파의 획기적 절감 및 전기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고급 수암 천연옥돌 3개, 한의자연 요법학회와 LG생활과학 연구소가 개발한 아로마테라피를(기관지 질환, 불면증 개선용) 장착하여 최적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 큰 특징이다.이외에도 일반열선에 비하여 10배 길이의 사상발열체를 이용하여 가정용 찜질방 효과(5-6중 원적외선 방사 효과)를 누릴수 있게하여 수면 양생법의 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출시 기념 할인가 판매이외에도 **15평형 음이온 공기청정기도 제공** 한다고 한다. 문의 전화 : 02)732-1520

- **굿모닝 헬스큐 24 프리미엄**
  1,450 × 2,000 × 60(퀸 사이즈)
  매트 A + 조절기
  출시기념 판매가 790,000원
- **굿모닝 헬스큐**
  1,450 × 2,00 × 60(퀸 사이즈)
  매트 B + 조절기
  출시기념 판매가 490,000원
- **굿모닝 헬스큐 24**
  1,450 × 2,00 × 60(퀸 사이즈)
  매트 B + 조절기
  출시기념 판매가 590,000원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귀의삼보하옵고

저는 15년간 불교 양초만 제조해 온 삼환양초 대표입니다.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Natural Candle)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여 공급하여 왔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던차에 선진국 미국에서 대두(콩)으로 추출한 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두(콩) 왁스를 수입코저 원가를 확인하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 왁스 대비 4.5배에 가까워 도저히 불가하여 고민하던 중, 동남아 모처에서 (식용)팜유에서 추출한 왁스를 구매하여 식물성 양초(Natural Candle)를 제조 공급하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다립니다.

삼환양초 가족 일동 올림

식물성 양초



식물성 양초 특허실용신안 No. 1-1-2002-5191666-11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제조방법 - 식물성왁스(팜유에서 추출한 왁스) + 파라핀왁스(공업용왁스) 혼합특수공법으로 제조 〈 팜유란 야자열매에서 추출한 식용기름이며 국내에서는 라면외 튀김용으로 사용하여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는 모든요리에 사용하는 식품 식용유입니다.〉

삼환일반양초





문의 : 031)766-0242~3391 fax 031)766-0233

온 누리에 법음전파 여여하게 하소서

송강기획(주)는 불교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불교음악 발전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노력하여 결실을 거두어 가는 터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불가, 명상음악, 교리강좌, 독법, 생활법문, 명상힐링
송강기획(주)는 불교음반 유통전문화를 고집하는 회사입니다.

松江企劃(株)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77-26 2층
대표전화 02)745-6015
www.buddhistmusic.co.kr

"서로를 살리는 부부"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 있는 자리가 아름답고 환합니다."

찬불가책을 함께 들고, 마음을 모아 노래를 부른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따스함이 베어난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 첫째 토요일 저녁. 서울 목동 법안정사 법당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목동 법안정사 '부부법회' 현장

100여 쌍의 부부.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들 모습에 한 점 걱정이 없어 보인다. 상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들이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평생의 인연,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험준한 세파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동지인 그들. 오늘은 부처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93년 부부불자회 결성…100여쌍 참가
월1회 '보현의 집' 봉사·경조사 염불지원
월말께 홈페이지 개설·신혼부부 영입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데, 부부가 함께 부처님의 법을 만나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샘이 날 정도다. 법안정사 부부법회 회원들은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법문 속에 깊이 빠져 있다.

오늘의 설법 주제는 '서로 살리는 길'.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다. "부처님이 말한 '불살생(不殺生)'은 단지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리고 아내는 남편을 살려야 합니다." 이날 설법을 맡은 동국대 김상현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몇 아내들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본다.

법안정사가 부부법회를 열게 된 것은 93년 3월경. 평범하게 서울 사는 부부들에게는 직장생활과 살림살이에 바쁘다 보면 한 주 내내 얼굴 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혼 초기의 열렬한 사랑은 금새 식어버리고 부부 사이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넘어가기 일쑤. 법안정사 불자들은 이렇게 소원해지는 부부 관계를 새롭게 가꿔보자며 부부불자회를 꾸리게 됐다. 처음 직장생활에 바쁜 남편들의 참석이 드물었지만 부부법회를 연 후 부부 싸움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매번 100쌍이 넘는 불자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현재 '법안정사 부부불자회'는 가정법회분과, 산행분과, 상조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되어 불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가정법회분과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된 지부를 순회하면서 매달 산행법회, 야외법회, 기도법회 등 다채로운 형태로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봉사분과에서는 월 1회씩 영등포 '보현의 집' 봉사와 탑골공원 급식소 봉사를 하고 회원 불자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염불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염불봉사단도 꾸려져 운영중이다. 또한 산행분과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산행법회를 마련해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있다.

김원국 부부불자회장은 "10월 말경 부부불자회를 위한 홈페이지(www.buban.co.kr)를 개통할 계획이다"며 "신혼 부부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부부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행복한 소문

◆노인의 달 행사=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은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주간보호 노인들과 함께 춘천 남이섬을 찾아가는 야외나들이 행사가 25일 열린다. 노인과 대화하는 법, 노인부양가족의 스트레스 대처법 등에 대한 가족간담회와 독거 노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랑나누기' 행사는 25, 26일 개최된다. 또한 30일에는 노인 3백 명에게 무료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심전도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다.(02)385-1351

◆작품전시회=강북노인복지관은 16~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내에서 '제2회 금빛향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02)992-6783

◆족보상담=한국보학자료에서는 각 문중의 족보 및 관련문헌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02)2201-8115

◆간병인 모집=종로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인 사업단 회원을 모집한다. 보수는 12시간 3만5천원, 50시간 무료 교육 후 각 병원에 배치된다.(011)9889-3693

◆무료독감예방주사=안양시는 지역 거주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19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031)389-2114

그리운 사람에게 詩 한편을

감정의 현(絃)이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별것 아닌 일에도 콧잔등이 시려 오고, 묵혀 두었던 아린 추억에 가슴앓이를 하기도 한다.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특히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어쩌랴. 묵은 사진첩을 꺼내본다고 지난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생각 돌려 보자. 잠 못 이루는 밤이 어찌 나 혼자만의 일일까.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려 보자. 한둘이 아닐 것이다. '내가 너무 무심했지. 안부 한번 묻지 못한 지가 몇 년째야?' 하는 말이 혀바닥에 고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수화기를 들어 그리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사는 얘기 거두절미하고, 좋아하는 시(詩)라도 한편 읽어 주자. 처음에는 '어, 이 친구 왜 이래?' 하다가도 '그래, 우리도 한 시절에는 시를 읽기도 했지' 하면서 행복감에 젖어들 것이다.

누구에겐가 시를 읽어 주자. 괜한 시름에 한숨만 키우지 말고.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결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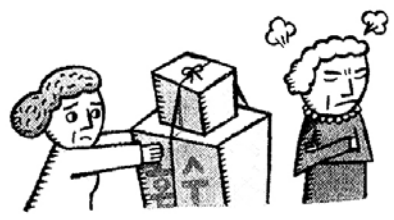
29살의 직장 여성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예비신부의 고민을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중반에 사업을 하던 남편이 엄청난 부채를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나자 신부 어머니는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3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어머니는 14 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고 딸 아들을 데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채권자들한테 머리끄덩이를 끌리기도 하고, 주먹질은 물론 뺨까지 맞는 수모를 당했다고 하니 남편이 저질러 놓고 간 부채를 정리하느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고비를 넘겼을까 하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 당시 예비 신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남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혼자된 어머니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녀들 공부만은 엄격하게 시켰기 때문에 남동생도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어머니는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해 지금은 꽤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 하지만 착한 딸과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어머니는 오랜만에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한 것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면서였다고 합니다.

사귀던 남자와 결혼 날짜를 잡고 나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둘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예단 문제로 양가가 깊은 갈등을 빚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말이 오고 갈 때만 해도 결혼을 간소하게 치르자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시어머니가 막상 결혼날짜를 잡고 나니 혼수품은 물론 예단 2천만 원을 보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예단 2 천만 원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진다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묵살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만약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예단을 보내지 않고 결혼을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예비신부는 괴로운 얼굴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머니는 제가 만약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하겠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그 쪽에서 요구하는 예단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장만한 아파트를 팔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예비신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비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될 분이 왜 2 천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까지 정해서 예단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에 신랑 될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자 예비신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며느리를 볼 때 그 정도의 예단을 다 받았나 봐요. 서로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키워 온 그 분들은 사소한 문제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새로 맞이하는 며느리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걸 친구 분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남편 될 사람도 어머니의 그런 면을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그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봐요."

결혼은 생명질서·자연순리 좇는 일

예비신부의 고민을 듣고 있는 제 머리 속에는 화면으로 보던 동물의 세계가 떠올랐습니다. 동물들은 공중에 사는 새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든, 뭍에서 사는 짐승이든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새끼를 키운 후 그 새끼가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게 되면 가차 없이 새끼들을 떠나보내고 자신이 새끼를 키웠다는 사실 자체도 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인간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장성한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은 생명의 질서, 자연의 순환을 따르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부모들이 냉정하게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며느리를 본다든가, 내가 사위를 본다고 하는 자기 집착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테니까요.

化緣 (02)704-3577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량 복사본 판매행위 해결에 도움을 주신
전국 활인 천역자 제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효사 배상 -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휴대용) ●효사 육임강의록 W300,000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좌정용)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0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근본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한 군데 놓는 공부 필연적으로 해야

스스로 채찍질하는 방법

문 예전에 스님의 설법 중에, 길을 가는 방편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갑을 물어라. 둘째, 음식을 탐하지 말고 공식(共食)을 해라. 셋째 스스로 채찍질을 해라. 그 중에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라는 부분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스스로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떠한 벌을 내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받길 원하옵니다.

답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부가 채찍을 가지고 소에게 '이랴!' 하면 소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짐을 내려놓으려면 '워워' 해야 되거든요. 그거와 같이 그 채찍이 바로 주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쳐서 가게 하기도 하고 서게도 하는 것이 마부에게 달려 있는 거죠. 현재 마음에 달려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잘 돼야 어느 집이든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너그럽고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현재 의식이 이 도리를 완전히 모를 때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듯 다지고 또 다집니다. '다시 병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하고 테스트하는 도리입니다. 병이 아니라고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가 하면, '이건 나를 가르치기 위한 재료이고, 이거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리 찔러 보고 저리 찔러 봐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고 그 테스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내 스승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스승을 발견해서 스승한테 채찍을 맞는 겁니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는 그런 경고도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나쁜 일을 하게 찌르기도 합니다. 그냥 누(累)가 되게 나가서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가 된다는 거를 알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무조건 믿기만 하고 그냥 합부로 해버리나, 그렇지 않으면 믿는 반면에 "당신에게 누가 되니깐 그렇게 할 수 없잖아."하고 다시금 돌려놓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고 나툼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금 재출발을 합니다. 재다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다 는 겁니다.

기초를 어즙잖게 해놓으면 그냥 벽에 금이 가고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일그러지고 새고 그럽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은 잘되고 못되고, 잘하는 거고 잘못하는 거고, 이건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전부 잘들 아십니다. 잘들 아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서 돌려 놓고 '이렇게 나쁘게 되니까 너만이 잘 돌아가게끔 할 수 있다.' '맑은 물이 나와서 먹게끔 할 수 있는 건 너 밖에 없다.' 하고 봤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움죽거리면서 채찍질하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팥죽을 쑤다가 팥죽이 끓어서 방울방울 풀럭풀럭하고 올라오니까 주걱으로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하고 때렸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몸 속이 팥죽 솥과 같아요. 수십 억 마리의 의식이 들어 있고 모습이 들어 있고 생명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 중생들이 그저 찧고 까불지만 내가 그 지배자가 돼야 해요. 마음이 지배자가 돼서 다스려야 될텐데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외려 내가 끌려가니 이거는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딱 잡아서 한마음 공한 도리로 그냥 딱 눌러 놓고 거기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이끌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놓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하라.' 하고선 그냥 내맡기는 그런 놓는 공부, 한 군데에 놓는 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말과 몸은 떨어져요. 우리가 헌 옷 벗어버리듯 떨어집니다. 몸이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뱃속에 있는 모든 게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길잡이요, 선장이요, 선장이 다스리는 채찍과 같은 거죠. 그런데 뱃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오히려 선장이 말리면 배를 어떻게 끌고 가나요? 몸이 배라고 한다면 몸 속에 자생 중생들이 들어 있는데 선장이 배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장이 오히려 그 배 안에 탄 중생들한테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선장이 채찍질을 하면서 배를 몰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몸을 다스리고 몸은 마음을 다스려서 선정에 들게 되면 홀연히 공한 도리를 알게 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지혜의 무기를 만들어서 모든 데에 활용을 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고요한 거기에 놔서 양면을 평등하게 들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스스로를 채찍질해 나가면서 일체 선지식들이 걸어가신 허공 길을 길을 삼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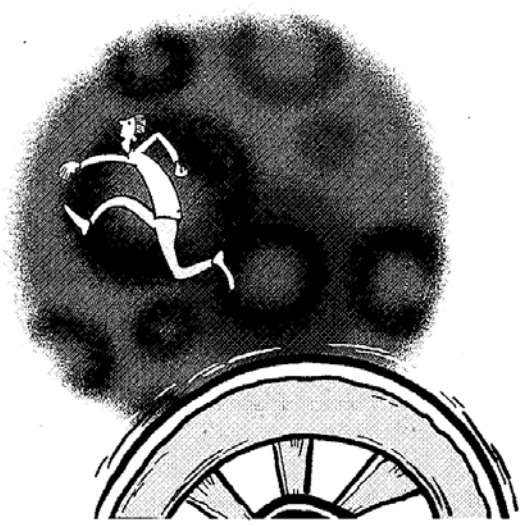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공해서 돌아가니
네 마음은 광대하고 무변하니라
그러니 그냥 뛰어라, 벗어나라

업식 어떻게 영향 주는지…

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한마음선원에 나가셨던 것이 인연이 되어 저 역시 힘들 때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한마음 요전을 마음의 길잡이 삼아 나름대로 마음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센터가 테러로 붕괴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고, 또 많은 가정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악연으로 인해 이리도 많은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을까요? 저도 지금 살면서 어떤 인연들을 짓고 있는가 하고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스님!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번의 생이 짧다고 하지만 이렇게 얽히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긴 시간일수도 있습니다. 인연이 만드는 업식이 어떠한 정도인지, 우리들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업식이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다고 한다면 그건 업적입니다. 10년 간의 업적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인생을 70평생 살았다 그러면 70평생의 업적이 남습니다. 살았다는 업적입니다. 업적이지 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취를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업식이 고정되게 그냥 있다면 어떻게 자꾸 바뀌지겠습니까. 바꿔질 수가 없잖아요. 시대가 변할 수도 없고, 사람이 변할 수도 없고 늙어 갈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자꾸 변동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저렇게 생각하면 속에서도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작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배어 있는 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거죠.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하는데,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 대로 소화를 시켜야 하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살고, 몸 속에 있는 것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다 작용을 하고 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그 생명들도 죽고, 생명이 죽으면 우리들도 죽듯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합니다. 이걸 넣으면 이것 때문에 작용을 해야 하고, 저걸 쓰면 저걸 쓰는 대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썼다 하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혈관을 다 움죽거려야 되니까 뭐가 고정돼 있다, 짊어지고 나왔다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짊어지고 나왔다 이런 소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됨이 없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만약에 각자 인간이라는 뿌리가 없다면, 아니 벌레의 생명도 생명인 그 뿌리가 없다면 사람으로 화해서 창조가 되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는 이 뿌리가 없다면 나무가 없을 것이고, 잎이나 가지도 없을 것이고, 꽃도 못 필 것이고, 꽃이 떨어지니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뿌리를 믿지 않으면 안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대조사들이 말씀하신 것은, 엉키고 엉킨 그 뿌리가 바로 바라밀로 돌아갈 수도 있는가 하면 뿌리 자체가 바로 육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 윤회로서 돌아갈 수도 있는 그 엉키고 엉킨 뿌리가 바로 업이 되고 과보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그 자체 뿌리가 바로 엉킴 없이 엉켜 있다면 우주 간 법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만법의 이치가 되니 어찌 그것을 업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생각에 수미산만하게 업적을 지을 수도 있고 한생각에 수미산만한 거를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어서 잘못해 놓고 자기가 고를 받고 한생각을 잘해서 고를 받지 않는다는 걸 현실에서 입증해 보이지 않습니까?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거를 '허허,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가르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화가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를 막지 못하면 큰일나겠다.' '네가 해 놓은 거니까 네가 있다면 할 것이고 네가 없다면 못하겠지.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선 탁 누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편안히 다시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팔자 운명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다. 너는 항상 찰나찰나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과거도 돌아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도 공해서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네 마음은 광대하고 무변하니라. 그러니 그냥 뛰어라, 벗어나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선적으로 뛰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번 먹는 대로 뛰는 건데 그거 왜 못해요, 글쎄. 육신이 고통을 받으니 못해요, 왜 못합니까? 본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이 그러하면 부처님의 뜻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채찍은 내 스승을 만나는 것

스스로를 채찍질해 가면서
허공 길을 길삼아 걸어야

진언에 대하여

문 진언(眞言)이란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 예불 중에 외우는 경에도 많은 진언이 있고 또 다라니경(陀羅尼經) 같은 것은 주력이 있다 하여 예불 중에도 빼놓지 않고 외우는데, 그 진언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째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누가 효력이 있다고 그러나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지장경을 염하고, 이게 진언이 되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가난하게 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진언을 외우고, 또는 명이 짧다 하면 남의 말을 듣고서는 또 침성에게 빌면서 진언을 외우고, 또는 아주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지장한테 빌고 진언을 하고, 또 용신(龍神)한테 진언을 하고, 이거는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진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앞에 닥치는 대로요. 그런데 다 똑같은 진언이 아니죠. 모두가 자기 가정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진언을 하게 되죠. 병고가 있으면 바로 약사보살을 찾고, 길을 가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면 바로 지신한테 진언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게 우리 사는 용도와 똑 같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바깥으로 노예생활을 하면서 노예로서의 진언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한 군데서,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한 군데서 모두 살림살이를 하고 갑니다.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를 끌고 다니는 바로 근본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아까 말했듯이 명이 짧으면 짧은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병도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야!"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돌아가는 것도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진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 저리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진짜 진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깥으로 떨어지는 진언이고, 이것은 안에다가 되돌려놓는 진언이기 때문에 우주 법계에 일체제불의 마음으로서 전부 통신이 되는 겁니다. 직결이 돼있고 가설이 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진언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진언입니다. 바깥으로 상대를 두고 진언을 하는 거하고, 상대를 두지 않고 직접 자기 자성(自性)에 진언을 하는 거 하고는 어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상 가도 노예가 될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르치지도 말아야 하고, 노예가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무정물도 윤회하는지…

문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중생들은 6도를 윤회한다고 하는데, 물론 성불하게 되면 그렇지도 않겠지만 천상, 인간, 지옥, 아수라, 축생, 아귀라는 육도를 윤회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식물이나 바위 등 무정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돌이 서 있는데 비에 씻기고 바람에 스쳐서 그냥 반드르하게 한쪽이 달아나갔어요. 그런 걸 볼 때 그것이 바뀌지지 않은 거라고 할 겁니까?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노릇 할 때가 있으면 자식 노릇 할 때가 있고, 그런 게 윤회예요. 남편 노릇하다가 자식에게는 아버지 노릇을 할 때가 바로 윤회라니까요. 윤회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윤회예요. 그러니까 윤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젊어지고 늙어지고 하는 것도 바로 윤회죠. 또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도망가고 또 딴 말을 해야 하니까 그것도 윤회구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바뀌지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붙을 데가 없다 이랬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암흑이었다고 봅니다. 암흑 세계에서 우리가 생명이 생기게 된 원인이 불 · 물 · 바람 · 흙, 즉 흙이라면 먼지를 말하죠. 그것이 한데 합쳐서 하나가 붙으면 하나가 커지고, 둘이 붙으면 둘이 커지고, 그저 굴러가는 대로 서로 엉기고 붙어서 인연이 있어서 불의 인연, 물의 인연, 바람의 인연, 흙의 인연이 한데 합쳐지니까 원인이 되어서 생명이 생기게 된 거죠. 생명이 생기니깐 바로 광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이 생기고 밝아진 것입니다. 이 도리를 생각한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밝아져서 그 하나하나가 별성이 생기고, 별성이 생김으로써 태양이 생기고, 태양이 생김으로써 만물을 기르는 어버이가 된 거죠.

이 산하대지는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와 같고, 태양열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자라나는 것은 아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물 속에서 사는 고기들도 천차만별로 모습과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있고 알지 못하는 고기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 밑에서 사는 것도 있으니 그 태양열이 어떻게 거기를 한데 합쳐서 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입니다. 마음은 태양열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깊이가 깊든 얕든, 높든 낮든 불문에 부치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물이라는 것도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 지수화풍의 근본도 다 그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걸 없다라고 하고 어떤 걸 아니다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문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욕망과 욕구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에 따르는 것인 줄 알면서도 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자리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는 것도 없고 떠오르는 마음을 좋다 나쁘다 하여 억누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생각되어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계속합니다만 이 반복되고 떠오르는 마음들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지요.

답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가 없으니까요. 어느 때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본래 인생은 끊어짐이 없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또 배출해 놓고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 뿐이죠. 옷 벗어버리는 거나 같고, 또 자기가 자기를 늘려 놓고 자기 하나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자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개개인이 또 그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그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가 어디 있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하게 자기는 이 세상을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듯이 하는 걸요. 우리가 저녁에 잔다고 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죽고 살고 하는 생사에 관한 건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죽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나 욕망이 일어나는 거를 어느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급한 생각도 없어야 되거든요.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제가끔 나올 때

☞ 30면으로 계속

불교는 생활의 진리·삶의 과학
내가 주인 돼 마음 계발해야

☞ 29면에서 계속

는 자동적으로 꽁지가 꽁지를 물고 자꾸 나오거든요. 그게 과거에 입력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거라면 그냥 '어, 그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그러고선 잘 생각을 해서 이익할 거라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익하지 않을 거라면 잘 돌아가게끔 거기 놓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야 어느 때쯤 가다 보면 감응이 되고 알게 됨으로써 '아! 이런 거를 내가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고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모두들 지금 여여하게 살면서도 사는 게 없습니다. 여여하게 사는 반면에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무(無)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인공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놔야 된다,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맡기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쏘는데 똑바로 탁 들어가 맞아야 할 텐데, 화살이 이리로 가서 맞고 저리로 가서 맞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사에 의심이 가고 확신이 생기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다면 중심을 꿰뚫는, 전체를 꿰뚫는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주팔자가 있는지…

문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요? 몇 년 전에 흥미로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벼운 기분으로 보았지만 안 좋은 말을 들어서인지 계속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털어 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 다시 불쑥 생각이 나고 조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이고 사주팔자를 본 것도 주인공의 장난이니 주인공에 되맡겨 놓으면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에 놓으려고 해도 주인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금세 다시 걱정하는 마음이 되곤 하는데 나 스스로도 자신이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여겨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털어 버리고 편안한 마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어떤 분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삼살방이 들어서 계약은 해놓고 못 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삼살방이 들어서 집안이 잘 안되고 누가 죽는다고 그랬답니다. 또 누구는 어디로 이사를 가면 가환이 떠나질 않는다, 너는 내년에 꼭 죽을 사주팔자고 삼재가 들었으니까 꼭 잘못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미약하고 약했으면 자기가 인간이 되기까지 그토록 애를 써서 고귀한 생명을 헝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흔들리고 자기로 살지 못하고선 남의 말에 따라서 그냥 휘휘 돌아가야 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노예지 자기 스스로 사는 참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우환을 면치 못하고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끄달리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집안은 가난하고 항상 오락가락 융합이 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척은 친척대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거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갖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어놓은 것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녹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가 제가끔들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혼자 왔다 혼자 가는데 서까래 공덕으로서 자기의 뿌리이자 씨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해서 인간의 됨됨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그 인연을 어떻게 녹여야만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질로도 안되고 돈으로도 안됩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녹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기복으로 나가지 마라. 바깥에서 그 많은 이름을 찾지 마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름 없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엄마로도 이름이 쓰여지고 형님으로도 쓰여지고, 때에 따라서는 며느리로도 쓰여지고 딸로도 쓰여지고, 또 아내로도 쓰여지고 동생으로도 쓰여지고 누이로도 쓰여지고 갖은 각색으로 이름이 쓰여지는데, 어찌 같은 한 이름만으로 이루종차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미륵보살이다, 용왕이다 조왕이다, 신장이다, 이건 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 이름이 다 나가는 것을 어찌 그 이름을 일일이 이루종차 부르면서 타의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생활 불교이면서 생활의 진리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 삶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계발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실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놨는지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과학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바로 마음에서 계발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써 생활을 융통성 있게 자유스럽게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무루와 유루를 한데 합친, 바로 으뜸가는 과학적인 우리 살림살이일 겁니다. 그런 과학의 삶을 어떻게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야 할 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나 대면 이후 공부

문 현재의 나와 주인공이 한마음이고 둘이 아님을 체득하게 되는 것은 참나를 깨친 후에라야만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깨치기 전의 과정에서 주인공을 절실히 믿고 관하는 과정 중에는 이루어짐(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없는 건지요. 둘째는 참나와 대면한 후에 본격적인 공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셋째는 주인공과 내가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너무 좀 앞서 조급증을 낸 듯합니다.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스님 말씀에 눈이 번쩍해서 한참을 읽다가 질문 올립니다. 저도 크게 깨우쳐서 인간으로서의 참도리를 알 수 있는, 한마음으로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고픈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둘 아닌 도리서 무궁무진한 이치
깨우치고 난 뒤 공부가 참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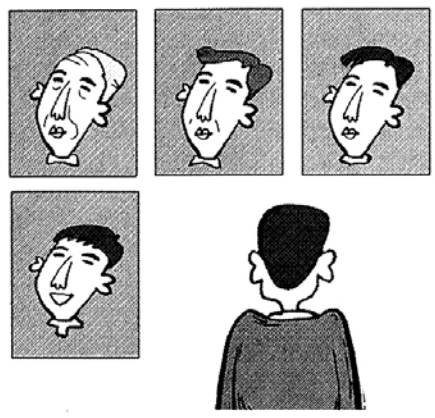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예전에 선지식들께서는 좀 미련한 듯한 사람이 공부는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미련하니까 한 길만 파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한 군데로만 파고 들어가거든요. 미련하게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더 빠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알려고 한다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누가 잘한다고 하면 그냥 그것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는 그리로 우 몰리고 이러는데, 그게 말 배우러 다니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래도, 내가 깨우치고 난 뒤에 보면은 그거를 알게 된다하더라도 내가 깨우치지 못한 채 그냥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깨우친 사람은 둘 아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둘 아닌 공부다 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거기에 붙어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조선사도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여 년이 넘도록 다니셨단 말입니다. 몸은 다녔으되 다닌 사이가 없이 면벽을 하고 다니신 거죠. 바깥 경계를 보면서 안으로 놓고 안으로 놓고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내가 말하듯 '주인공, 너가 있다는 것을 너만이 알게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해야 됩니다. 깨우친 사람에게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자불하고 상봉할 때, 생각이 안 났을 땐 떨어졌고 생각이 났을 땐 그냥 둘이 아니게 항상 붙어 돌아가게 됩니다. 전기도 내 전력과 저 전력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한 군데서 전력을 쓰게 되고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둘 아닌 도리에서만이 무궁무진한 그런 이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우치고 난 뒤에 진짜 공부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공부를 하려면 주춧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올리려면 애당초 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너만이 너를 이끌어 간다' 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받침이 돼야 됩니다. 여북하면 어떤 선지식들은 '부처님 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게 부처님 법이다'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말로써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뜻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형성시켰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자기이니까, 과거 수억 겁을 내려온 자기이니까 그런 거죠. 깨우친다는 언어도 붙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을 못하고 제대로 용(用)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거 쓸 때 요거 쓰고 요거 쓸 때 이거 쓰고 자유스럽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상황을 봐서 환경에 따라서 잘 그렸으면 특상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저기도 보지도 않고, 저 나무가 퍼런지 저 나무 줄기가 흙빛인지 그것도 보지도 않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냥 갖다 그리는 거나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상은 못 받죠. 그렇지 않을까요? 더불어 같이, 더불어 같이 공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시시때때로 찰나찰나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거고, 환경에 따라서 용을 하는 거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한생각을 내는 거 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색에 착을 두지 말고, 분홍색 따로 착을 두고 빨간색 따로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삼십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내가 그림을, 갖추어져 있는 환경을, 오관을 통해서 잘 보고선 한 가지를 갖다 쓰고, 요거 다하고 또 한 가지 갖다 쓰고 하듯이 요량있게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유유하고 편리하다 이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참된 삶의 목적은 당신의 의식 속에 감춰져 있다!

의식의 두 얼굴

저자 밀풍 리농(密豊 理農)은 누구인가?
오랜 수행생활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체득하게 되어 20여 년 전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깨달음이란 이론적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임을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 불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요법을 펼치고 있다.

'의식의 두 얼굴'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선천적인 '자연생리의식'과 후천적인 '뇌 의식'이란 두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분명한 실체인 자연생리의식의 존재를 입증 및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의 명확한 구별을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존재의 진정한 목적인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간화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의 간화선 수행법은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자연생리의식의 타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원효 · 경허 · 성철 · 서옹 · 진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 5인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한마디로 이 땅에 바른 불법(佛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이들 승려 5인이 정각(正覺)에 이른 것이 아닌 오십마(五十魔)의 마군(魔軍)이라면 큰일 아닌가!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하는가?
삶의 참목적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수행?수련생활에 정진하고 있거나 뜻을 두고 있는 이들, 암 · 간경화 ·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 및 가족들, 한국의 불교 현실 및 바른 불법(佛法)을 알고자 하는 이들, 진정한 이상향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부인하고 있는 이들……



밀풍 리농(密豊 理農) 著
변형 크라운판 / 400면
값 18,000원

도서출판 의단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동 400-3 동우빌딩 405호
Tel · 032-347-8118~9
Fax · 032-341-8117
◆저자 상담 : Tel · 011-559-8118, E-mail · reenong@mindbody co kr
◆도서 주문 : Homepage · http://www mindbody co kr
우체국 계좌번호 104950-01-000455, 예금주 : 의단원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
(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 성 합장



◇어린이의 눈높이로 만든 전용법당은 침체된 어린이포교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안양 한마음선원 어린이 법당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사찰들 어린이 전용법당 늘고 있다

"우리만의 공간… 절에 갈맛나요"

한마음선원 나지막한 불단… 법회·놀이·공양까지

화성신흥사 문수·남순 동자상 친근감, 동화책도 비치

"절에 갈 맛이 나요. 우리들만의 법당이 있으니까요."

안산 보문선원(주지 보림)의 어린 불자들에게 경사가 생겼다. 지난 3일 어린이 전용 법당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간 잔디밭이나 옥상에서 법회를 보아 온 새싹 불자들에게 전용법당이 생기자 아이들은 어른이라도 된 양 경건해졌다.

어린이 전용법당이 늘면서 어린이 법회의 프로그램 다양화는 물론 포교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속속 문을 여는 어린이 전용법당은 부처님과 탱화 등 예불공간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모셔져 있고 각종 놀이기구와 학습도구까지 갖추어져 있다.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법당에서 자연스럽게 법회를 보고 즐거운 놀이와 학습을 하는 것이 어린이 전용법당의 자랑.

매주 일요일 200여명의 어린이가 나오는 안양 한마음선원의 어린이 법당에서는 법회와 놀이뿐 아니라 공양도 해결하는 만능 공간이다. 아이들은 나지막한 불단에 정성껏 절을 하고 학교 교실 같은 놀이시설을 익숙하게 즐긴다. 자기의 밥과 반찬은 자기가 덜어 먹는 자율 식사까지 하고 나면 아이들은 법회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 할 정도. 그래서 법회가 끝나면 지도법사인 혜응스님과 함께 절 밖 골목에서 환경법회를 하기도 한다. 혜응스님은 "자기들만의 공간에 즐기는 책과 놀이기구, 교재들을 갖추어 놓은 것만으로도 법당에 대한 아이들의 자부심과 애착은 대단하다"며 "2년 전 전용법당을 새로 단장하고부터 아이들의 출석률과 법회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화성 신흥사는 파스텔 톤의 단청으로 포근한 인상을 주는 법당을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법당에 관세음보살과 남순동자, 문수동자가 모셔져 있는 것도 알뜰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지도법사 선관스님은 "전용법당이 생긴 뒤부터 아이들이 법회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오는데 그 이유는 법당에 와서 만화와 동화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웃었다.

이한길 기자 sunggak@buddhapia.com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1·2년생들

"언니·오빠 대학합격하세요"

'불심담아 언니, 오빠들의 수능 고득점과 대입합격을 기원합니다'

명성여자고등학교 불교학생회 1, 2학년 회원들은 수능 시험 전날인 11월 5일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해 법당인 수심당에서 '수능 고득점 및 대입 합격 기원 108배'

'수능' 전날까지 고득점 기원 108배
점심시간에 단주 만들어 선물도

를 올린다. 1, 2학년의 점심 시간이 달라 전체 학생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점심식사후 회원 스스로가 수심당에서 특별한 형식없이 자율적으로 108 염주를 들리고 있다.

광동여자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회원들도 상시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 108배를 하고 있다. 특히 수능이 한달도 남지 않은 요즘은 고3 언니들의 고득점 성취를 발원하며 한배한배 정성을 담고 있다.

동대부고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선배들의 고득점과 대학 합격을 위해 점심시간 등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단주를 만들고 있다. 총 300개를 만들어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회 선배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

이외에도 정광, 보문, 능인, 심인, 진선 등 종립학교에서는 '수능 고득점 기원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불심을 모아 고3 수험생들의 수능 고득점과 대입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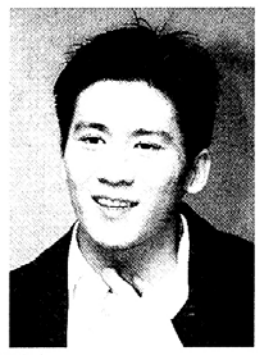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명성여고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선배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점심시간에 수심당에 모여 108배를 하고 있다.

입대 앞두고 고별콘서트 홍경민 불자가수

"불심으로 군복무… 신고합니다"



"가수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노래를 듣기 위해 기다려 주신다면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14일 군에 입대해 마이크 대신 총을 든 가수 홍경민씨는 팬들에게 진정한 사나이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홍경민씨는 끝까지 팬을 위하는 마음으로 입대하기 전인 12, 13일에도 고별콘서트를 선보이는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다. 입대전 좀더 많은 모습을 팬들에게 보이고 가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배려이다. 그가 입대영장을 받은 시기는 두달전. 그동안 홍경민씨는 자신이 입대 영장을 받은 것을 알리지 않고 '군대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홍경민'이 아닌, '마지막까지 팬들의 곁에 남아 있는 가수 홍경민'으로 남으려고 노력했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서 '홍경민의 지혜의 말씀' 코너를 석달간 서비스 하기도 했던 홍경민씨의 활약 뒤에는 언제나 부처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의 정성이 제겐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피에 의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힘보다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진 이런 마음도 결국은 부처님의 가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신답니다."

홍경민씨가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

강지연 기자

명작 비디오 파일 — 스타워즈 에피소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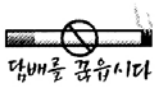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스타워즈 1편으로 소개된 스타워즈 에피소드4, 우주라는 광대한 세계에 눈을 돌리게 해준 SF영화로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워즈의 첫화면은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선에서부터 시작된다. 제국의 2인자 타킨 총독의 힘의 통치를 막기 위한 레이아 공주와 루크 스카이워커의 활약을 그린 영화다. 주인공 루크는 레이아 공주의 전언을 전하기 위해 행성으로 떨어져 이곳이 어디냐고 묻는 3PO에게 "우주의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에서 가장 먼 행성일 것"이라고 자신이 사는 행성을 소개한다.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는 하나의 해와 달이 있는 현 세상과 같은 곳이 1천개가 모인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천개 모인 중천세계, 또 중천세계가 천개가 모인 대천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기세경〉에서 설하는 삼천대천세계(三天大天世界)는 '동시에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부서지고 흩어진다. 괴멸과 동시에 다시 이루어지고 성립한 그 곳에 안주함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다만 인연의 도리에 의해 같이 생성하고 같이 소멸하고 같이 안주할 뿐이다.

스타워즈에서 찾을 수 있는 공상과학적 재미 말고도 이런 우주의 생성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본다면 영화의 재미가 배가되지 않을까?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www.starwars.com)에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4, 5, 6의 갤러리를 서비스 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흡연과 구강건강

흡연은 구강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담배 자체에 있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구강 내 조직에 심한 자극을 주고 전신적인 면역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구강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흡연을 하게 되면 입안의 온도가 높아져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 치태 생성이 촉진되어 위생상태가 악화된다. 면역반응도 약해져서 치주 염증이 잘 발생된다. 또한 우리의 손과 발에 생기는 군살처럼 흡연으로 인해 구강 점막이 두꺼워지는 니코틴 구내염도 유발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의 한국인 질병조사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발병한 83,846명의 악성 암환자 중 구강암 환자가 1,777명(2.1%)으로 보고 되고 있다.

치주염증·니코틴 구내염 자주 발병

불교 포교프로그램 대폭 강화

불교방송 21일부터 가을개편 단행

춘천불교방송 내달 개국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불교문화산책, 지혜의 샘터, BBS 초대석, 라디오 로그인(가제) 등 불교방송의 가을이 풍성하다.

편안한 방송, 삶의 위안을 주는 방송을 모토로 진행된 이번 가을 개편은 포교 프로그램의 비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 주간 편성비율에서 포교는 3.8%, 교양은 2.4% 늘었다.

불교방송은 또 춘천불교방송이 11월 1일 개국함에 따라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 지방국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편성 가능 시간대를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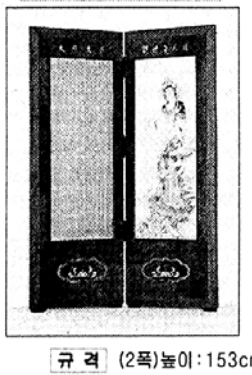
21일부터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신설프로그램은 청취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보다 한걸음 다가선 포교 프로그램들이다. '라디오 로그인(가제)'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맞춰 법률, 시사, 건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불교문화산책'은 불교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접근해보는 시간. '지혜의 쉼터'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짧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BBS 초대석'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각계 인사들의 불교와의 인연이야기를 들어본다. '한밤의 명상음악', '젊은 그대에게'도 신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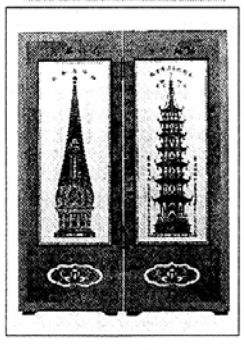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우리의 대표 브랜드 - 삼성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당신의 신용이 됩니다



안양보육원 어린이들과 함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행복하세요?
지금부턴 주위 분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당신에겐 더 큰 행복이 됩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삼성카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카드는 사회복지법인
안양보육원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행복하게
SAMSUNG 삼성카드

365일 24시간 열린 서비스 www.samsungcard.co.kr ■ 상담 및 문의: 1588-8700 ■ 전화로 대출: 1588-8600 ■ 인터넷 대출: 삼성카드 홈페이지